

# 교통 도시재생 생활문화자원조사 용역

2020. 3





# 제 출 문

---

춘천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교통 도시재생 생활문화자원 조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한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

---



교통 도시재생 생활문화자원조사 용역

# 목 차

## **I. 사업개요** 1

---

- 1. 사업개요 3
- 2. 사업 범위 및 세부내용 4
  - 1) 시간적 범위
  - 2) 공간적 범위
  - 3) 내용적 범위
- 3. 사업추진 일정 6

## **II.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조사** 7

---

- 1. 조사공간의 역사적 특성 9
  - 1) 지역의 지리적 특징
  - 2) 마을형성과 주민 거주역의 역사적 맥락
- 2. 지역민의 생활문화조사 22
  - 1) 지역의 주민구성
  - 2) 가구, 주택 현황
  - 3)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 3. 스토리에 기반한 생활문화자원 29
  - 1) 문화재
  - 2) 제례 및 민속
  - 3) 교육기관
  - 4) 언론기관
  - 5) 문화예술
  - 6) 기록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자연자원
  - 7) 현재 거주지역 주민 및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의 인터뷰에 기반한 스토리

### III.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활용방안 제안 141

---

1. 조사분석을 통한 기본 콘셉트 143
2. 봉황이 품은 마을 148
  - 1) 행정의 중심으로서 Power Spot
  - 2) 교육의 중심으로서 Power Spot
  - 3) 외교의 거점으로서 Power Spot
  - 4) 문학과 예술의 산실로서 Power Spot
3. 생활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제안 152
  - 1) 봉의산 순례길
  - 2) 봉황마을 교육 축제
  - 3) 글나무 세 그루 이야기
  - 4)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한 뉴딜로 만나는 춘천
  - 5) 봉황마을 아트페어
  - 6) 차이나 춘천(중국문화의 재발견)
  - 7) 봉황마을 이야기꾼(스토리텔러 아카데미)
  - 8) 공자 학당
  - 9) IT로 만나는 청소년 네트워크
  - 10) 봉황마을 이미지 아이덴티티 개발
4. 봉황마을 Story Map 158

### IV. 부록 159

---

1. 지역 설화 161
2. 포토갤러리 190
  - 1) 길
  - 2) 인물
  - 3) 문화재 및 건축물
  - 4) 자연 및 생활문화



# I .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 2. 사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

- 1) 시간적 범위
- 2) 공간적 범위
- 3) 내용적 범위

## 3. 사업추진 일정



# 01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춘천은 『삼국사기』에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6년(637) 군주를 두고 우수주라 불렸으며 문무왕 13년(673) 우수주를 수약주 (오근내 또는 수차약)로 개편하였고, 경덕왕 16년(757) 삭주로 되었다가 뒤에 광해주로 개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맥국의 수도로 지목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고려 태조 23년(940년)에는 광해주에서 춘주(春州)로 고쳤고, 1403년 조선 태종 3년에 현재의 이름인 춘천으로 개편하였다. 1415년 태종 15년에 도호부로 승격되어 춘천도호부가 되었고, 1888년 고종 25년에 춘천유수부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 예속되었는데 당시 왕명으로 현 강원도청 자리에 이궁을 건축하게 하여 조정 위급 시 피난처로 정한 도시이다.

고도도시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 기슭에 행정, 교육,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역사 지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 교동·소양동이다. 춘천의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드러나지 못하여 의미를 점차 상실해가는 시점에 시행되는 생활문화자원 조사사업은 교동·소양동 지역에 대한 가치 규명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기초조사는 먼저 조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동·소양동의 문화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도·읍지·각종 문집 등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지역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동·소양동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사업 범위 및 세부내용

사업 범위는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였다.

### 1)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교동·소양동 지역 일대에 춘천도호부가 처음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춘천의 변천표>

해당년도	내용
1403년	춘천으로 개편
1413년	춘천군 개칭
1415년	도호부 승격 도호부로 승격되어 춘천도호부가 됨
1888년	춘천유수부 승격 춘천유수부로 승격되면서 경기에 예속됨 왕명으로 현 강원도청 자리에 이공을 건축
1895년	춘천관찰부 원주감영을 없애면서 도부사를 춘천으로 옮겼다가 그 후 관찰부로 고침 관찰사를 주재
1939년	춘천읍 편입 우두, 사농, 후평, 석사, 퇴계, 온의 등 6개 리가 춘천읍으로 편입
1946년	춘천부 승격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됨
1949년	춘천시 개편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춘천부를 춘천시로 개편

## 2)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춘천시 교동 34일대(교동, 소양동)로 총면적 127,504㎡ 이다. 행정동으로 교동 일부와 소양동 일부 지역이며, 법정동으로는 교동, 옥천동, 봉의동 지역이 해당된다.



법정동, 행정동 지도(춘천시 제공)

## 3) 내용적 범위

### (1) 문헌자료

- 전국지리지 : 三國史記 지리지, 高麗史 지리지, 世宗實錄 지리지,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志 등
- 지방읍지 : 강원도 도세요람, 춘천 풍토기, 春州誌, 春川邑誌 등
- 고 지도 : 靑邱圖, 大東輿地圖, 東輿圖, 輿地圖, 海東地圖 등
- 일제강점기 문헌 : 官報, 土地調查簿, 地籍原圖 등
- 지역자료 : 춘천향교지, 춘천학연구소 연구자료 등

### (2) 구전자료

- 구술 조사 : 지역 전문가 박병선(65세) 님과 전화와 대면 인터뷰, 지

역주민 홍동표(85세)님과 대면 인터뷰, 그 외 지역주민들과 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193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동·소양동 지역 관련 기억정보 채록

- 현장 답사 : 김기태(86세) 님, 권영돈(76세) 님, 현해숙(62세) 님 등과 동반 현장 답사

#### 4) 세부내용

<b>조사공간의 역사적 특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동 34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리적 특징</li> <li>- 도시 내 마을형성과 주민 거주역의 역사적 맥락</li> </ul>
<b>지역민의 생활문화 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현재 주민구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li> <li>- 스토리에 기반한 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자원조사, 문학 및 영화 등 콘텐츠로 활용된 문화자원)</li> <li>- 현재 거주지역 주민 및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의 인터뷰에 기반한 스토리</li> </ul>
<b>생활문화자원 사진기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지역의 공간 현황 및 주민 생활 모습</li> <li>- 기록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자연자원</li> <li>- 마을 주요 행사 및 생활 모습</li> <li>- 인터뷰 대상 주민 인물 사진</li> </ul>

### 3. 사업추진 일정

본 기초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다.

추진내용	일자						
	1 ~ 15	16 ~ 30	31 ~ 45	46 ~ 60	61 ~ 75	76 ~ 90	
1. 기초자료 조사 및 방향 설정	■						
2. 역사적 특성 조사			■				
3. 지역민 생활문화 조사				■			
4. 생활문화자원 기록			■				
5. 용역보고서 작성						■	

## II.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조사

### 1. 조사공간의 역사적 특성

- 1) 지역의 지리적 특징
- 2) 마을형성과 주민 거주역의 역사적 맥락

### 2. 지역민의 생활문화조사

- 1) 지역의 주민구성
- 2) 가구, 주택 현황
- 3)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 3. 스토리에 기반한 생활문화자원

- 1) 문화재
- 2) 제례 및 민속
- 3) 교육기관
- 4) 언론기관
- 5) 문화예술
- 6) 기록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자연자원
- 7) 현재 거주지역 주민 및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의 인터뷰에 기반한 스토리



## 02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조사

### 1. 조사공간의 역사적 특성

#### 1) 지역의 지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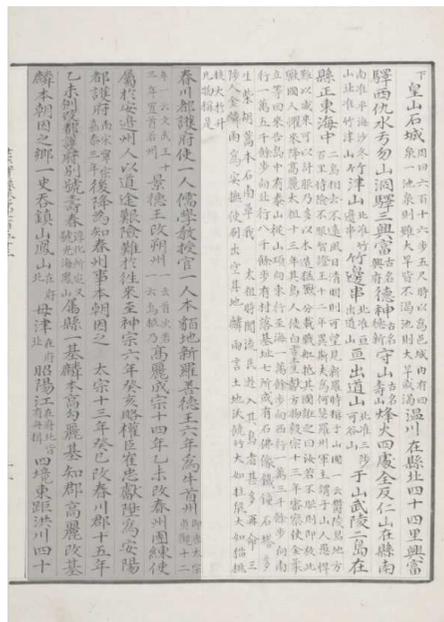
조선 시대 강원관찰부였던 현 강원도청이 봉의산(해발 301.5m)의 중턱(해발 130~140m)에 위치하고 있다. 관리들이 거주했던 교동·소양동 지역은 해발 100m~150m에 해당된다. 가장 낮은 지역은 해발 100m 지역으로 춘천미술관과 춘천향교 지역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해발 150m 지역으로 <봉의산길22번길 15>가 위치한 건물이다. 예로부터 <옥천길>을 따라 골짜기가 형성되었고 <옥천길40번길>을 따라 능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구역 등고선지도(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는 춘천도호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진산(鎭山)은 봉산(鳳山)이다. 【부(府)의 북쪽에 있다.】 모진(母津) 【부(府)의 북쪽에 있다.】 소양강(昭陽江) 【부(府)의 북쪽에 있는데, 모두 건너는 배가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홍천(洪川)에 이르기 43리, 서쪽으로 경기 가평(加平)에 이르기 38리, 남쪽으로 경기 양근(楊根)에 이르기 60리, 북쪽으로 양구(楊口)에 이르기 55리이다.<sup>1)</sup>



『세종실록 지리지』 춘천도호부 부분

봉의산 뒤쪽으로 모진강과 소양강이 흐르고 있으며, 땅은 메마르고 기후가 차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선 시대 문인들에게 곡식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산과 강으로 둘러 있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교동·소양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낮은 구릉 지대이며 봉의산에서 정남향으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능선과 골을 형성하고 있는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춘천시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계가 좋은 위치에 있다. 봉의산을 배후

1) 鎭山, 鳳山. 【在府北】 母津, 【在府北】 昭陽江. 【在府北, 皆有舟楫】 四境, 東距洪川四十三里, 西距京畿 加平三十八里, 南距京畿 楊根六十里, 北距楊口五十五里.

에 두고 산줄기가 뻗어있어 지형적으로 대기의 흐름이 수월하고 지하수가 풍성하여 거주하기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구역 위성지도(춘천시 제공)

조사대상 지역은 춘천시 동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인산 남단의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다. 서측에는 강원도청이 있으며 동측으로는 한림대학교와 유봉여중·고등학교에 면해 있으며 남측으로는 춘천시 동지역 시가지로 이어져 있는 지역이다. 조사대상 지역의 총면적은 127,504㎡이며 행정동은 동쪽의 교동과 서쪽의 소양동으로 걸쳐져 있다. 법정동 상으로는 봉의동, 옥천동, 교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사대상 지역 내 총인구는 1,657명(상권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치)이며 가구수는 797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ha당 130.4명에 해당한다.



옥천길 골목  
(옥천길 70)



봉의산길14번길 골목  
(봉의산길14번길 11)



옥천길40번길 골목  
(옥천길40번길 25-6)



향교뒷길 골목  
(향교뒷길 6-3)

조사를 대상 지역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조사대상 지역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춘천도호부나 이궁, 강원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던 지역이고, 교동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적 문화예술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는 인문적 관점에서 인접 지역으로 그 범주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조사대상 지역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방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면에서 인접도로를 파악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현대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예전 지형에 따라 형성된 기본 노선이 현대 들어서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옛 도로를 바탕으로 현재 도로형성을 파악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로 본다.

## (1) 인접 지역과 연결



조사구역 도로지도(춘천시 제공)

조사대상지 내 도로는 약 6m의 도로가 기간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4m 미만의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의 상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로 <봉의산길22번길>이 있고, 하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로 <서부대성로>와 <삭주로>가 있다. 동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춘천향교를 거쳐 한림대학교 정문을 지나 후평동으로 지난다. 예전에 이 도로는 후평동에서 향교를 거쳐 관아로 들어오는 주요한 도로였다. 서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강원도청에서 내려오는 <중앙로>와 교차하고서 근화동으로 진출하였다. 이 도로는 현재 도청을 올라가는 주요 도로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예전 크게 성행했던 서부시장에 이르는 도로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세로로 흐르는 주요 도로는 춘천미술관 옆으로 지나 봉의산으로 향하는 <옥천길>이 있으며, 옛 춘천여고 옆을 지나 봉의산으로 오르는 <옥천길40번길>과 향교를 끼고 오르는 <향교옆길>과 <향교뒷길>과 만나는 <옥천길40번길>이 있다. <옥천길>과 <옥천길40번길>은 가로지르는 <봉의산길22번길>과 만나게 된다.

조사지역 내 도로는 <봉의산길22번길>, <옥천길>, <옥천길40번길>, <옥천길54번길>, <향교옆길>, <향교옆길13번길>, <향교옆길15번길>, <향교뒷길> 등 모두 8종이다.

특히 <옥천길>과 <옥천길40번길>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길이다.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옥천길>은 조선 시대 관아로 나아가는 주요 도로였고 관리들이 살았던 동네의 중심 길이었다. 중간 우물이 있는 곳까지는 차량의 교차가 가능하지만, 그 위로는 일방통행만이 가능하며 마지막 부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고 도보로 계단을 올라야만 <봉의산길22번길>과 만나게 된다. 원룸이나 빌라가 건축되면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더욱 불편하게 되었다.

산등성이로 형성된 <옥천길40번길>은 근대 들어 도로가 형성되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던 도로로 현대에는 차량으로 봉의산에 오를 수 있는 중심도로가 되었다. 도로 폭이 여유로워 차량의 소통이 수월하고 중간 지점에 주차장이 산재해 있어 차량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하다.



옥천길 입구  
(춘천예술마당 옆, 서부대성로 71)



옥천길40번길, 향교뒷길 교차지점  
(동보빌라 앞, 옥천길40번길 19)



옥천길54번길, 향교옆길13번길 입구  
(옥천길54번길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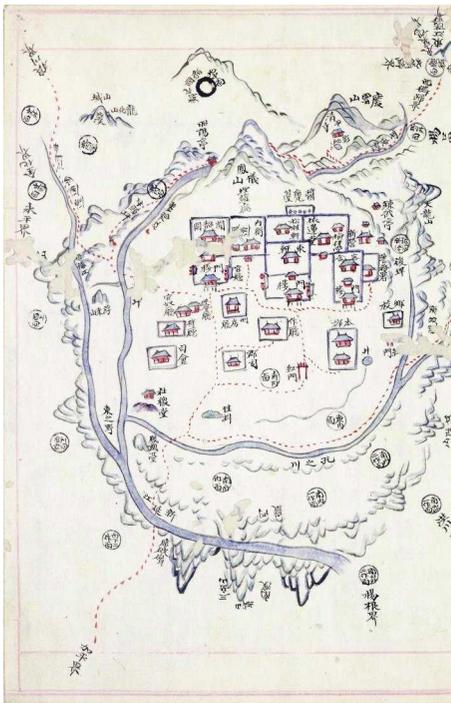
향교옆길, 향교옆길13번길 교차지점  
(향교옆길 13)

## 2) 마을형성과 주민 거주역의 역사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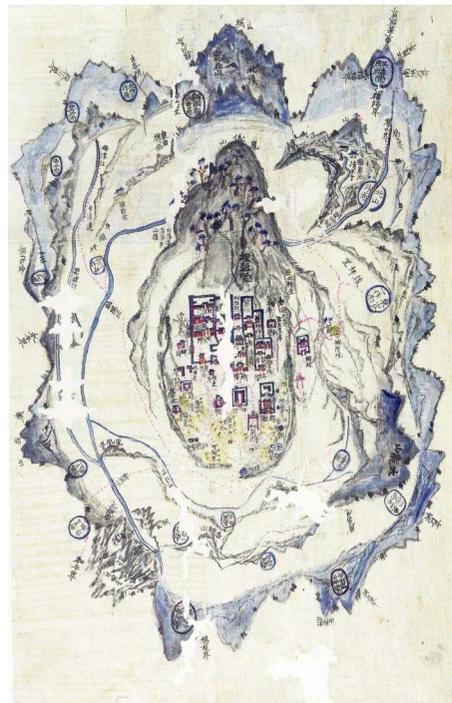
### (1) 조선시대

1415년 태종 15년에 춘천도호부가 설치되면서 교동·소양동에 본격적으로 관청이 세워지고 관리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1888년에 춘천유수부로 승격되었고 왕명으로 현 강원도청 자리에 이궁을 건축하기에 이른다. 1895년에는 원주 감영을 없애면서 강원도부사를 춘천으로 옮겼다가 그 후 강원관찰부로 이름을 고치게 된다. 관찰부에 관찰사를 비롯한 도정관리들이 주재하게 되면서 교동·소양동 지역에는 더욱 많은 행정관리가 상주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향교골과 아전골이라 불리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었고 이들 골짜기 사이로 산줄기가 뻗어있다. 이 산줄기를 넘는 두 개의 큰 고개가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 것이 잣고개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백고개이다.



갑오경장 시기 춘천유수부도  
(춘천학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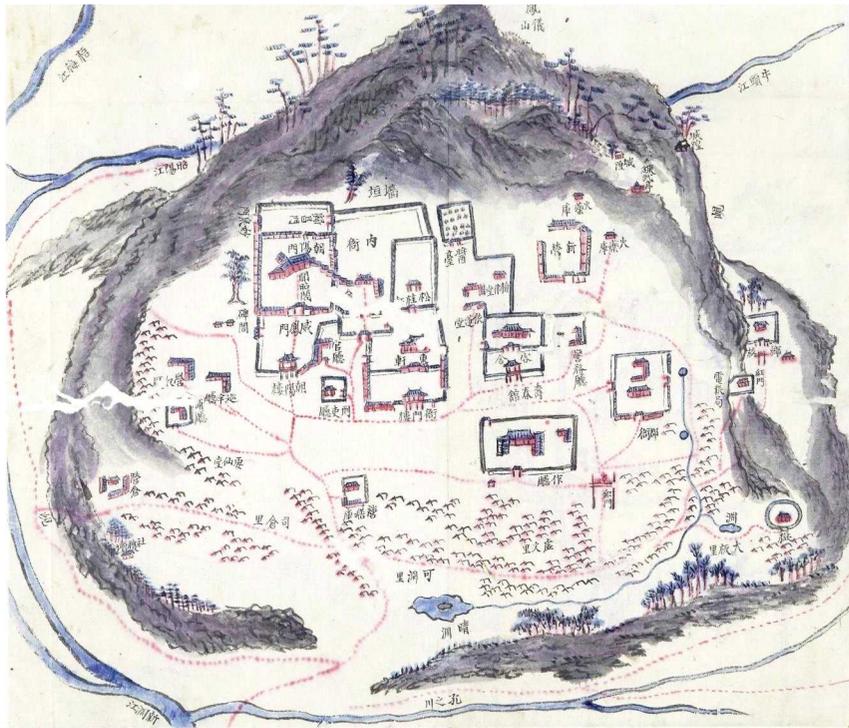


춘천읍지(1896.5~1897.11,  
춘천학연구소 제공)

고지도를 통해 조사지역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두 개의 홍문(홍살문)이고, 다른 하나는 옥천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과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샘터이다. 남쪽에 있는 홍문(현 시청 옆 옛 중앙파출소 자

리)과 동쪽에 있는 홍문 (향교에서 옛 춘천여고로 가는 길목)을 통하여 관청으로 나아갔다. 홍문을 지나치는 길이 당시 큰길이였음을 증명한다. 조선 시대 관료나 백성들은 남쪽 홍문을 통과하여 옥천길을 따라 관청으로 나아갔고, 동쪽 홍문을 통과하여 백고개를 넘어 옥천길을 따라 관청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현 춘천미술관 앞 교차로가 당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장 큰 교차로였음을 의미한다.

옥천길을 따라 두 개의 큰 샘이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지도에도 등장한다. 조사지역에는 다섯 이상의 우물 흔적이 보였다. 그중 제일 큰 우물이 〈옥천길 57, 59〉 뒤편에 있는 공터에 샘과 〈옥천길〉 중앙에 있는 큰 우물이다.



춘천읍지(1897년 제작 추정, 춘천학연구소 제공)

옥천동 지역이나 교동 지역에 우물들이 밀집하여 있다. 개천을 이루고 연못을 이룰 만큼 수량이 풍부하다. 그중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도 있다.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지명유래<sup>2)</sup>

봉의동, 옥천동은 조선 시대에 아전골로 불리던 지역이다. 아동리(衙洞里) 또는 아동(衙洞)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고을의 아전들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아의 관리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현재는 이 아동리 일부가 교동에 편입되었다.

교동(校洞)은 예전 향교골, 아동리, 아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교동에 ‘한우물’이라는 큰 우물이 있었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폐쇄되었다.

옥천동(玉泉洞)은 아골말, 아동, 단양정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옥천동은 본래 춘천의 중심지역이다. 춘천도호부의 관아가 있었으므로 아골말, 또는 아동(衙洞)이라고 불렀는데, 일제강점기에 대성정(교동), 봉의정(봉의동), 단양정(丹陽町)으로 정했다가 1946년 왜식 동명을 변경할 때 옥천동으로 고쳐졌다.

봉의동(鳳儀洞)은 춘천도호부 시기에 아동리(衙洞里)의 일부였다. 1939년 아동리를 갈라서 봉의정(鳳儀町)이라 했다. 봉의산 밑에 있으므로 봉의동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1946년 외식으로 동명 변경 때 정(町)을 동(洞)으로 고쳤다.

&lt;지명유래의 변천표&gt;

종 별	지 명		한 글 명		비 고
			1910년대	현 재	
里 名	조선지	衙洞里	아골말	교동	교동
	(여)아동리(衙洞里) 마등리(馬登里) (읍)아동리(衙洞里) (관)아동리(아동리) (강)				
山 名	鳳儀山		봉의산	봉의산	
坪 名	下馬碑坪		하마비들	하마비들	
峴 名			빅지고기	백고개	교동에서 옥천동으로 나가는 고개
	栢峴		жат고기	жат고개	교동에서 후평동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한림대 자리
古蹟名所			한우물	한우물	교동에 있는 큰 우물
			바위물	바위물	
	池繼泗碑閣		지계사비각	지계사비각	향교 안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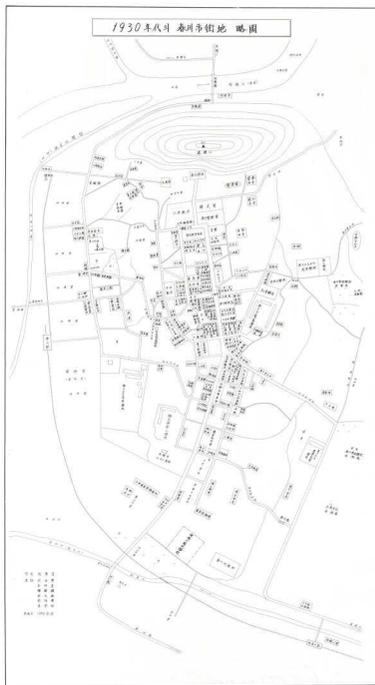
출처 : 강원외 고지명(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5)

2) 출처 : 춘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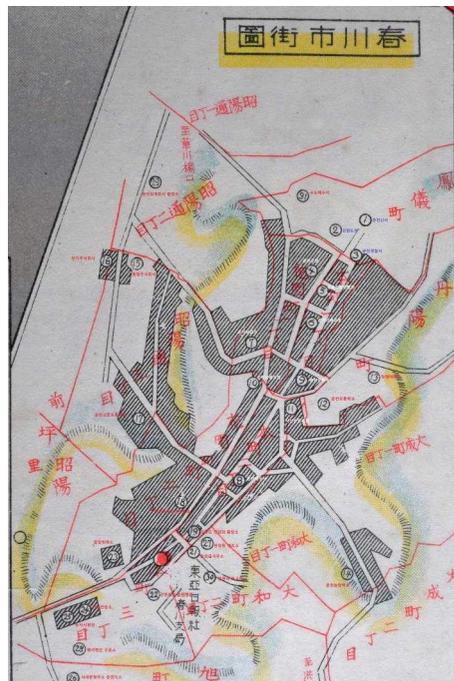
백고개는 교동에서 옥천동으로 나가는 고개이고. 잣고개는 교동에서 후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금의 한림대 자리가 바로 잣고개였다. 한편 도청 뒤쪽에서 소양로로 넘어가는 고개를 머수물재, 또는 오식령(梧植嶺)이라 불렀다. 또한 마승감(馬乘監) 또는 마현(馬峴)을 말탕개미라고 불렀다. 향교 끝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향교 앞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행인은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는데 향교 앞으로 나 있던 고갯길은 마현, 말고개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향교 앞으로 말을 타고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고개, 마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우리 관청을 밀어내고 일본제국의 관청들이 들어서면서 조사지역에는 주로 일본 관리들이 들어와 살았다. 좋은 주거환경을 알고 주요 관청의 관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도에 의하면 교사 사택과 은행 사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옥천동 일대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였고 한다.



1930년대 춘천시가지 약도  
(춘천초등학교 제공)



1936년 춘천시가지도  
(춘천학연구소 제공)



1930년대 춘천시가지 약도 中 교통·소양동 부근 확대

지도를 통해 춘천 최초의 여학교인 정명여학교가 현 춘천미술관 건너편에 있었고, 춘천미술관은 당시 병원이었다. 현 춘천시청 자리에는 춘천공립 보통학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당시의 교육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기관의 직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 지명유래에 대한 방송 자료 - 춘천KBS &lt;지명수배&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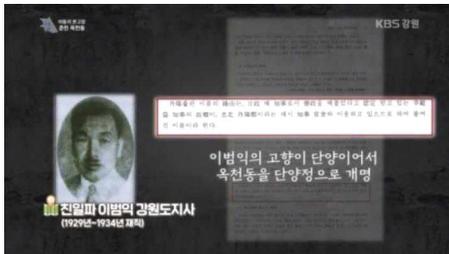
강원도의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와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그 지명이 뜻하는 지역민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프로그램인 <지명수배>는 춘천학연구소가 기획하고 춘천KBS 1TV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명수배 21회>에서 '아동의 본고장 춘천 옥천동' 편을 방송되었다. 옥천동을 비롯한 교동·소양동 일대에 대한 지명의 유래와 변천사(조선~일제강점기, 해방이후), 그리고 변경된 이유에 대해 방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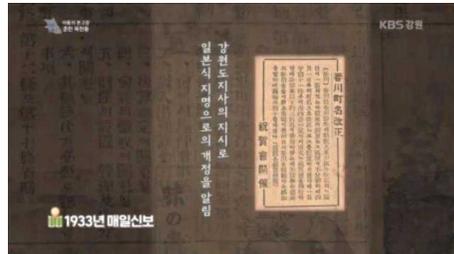
조양루, 위봉문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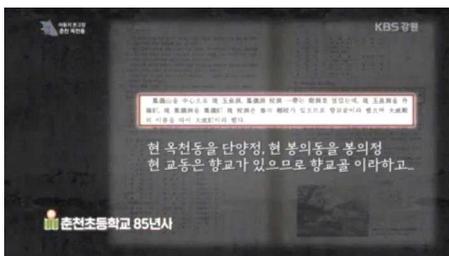
우물터로 추정되는 지장전 위치



지명이 단양정으로 바뀌게 된 이유



강원도지사의 지시로 일본식 지명으로 개정



일본식 지명에서의 변경



강원신사(춘천신사)의 위치 및 역사

춘천학연구소 제공

### (3) 해방 후 ~ 현대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부대와 관련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다. 현대식 교육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조사대상 지역은 교육 공간으로 부각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시설이 파괴되자 조사대상 지역으로부터 교육기관이 재건되기 시작한다. 한국전쟁 후 조사대상 지역에 임시로 머물던 교육 기관들은 각각 본래 공간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나간다. 행정, 교육, 언론, 종교의 주요 기관들이 조사대상 지역에 머물다가 확대 개편되어 나갔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지역이 춘천의 행정, 교육, 언론, 종교 등의 기관을 생성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배양지였다는 걸 알 수 있다.

1990년에 강원도교육청이 이전하면서 조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공무원의 수가 줄어든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봉의산길22번길>로 향하던 한림대학교의 정문이 교동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조사대상 지역으로 통과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신도수를 지닌 춘천중앙교회가 이전하고 2012년 춘천여자고등학교 역시 이전하면서 조사대상 지역의 인구는 수적인 면과 구성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 2. 지역민의 생활문화조사

### 1) 지역의 주민구성

조사대상 지역 내 해당하는 집계구 기준 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2,140명으로 나타난다. 인구 분포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127명으로 5.9%를 나타냈으며,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371명으로 17.3%로 나타난다. 이는 강원도 노령 인구비율과 비슷하다.



집계구 지도(춘천시 제공)

조사대상 지역 내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인구가 1980년 기준 인구의 56% 수준을 보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를 세대별 분석하면 0~10대 220명(10.3%), 20대 603명(28.2%), 30대 247명(11.6%), 40대 256명(13.1%), 50대 298명(13.9%), 60대 141명(11.3%), 70~80대 275명(12.8%)이란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20대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대학을 비롯한 교육 시설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면 조사대상 지역 내의 20대는 주로 학교와 근접 거리에 있는 교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소양동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 이는

소양동 지역에 20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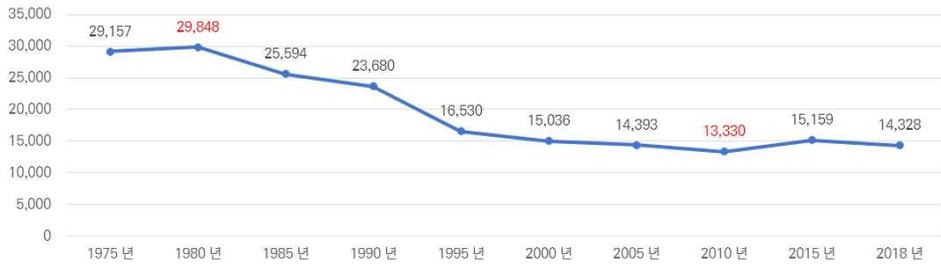
2000년 이후 원룸이 늘어나면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일이 늘어난다. 교동 지역은 20대가 입주할 하지만, 소양동 지역은 다양한 세대가 입주한다. 이러한 인구구성은 마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주민세대별 현황표>

구분	소계	비율	집계구명			
			3201058010003	3201058010004	3201052010002	3201052010007
4세이하	28	1.3%	11	6	6	5
5세이상~9세이하	44	2.1%	10	15	13	6
10세이상~14세이하	55	2.6%	13	22	8	12
15세이상~19세이하	93	4.3%	26	22	24	21
20세이상~24세이하	351	16.4%	142	95	66	48
25세이상~29세이하	252	11.8%	80	48	68	56
30세이상~34세이하	130	6.1%	32	34	31	33
35세이상~39세이하	117	5.5%	29	33	31	24
40세이상~44세이하	117	5.5%	30	33	34	20
45세이상~49세이하	139	6.5%	32	33	34	40
50세이상~54세이하	142	6.6%	23	37	47	35
55세이상~59세이하	156	7.3%	24	55	31	46
60세이상~64세이하	145	6.8%	27	42	42	34
65세이상~69세이하	96	4.5%	21	28	30	17
70세이상~74세이하	108	5.0%	21	25	33	29
75세이상~79세이하	92	4.3%	31	29	15	17
80세이상~84세이하	59	2.8%	8	24	17	10
85세이상~89세이하	16	0.7%	6	10	-	-
90세이상~94세이하	0	0.0%	-	-	-	-
95세이상~99세이하	0	0.0%	0	-	0	-
100세이상	0	0.0%	0	0	0	0
합계	2,140		566	591	530	453

출처 : 춘천시

조사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동인 교동 및 소양동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추세를 분석한 결과 합계 인구수는 1980년 29,848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두 행정동의 인구는 14,328명으로 1980년 인구의 56%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심각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수의 시계열 분석 그래프(춘천시 제공)

이러한 인구유출은 조사대상 지역의 공가나 폐가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유출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입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독 가구나 주말 가구가 늘어나고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분석 결과 조사대상 지역 내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의 비중이 작고 청장년 비율이 높으며, 노년 인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의 비중(5.9%)은 춘천시 평균(12.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5세~65세 미만 청장년 인구의 비중(76.73%)은 춘천시 평균(71.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 인구 비중이 춘천시 평균(13%)에 비해 높은 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근 한림대 등 대학시설로 인한 인구특성으로 판단된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비중(17.34%)은 춘천시 평균(16.22%)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최대 인구수의 56% 수준으로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 유출된 지역이다.

## 2) 가구, 주택 현황

가구는 총 1,270가구로 조사되었다. 해당 가구 중 1인 가구가 799가구로 전체의 63%로 조사되었다.

&lt;가구현황 현황표&gt;

구분	소계	비율	집계구명			
			3201058010003	3201058010004	3201052010002	3201052010007
1세대가구	135	10.6%	27	29	42	37
2세대가구	280	22.0%	48	98	68	66
3세대가구	41	3.2%	11	14	11	5
4세대가구	0	0.0%	0	0	0	0
1인가구	799	62.9%	296	176	167	160
비혈연가구	15	1.2%	8	0	-	7
합계	1,270	100%	390	317	288	275

출처 : 춘천시

가구 분석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63%로 춘천시 전체의 3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인구의 1인 가구 비중과 더불어 청년계층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자취 등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은 총 568호로 조사되었고 총 주택 중 단독주택이 448호로 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t;주택 현황표&gt;

구분	소계	비율	집계구명			
			3201058010003	3201058010004	3201052010002	3201052010007
단독주택	488	78.9%	99	103	119	127
다세대	44	7.7%	18	16	10	0
연립주택	64	11.3%	0	52	12	0
아파트	0	0%	0	0	0	0
영업용 건물 내 주택	0	0%	0	0	0	0
주택이외 거처	12	2.1%	6	6	0	0
합계	568	100%	123	177	141	127

출처 : 춘천시

주택 면적별 유형은 60㎡~85㎡가 137호로 전체의 24.6%에 해당하며

230㎡를 초과하는 주택이 91호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대부분은 시가지화 된 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시가지이며 주로 저층 주거지로 활용 중이다. 2010년대 중심부 및 서측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에 대한 정비에 따라 기존 노후 불량주택이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규모 토지가 2개소 위치하고 있다.

용도지역상 조사대상 지역은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북측의 봉의산과 맞닿은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봉여중고 및 한림대학교로 인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대부분 지정(76%)되어 있고 춘천향교로 인한 문화재보호 구역도 지정(45%)되어 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주거지역은 매입 및 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상지는 중심지의 배후주거지로서 주거 기능 위주의 토지 용도를 보인다. 건축물은 대부분 저층의 노후 건축물이며 접도 여건이 불량하여 자력 개선이 어려운 건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필지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소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따라 확보된 대규모 사유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필지를 매입하여 공공용도로 활용 중인 곳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

## 3)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지역 내 해당하는 집계구 기준 사업체는 총 139개로 조사되었다. 이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54개로 전체의 38.8%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서비스업이 27개, 도매 및 소매업이 23개소로 조사되었다.

&lt;사업체수 현황표&gt;

구분	소계	비율	집계구명			
			3201058010003	3201058010004	3201052010002	3201052010007
농업, 임업및 어업	0	0.0%	0	0	0	0
광업	0	0.0%	0	0	0	0
제조업	7	5%	-	7	0	-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	0.0%	0	0	0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0%	0	0	0	0
건설업	0	0.0%	-	-	0	0
도매 및 소매업	23	16.5%	5	10	-	8
운수업	0	0.0%	0	-	0	0
숙박 및음식점업	54	38.8%	17	24	5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	0.0%	-	-	0	-
금융 및 보험업	6	4.3%	-	6	0	-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0.0%	0	0	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11.5%	-	16	0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	0.0%	0	-	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0%	-	-	-	-
교육 서비스업	0	0.0%	-	0	-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0%	-	-	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	4.3%	-	6	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	19.4%	6	11	0	10
자료없는집계구	0	0.0%	0	0	0	0
합계	139	100%	28	80	5	26

출처 : 춘천시

종사자 수 현황을 보면 대상지 내 해당하는 집계구 기준 사업체 종사자수는 총 4,455명으로 조사되었다. 공공행정서비스 종사자가 3,363명으로 전체의 75%로 나타났으나, 이는 도청과 시청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로 추측되며, 이외 소규모 숙박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및 보험업 등에 종사자가 있다.

&lt;종사자수 현황표&gt;

구분	소계	비율	집계구명			
			3201058010003	3201058010004	3201052010002	3201052010007
농업, 임업및 어업	0	0.0%	0	0	0	0
광업	0	0.0%	0	0	0	0
제조업	37	0.8%	10	17	0	10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	0.0%	0	0	0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0%	0	0	0	0
건설업	11	0.2%	-	11	0	0
도매 및 소매업	53	1.2%	10	21	-	22
운수업	72	1.6%	0	72	0	0
숙박 및음식점업	181	4.1%	93	61	10	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3	3.9%	168	-	0	5
금융 및 보험업	148	3.3%	15	117	0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0.2%	0	-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6	3.1%	23	113	0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0.2%	0	9	0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363	75.5%	1,439	-	27	1,897
교육 서비스업	131	2.9%	-	0	131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	1.1%	28	7	0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0.6%	-	25	0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1	1.4%	19	29	0	13
자료없는집계구	0	0.0%	0	0	0	0
합계	4,455	100%	1,805	482	168	2,000

출처 : 춘천시

이들 사업체 분석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38.8%)이 춘천시 평균(24.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외 사업체 수로 우위를 가지는 업종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5%, 춘천 평균 대비 9.0% 높음)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9.4%, 춘천 평균 대비 7.1% 높음)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공공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행정기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75.5%) 그 이하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1%),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서비스업(3.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사업체 조사 결과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작고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상권의 중심적 기능보다는 주거지역의 배후 지원 상권 및 사업체의 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3. 스토리에 기반한 생활문화자원

#### 1) 문화재

##### (1) 유형 문화재

##### ① 위봉문

구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71.12.16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정문 옆
관리자	춘천시

위봉문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호로 춘천관아 건물인 문소각(聞韶閣)을 신축할 때 내삼문(內三門)으로 함께 건립되었다. 고종 27년인 1890년 춘천관아에 이궁(離宮)이 설치되면서 위봉문은 이궁의 내삼문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문소각 소실과 강원도청사 건립으로 몇 차례 이전되어 있던 것을 2013년 4월 이 자리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명필이었던 송하옹(松下翁) 조운형(曹允亨)이 쓴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으로 내삼문의 전형인 솟을대문 양식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한 단의 장대석(長臺石) 기단을 놓고 앞뒤 8개의 원형 기둥을 사각형의 주춧돌 위에 세웠다.



일제강점기 당시  
(춘천학연구소 제공)



위봉문 전경(주간)



위봉문 전경(야간)

## ② 조양루

구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71.12.16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정문 옆
관리자	춘천시

조양루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춘천관아 건물인 문소각(聞韶閣)을 신축할 때 함께 건립되었다. 고종 27년인 1890년 춘천관아에 이궁(離宮)을 설치할 때 개축(改築)되어 문루(門樓)로 사용되었다.

1938년 우두산으로 이전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일부가 파손되어 1969년 크게 수리하였다. 2013년 4월 이 자리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현판은 1818~1819년 춘천부사로 재임한 조선후기 명필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쓴 해서천자문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복각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누각 아래에 삼문을 낸 전형적인 문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앞뒤 8개의 원형기둥과 양 측면 중앙 원형기둥 2개를 사각형의 긴 주춧돌 위에 세웠다. 뒷면 좌측에 누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두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춘천학연구소 제공)



조양루 전경(주간)



조양루 전경(야간)

## ③ 향교

구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
분류	유적건조물 / 교육문화 / 교육기관 / 향교
수량/면적	1동
지정(등록일)	1985.01.17
소재지	강원 춘천시 삭주로 21 (교동)
관리자	향교재단

춘천향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로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춘천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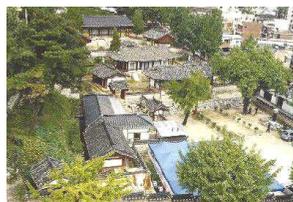
처음 지은 연대는 전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선조 27년(1594)에 다시 지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수리가 있었으며, 한국전쟁으로 불탄 것을 1960년에 복원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과 명륜당·장수루·동재·서재·동무·서무·내삼문 등이다.

대성전은 사당으로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당으로 교화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나라로부터 토지와 책·노비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였다. 갑오개혁(1894) 이후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지금은 제사의 기능만 남아 있다. 『수춘향약』, 『향중좌목』, 『향안』 등 춘천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다.



1950년대 향교  
(지희준, 춘천문화원 제공)



2000년대 향교  
(춘천문화원 제공)



현 향교 전경

## (2) 기념물

## ① 춘천혈거유지

구분	강원도 기념물 제1호
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지 / 주거지
수량/면적	일원
지정(등록일)	1971.12.16
소재지	강원 춘천시 후평1동 산15-10번지
관리자	춘천시

강원도 기념물 제1호로 신석기시대 말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굴 주거지이다. 1962년 성심여자대학교 (현재의 한림대학교)의 신축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봉의산 중턱 동쪽 기슭의 경사면을 이용해 동굴처럼 파서 만든 것으로, 내부바닥은 직경 4m의 원형이고, 천장의 최고 높이는 2.1m이다. 또한, 천장에 연기로 그을린 흔적이 있어 당시 불을 사용하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나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3인의 사람뼈가 발견되었고, 돌도끼, 돌화살촉, 돌끌, 돌방망이, 빗살무늬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약 5,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현장  
(한림대학교 박물관 제공)



입구  
(문화재청 제공)



내부  
(서울춘천고속도로 제공)

## ② 봉의산성

구분	강원도 기념물 제26호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성 / 성곽
수량/면적	일곽
지정(등록일)	1979.05.30
소재지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산1-1번지
관리자	춘천시

봉의산성은 강원도 기념물 제26호로 강원도청의 뒷산인 봉의산 능선에 쌓은 산성으로, 가파른 지형을 이용해서 쌓았다. 원형은 많이 훼손되어 1991년에 105m를 복원하였고, 1993년에 40m를 복원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봉산 산성의 둘레는 2,463척이고 높이는 10척이라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거란족의 침입으로 안찰사 노주한이 이곳에서 전사하였고, 『고려사』에는 몽고족의 4차 침입 때 춘천 주민들이 산성에 들어가 항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임진왜란 때에는 강원도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의 활동지역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격전지였다. 산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란, 몽고와의 전쟁에서 격전지였던 기록을 감안하면 고려 중엽에 쌓은 성으로 추측된다.

봉의산성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원형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춘천지방 사람들에게 항전의 현장이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 성은 지세가 험하여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에는 좋았으나, 식수가 부족하고 크기가 작아 장기간 적의 포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산성 내 등산로  
(춘천시 제공)



산성 외곽  
(문화재청 제공)



봉의산성 안내문  
(문화재청 제공)

## (3) 기타

## ○ 춘천옥천동고분군 (春川玉泉洞古墳群)

구분	선사문화유적
유형	유적
시대	고대-남북국
성격	무덤군
소재지	강원 춘천시 옥천동
건립시기	통일신라시대
관리자	춘천시

봉의산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1974년 매장문화재가 당국에 신고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신고된 유물로서는 다리있는항아리[臺附壺] 1점, 손잡이달린토기[把手附土器] 2점, 뚜껑덮인토기[有蓋土器] 2점, 목짧은단지[短頸壺] 1점, 토제그릇[土製碗] 5점, 뚜껑있는고배[有蓋高杯] 13점 등이다. 그 뒤 이 유적은 1984년 12월 9일에 한림대학교에서 물 저장을 위한 지하저수관을 설치하다 유구(遺構)가 확인됨으로써 긴급히 수습조사를 실시하여 파괴된 5기의 석곽묘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때 조사된 석곽묘의 구조는 할석으로 벽을 쌓아 만든 수혈식석곽(竪穴式石槨)으로, 장방형 또는 방형의 비교적 작은 규모인 것으로 보아 한 사람씩 무덤을 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조사시 수습된 유물은 목긴 다리달린 작은항아리[臺附長頸壺], 뚜껑있는고배[有蓋高杯], 쇠뿔잡이달린그릇[牛角形把手附鉢], 토기잔(土器盞), 토기병(土器瓶)과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질이 약한 적색연질호형토기(赤色軟質壺形土器) 등 모두 20여 점이였다.



발굴 당시 현장  
(한림대학교 박물관 제공)



발굴 당시 유물  
(한림대학교 박물관 제공)

## 2) 제례 및 민속

### (1) 춘천충의제

1253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춘천부민 수천 명이 희생된 제5차 몽골항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춘천의병전투와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춘천향교 주관 제례이다.

춘천충의제는 봉의산 입구에 세워진 순의비에서 거행한다. 춘천충의제는 춘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소양강문화제를 앞두고 문화제의 개막을 선열들에게 알리는 제례다. 봉의산순의비에서 춘천충의제를 지내고 나면 강원도청 앞 광장부터 시작해 시내 주요교차로에서 농악대 길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2013년까지 ‘봉의산항몽제’로 지냈다가 2014년에 ‘춘천봉의산충의제’로, 그리고 2015년부터 ‘춘천충의제’로 지내고 있다.



2016 춘천충의제(강원도민일보 제공)



2017 춘천충의제(강원일보 제공)



2018 춘천충의제(강원도민일보 제공)



2019 춘천충의제(유교신문 제공)

## ○ 춘천충의제 관련 인물

- 이소응(李昭應, 1852년 ~ 1930년)<sup>3)</sup>

습재 이소응  
(국가보훈처 제공)

조선 후기의 유생·의병장이다. 본관은 전주, 휘는 소응(昭應), 자는 경기(敬器), 호는 습재(習齋) 또는 사정거사(思靖居士), 이명(異名)은 직신(直愼)이다. 제14대 선조의 9남 경창군 이주의 9대손이며, 이우영(李惟英)의 증손이며, 이연(李淵)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문포공(文浦公) 이도재(李道栽)이며, 어머니는 고령 신씨(高靈申氏)이다.

이소응은 1852년 음력 8월 7일 춘천부 남산 외이작면에서 탄생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져 전국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나자, 1896년 1월 춘천부에 집결한 지방 유생 유중락(柳重洛)·이만응(李晚應) 등과 농민 1,000여 명에 의해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의병대장으로 출전하기 전 '봉의산 거의소천제'를 지냈다.

그는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대의 아래 일본을 오랑캐 왜노(倭奴)로 규정하는 등 의병의 명분을 뚜렷이 하는 한편, 전국에 격문을 보내 함께 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때 정부에서 춘천부 관찰사 겸 선유사(宣諭使)로 개화파 관료인 조인승(曹寅承)을 임명하여 파견하자 그를 친일파라 하여 참형(斬刑)하였다. 이어 남한산성의 경기의병과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관군의 공세로 전력이 약화되자 지평군수 맹영재(孟英在)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제천 유인석(柳麟錫) 의진에 들어가 활동하다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춘천 의진은 종형제 이진응(李晉應)과 이경응(李景應)이 지휘하였다.

1930년 음력 3월 25일 향년 79세로 별세하였다. 저서로는 춘천의 의병운동과 유인석 의진의 활동상황을 기록한 《습재연보》, 《습재선생문집》 등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3)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석오석(石五錫, 미상 ~ 1907년)<sup>4)</sup>

강원도 춘천(春川) 서면 사람이다. 의병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석오석은 이같은 시기에 정기공(鄭基公)과 같이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강원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일본군 춘천수비대에 피체되어 1907년 11월 28일 강원도 춘천군 봉의산(鳳儀山)에서 정기공과 함께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정기공(鄭基公, 미상 ~ 1907년)<sup>5)</sup>

강원도 춘천(春川) 서하면 사람이다. 의병으로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분격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무너지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정기공은 같은 시기인 1907년 일본군을 축출할 목적을 가지고 석오석(石五錫) 등과 함께 강원도 춘천에서 의병에 가담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같은 군 봉의산(鳳儀山)에서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4) 참고자료 :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8집

5) 참고자료 :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8집

## (2) 봉의산 축성놀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1486년(성종 17)에 완성된 인문지리서이다. 권1~2는 경도(京都), 권3은 한성(漢城), 권4~5는 개성(開城), 권6~13은 경기도, 권14~20은 충청도, 권21~32는 경상도, 권33~40은 전라도, 권41~43은 황해도, 권44~47은 강원도, 권48~50은 함경도, 권51~55는 평안도의 인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머리에 그 도의 전도(全圖)를 싣고 이어 연혁(沿革), 풍속(風俗), 묘사(廟社), 능침(陵寢), 궁궐, 관부(官府), 학교, 토산(土產), 효자, 열녀, 성곽, 산천, 누정(樓亭), 사사(寺社), 역원(驛院), 교량, 명현(名賢)의 사적, 시인의 산천이나 누정 등을 대상으로 주변의 풍광과 이를 보는 감흥을 읊은 시가(詩歌)인 제영(題詠) 등을 실었다. 이중 풍속 편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속놀이를 확인할 수 있다.

봉의산 축성놀이는 지금부터 700 ~ 800여 년 전 글안족과 몽고군이 침략할 무렵에 이 고장을 지키려고 산성을 쌓을 때 행하던 놀이를 재현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봉의산성의 둘레는 2,463척, 높이는 열 척이라고 한다.

봉의산 축성놀이는 전체 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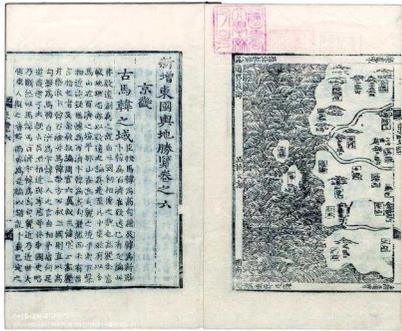
제1과장은 행진 시작(입성)으로 두 편으로 갈라영기(令旗)를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한다. 농악대가 앞서 행진하면서 흥을 돋운다. 일꾼 차림에 짚신을 싣고 머리에 수건을 맨 일행 50명 정도(각 25명)가 삽, 팽이, 망치, 도끼, 낫, 지게, 목도 등의 장비를 메고 <춘천아리랑타령>을 부르면서 입성한다.

제2과장은 작업 진행(축성)으로 농악을 울려 축성 작업 시작을 알리고 작업의 흥을 돋운다. 1조·2조 등으로 조를 나누고 돌 파내기, 목도질하기, 돌 쌓기 등으로 구분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 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참돌리기(담배 피우기), 춤 자랑 등 여흥을 곁들인다.

제3과장은 작업 완료(봉화)로 성 쌓기를 먼저 끝낸 편에서 환호를 하면서 봉화를 올린다. 진 편에서는 이긴 편이 봉화를 올리고 있는 동안 성 쌓기 마무리 작업을 한다. 성을 모두 쌓게 되면 이긴 편이 대장이 성 위에 올라가서 성을 완전히 쌓았음을 선언한다.

제4과장은 한마당놀이(산신제)로 미리 장만하여 차려놓은 제물로 산신제를 올린다. 성을 튼튼하게 쌓는데 부상자도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이 고장에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sup>6)</sup>

6) 참고자료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강원도의전통민속예술(강원도, 2005)



『동국여지승람』

봉의산 축성놀이 재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제공)

### 3) 교육기관

#### (1) 춘천공립농업학교(현 소양고등학교)

1910년 4월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사립측량학교(私立測量學校)를 가교사로 빌려 강원도 지역 최초의 공립중등학교인 1년제 춘천공립실업학교로 개교하였다. 같은 해 11월 수업 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춘천공립농업학교로 개칭하였으며, 초대 교장에는 강원도 관찰사 이규완(李圭完)이 겸임하였다. 개교 당시 입학생은 27명이었고, 사립측량학교를 빌려 교사로 사용하다가 곧 춘천향교의 명륜당(明倫堂)으로 이전하였다.

1912년 3월 제1회 졸업생 18명을 배출하였고, 1913년 춘천 교동에 있는 현재의 춘천여자고등학교 자리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20년 3년제 농잠과를 설치하였다가 1926년 수업연한 5년의 농잠과와 농림과로 개편하였고, 1930년 4월 춘천 약사리(지금의 춘천시 약사동)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38년에 농림과를 폐지하고 임업과와 수의축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춘천시 사농동 현재의 위치에 18만 9045㎡(5만 7186평)의 교지를 매입하여 1939년 4월 교사를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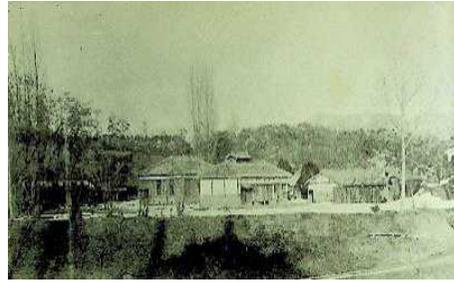
해방 후 교장에 장영철(張永哲)이 취임하였고, 1946년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으며, 신학제에 따라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1947년 강원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농업과·임업과·축산과를 설치하였다. 1948년에는 독립 춘천농업대학부속농업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한국전쟁으로 교사를 잃어 옥천동 임시막사에서 지내다가 향교 임시교사로 이전하였고 다시 교동(현 교동초등학교)으로 전전하였다. 1951년 춘천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5년 교동(현 교동초등학교)에 정식으로 교사를 짓고 1958년 사농동으로 다시 이전하기까지 수업을 진행하였다.

1991년 춘천농공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95년 항일학생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고, 2010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시실을 갖춘 맥교육역사관을 건립하고, 강원교육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100주년 기념석을 세웠다. 2014년 소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sup>7)</sup>



1910년 춘천공립실업학교  
(소양고등학교 제공)



1914년 춘천공립농업학교  
(소양고등학교 제공)



1930년대 약사리 교사  
(국립춘천박물관 제공)



현 소양고등학교

○ 목백합에 관련된 진주농고(진주실업학교)와 춘천농고(춘천실업학교)의 연관성

진주실업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춘천농립학교(현 소양고등학교)는 동시에 개교한 학교이다. 1909년 4월에 「실업학교령」이 공포되어 신학제에 의한 실업교육이 마련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칙령 반포로 1910년 4월 29일 ‘공립 춘천실업학교’로 문을 열었다.

같은 해에 인천실업학교, 부산실업학교, 대구농립학교, 전주농립학교, 진주실업학교, 광주농립학교, 군산실업학교, 정주실업학교, 제주농립학교, 평양

7)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농업학교, 함흥농업학교가 개교한다.<sup>8)</sup>

이들 학교는 서로 교류하는 일이 많았고, 순회하며 학교장 회의를 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기념이 되는 나무를 교환하기도 했다. 진주농고는 춘천농고에게 목백합을 선물했고 이를 마당에 심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 (2) 성심여자대학교(현 한림대학교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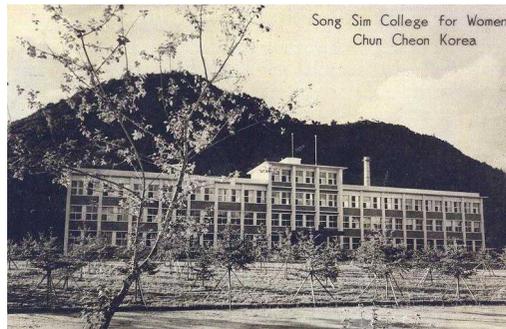
1957년 성심수녀회는 재단법인 성심학원을 세우고 1964년 1월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에 성심여자대학을 개교하고, 초대 학장으로 바바라 니콜스 수녀가 취임하였다. 국어국문학과, 외국어외국문학과, 사회사업학과, 화학과, 가정학과, 음악과 등 6개 학과 140명의 학생을 인가받았으나, 절대평가제로 입학가부를 결정했던 당시의 입학규정에 따라 97명만 입학하였다.

1967년에는 외국어외국문학과가 영어영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었다. 1974년 경기도 부천시 역곡에 부천분교를 설립하여 3~4학년을 부천분교에서 수업 받게 하였다.

1982년 춘천 본교를 폐쇄하고 부천분교로 통폐합하였으며, 춘천 본교 터는 성심자선병원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받아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현재의 한림대학교이다. 1964년에 세워진 성심여대 본부 건물은 현재도 한림대학교의 공학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1992년 성심여자대학교로 승격되어 종합대학이 되었으나,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성심수녀회에서 1994년 11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무상으로 넘겼다. 의과대학과 신학대학만 가지고 있어서 성장에 한계를 느끼던 가톨릭대학교는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을 선언, 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하여 종합대학교인 가톨릭대학교로 출범하였다.<sup>9)</sup>

피천득 수필가가 성심여대에 출강하기도 했다.



성심여자대학 시절의 교사(가톨릭대학교 제공)

8) 참고자료 : 『朝鮮教育史考』(高橋濱吉, 1927)

9) 참조: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catholic.ac.kr>

### (3) 한림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교이다. 1982년 1월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이 설립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학교명 '한림'은 '빼어난 인재들의 숲'이라는 의미다.

2000년대 이전에는 학교 규모가 작았다. 강원중학교를 매입하고 도서관, 사회대 건물, 국제관 등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형적으로 그럭저럭 제대로된 종합대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현재의 한림대학교 부지에는 원래 가톨릭 계열의 미션스쿨인 성심여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성심여대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성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성심수녀회가 한국에 설립한 대학이었으나, 1974년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분교를 설립한 후 결국 춘천캠퍼스를 완전히 부천으로 이전하게 되어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성심여대 학장이던 김재순 수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윤덕선 박사에게 부지 인수를 제의하였다. 마침 자신이 세운 필동병원(舊 필동성심병원)을 중앙대학교에 넘겨주고 성심병원(現 한강성심병원)을 설립한 윤덕선 박사는 의대 설치가 가능하면 인수하겠다는 뜻을 비치었다. 결국 의과대학 신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윤덕선 박사는 이를 인수하여 학교법인 일송학원을 설립하였다.

성심대학(聖心大學)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동일한 이름인 성심여대가 있기에 성심대학은 문교부에 의해 반려되었고, 결국 한림대학교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다.



1980년대 당시 전경  
(한림대학교 제공)



현 한림대학교 전경  
(한림대학교 제공)



현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4) 유봉여자중·고등학교

춘천에 소재한 사립 여자학교로 1970년 1월 3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운영 주체는 '학교법인 유봉학원'이다. 지번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교동 93-37이고 도로명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봉의산길22번길 28이다.

학교가 봉의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본관에서 춘천시 전경을 볼 수 있다. 정문은 한림대학교 서문(구정문)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후문은 옛 춘천시의회와 가깝게 위치한다. 같은 유봉학원인 유봉여자중학교와 같이 위치하며, 운동장과 체육관을 같이 쓴다.

춘천시의회가 자리를 옮기고 구 시의회 자리에 한림대 건물이 들어서며 유봉여고도 새로 벽을 세우고 등굣길 공사를 시작했다. 2019년 등굣길 공사가 끝났으며 본관 뒤 공터에 새로운 급식실 공사를 시작했다.

교화는 장미이다. 장미는 '애정', '사랑의 사자(使者)', '행복한 사랑'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으로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는 유봉인의 정신을 나타낸다. 교목은 향나무로 영원한 향기, 늘 푸른 기상을 상징한다. 수명이 길고 향기로운 향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라며 변하지 않는 푸르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유봉인의 기질을 나타낸다.

영화 <와니와 준하>의 촬영지이며 드라마 <러브홀릭>과 드라마 <사랑하는 은동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유봉여자중·고등학교 전경



러브홀릭(2005)



사랑하는 은동아(2015)

## (5) 강원고등학교

1959년에 개교한 춘천의 사립 일반계 남자고등학교이다. 강원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2014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 현 한림대학교 위치에 강원중학교가 있었고, 옛 춘천시의회 자리에 강원고등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모두 춘천시 동면에 있다.

1957년 재단법인 보인원(고아원) 설립 인가 후, 1959년 4월 10일 개교하였다. 1960년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1968년 강원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78년 10월 30일 학칙 변경 후, 강원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94년 8월 18일 동면 신축교사로 이전하였다.

학교 축제는 봉암 축제이며. 진행되는 대회는 주로 '봉암 리더십 대회'라고 불린다. 봉암 리더십 대회는 농구, 스피치, 토론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십 대회의 결승전은 한 날에 몰아서 한다.

교문의 오르막을 다 오를 경우 학교 본 건물보다 더 먼저 볼수 있는 건물이 봉암아트홀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이곳에서 하며 영어 스피치 대회나 토론대회 결승 그리고 학교 축제인 봉암제의 몇몇 학급의 행사들도 이곳에서 할 때가 있다.

교가에 봉의산이 들어있는 것과 초대 이사장의 호가 봉암(鳳庵)인 것은 봉의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970년대 강원고등학교  
(영화 청춘공화국)



2000년대 춘천시의회  
(춘천문화원 제공)



현 한림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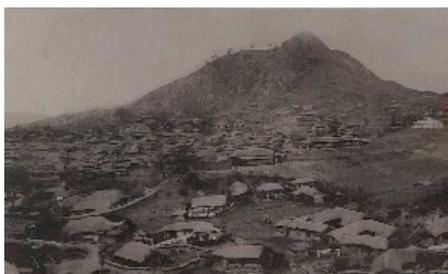
## 4) 언론기관

## (1) KBS춘천방송총국(KBS春川放送總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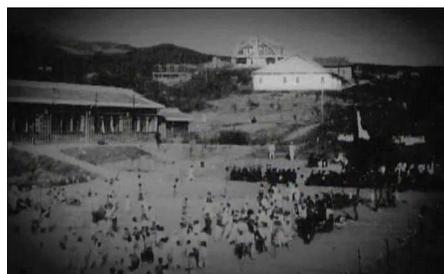
현재 강원도 영서 북부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총국은 강원지역 KBS를 총괄하고 있다. KBS춘천방송총국은 1944년 12월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 춘천방송국으로 창설되었다. 장소는 당시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 106번지에 있는 붉은 벽돌로 된 2층 양옥 건물이었다. 44계단을 올라가는 고지대여서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은 1943년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비었던 선교사 사택이었다. 그러나 1945년 10월 22일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방송이 중단되었고, 해방 후 추방되었던 선교사들이 들어와 건물 양도를 요구하여 내어주어야 했다. 1946년 2월 7일 서둘러 춘천시 조양동 105번지에 있는 적산가옥을 강원도로부터 대여받아 두 번째 청사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방송이 중단되었다가 1953년 9월 단신으로 돌아온 문돈식 국장이 춘천여고 뒤 타다 남은 경찰국장 관사 한쪽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그 후 1955년 판잣집 가건물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계속했다.

드디어 1958년 4월 춘천시 옥천동 116번지(현 춘천시청 자리)에 대지를 마련하고 자체 시설을 확보하여 1958년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하게 되었다. 1978년 10월 춘천시 낙원동 86-1에 춘천방송국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가 2009년 12월 18일 퇴계동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1944년 첫 번째 청사, 대화정 106번지  
선교사 사택(춘천KBS 제공)



1946년 두 번째 청사, 조양동 106번지  
적산가옥(춘천KBS 제공)



1958년 여섯 번째 청사, 옥천동  
116번지(춘천KBS 제공)



2009년 이후 퇴계동 신사옥

## (2) 강원일보

강원일보는 조사대상 지역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바로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해방 후 방송국과 더불어 지역 언론을 이끌어오면서 조사대상 지역의 생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강원일보는 1945년 10월 24일 8절 양면 등사판 신문 <팽오통신>으로 창간해 11월 27일 제27호부터 <강원일보>로 제호를 변경하고 재출발하였다. 발행인 겸 편집인은 남궁태였으며, 편집국장도 겸임하였다. 편집방향을 민족정화운동과 향토문화창달 및 민주독립국가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초기 사옥은 춘천시 중앙동에 두었다.

처음에는 동인제로 운영하다가 1947년 12월부터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독립운동가 김우중을 초대 사장직에 앉혔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휴간되었다가 1952년에 원주시 개운동에 사옥을 두며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복간했고, 1954년부터 중앙동으로 복귀해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바꾸었다. 1957년부터 지방지 특성화를 꾀함으로써 편집방향을 100% 지역성에 두었으며, 1958년부터 지방지 최초로 <강원연감>을 발행하였다. 1962년 10월부터 4면으로 증면을 시작하여 1966년에는 지역신문으로써 유일하게 베트남 전쟁에 취재진을 특파한 바 있었으며, 1969년 4월 일요 8면을 늘린 뒤 9월에는 수요일 8면을 증면했고, 1970년 3월에 주 36면, 1977년 10월에는 주 48면까지 각각 단행했다.

1991년 3월 1일부터 종전의 활판인쇄를 버리고 전 지면을 CTS 시스템으로 탈바꿈해 1993년 2월부터 매일 20면으로 증면했고, 1996년 7월 4일부터 PC통신 유니텔을 통해 전자신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1998년 4월 27일부터 도내 언론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0월 24일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증축한 1970년대 사옥  
(강원일보 제공)



현 강원일보 사옥

## 5) 문화예술

## (1) 문학

## ① 구혜영(具曄瑛, 1931년 ~ 2006년)



여류소설가로서 강원도(江原道) 춘천시(春川市) 약사동(藥司洞) 출생했다. 서울로 이사해 서울대 사대부중을 졸업하고, 1950년 서울대 미술대학에 입학했으나 1952년 숙명여자대학교 국문과로 전학, 1955년 졸업하였다.

1955년 [사상계] 신인문학상에 단편 <안개는 걷히고>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한국일보 기자, 숙명여대 전임강사 등 역임하였다.

한국여류문학인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위원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소설가협회 대표위원, 한국소설가협회 운영위원장 등 역임. 한국펜문학상(1987), 한국소설문학상(1987), 월탄문학상(1995),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95), 제12회 예총예술문화상(1998), 제6회 숙명문학상(2000) 등을 수상했다.

인간에 내재한 사랑의 욕구와 질곡(桎梏) 속에 갇힌 인간 정신의 해방, 그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한국전쟁이 가라앉고 서울 수복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전후문학에 가장 먼저 뛰어든 여류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수많은 작품을 저술했으면서도 여류작가가 흔히 남녀의 애정 문제를 다룰 때 빠지기 쉬운 값싼 감상주의의 자취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여유와 인격적인 안목을 지닌 작가로 평가된다.

그의 작품은 인간에 내재한 사랑의 욕구와 질곡 속에 갇힌 인간 정신의 해방,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남녀의 애정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나치게 개방적이지도 않으면서 또한 고루한 보수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남녀의 애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로서의 사랑이며, 자유로운 인간성에 어긋나는 모든 굴레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혜영의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이다.

【작품】 <안개는 걷히고>(사상계.1955.7) <암초>(1960) <바람 일렁이는> <상록(常綠)의 지층(地層)>(사상계.1956.6) <봄은 조롱(鳥籠)처럼>(문학예술.1956.6) <집착시키는 것들>(1958) <전신(轉身)>(자유문학.1958.2) <마녀(魔女)의 회상>(1958) <유실(流失)의 계절>(자유문학.1958.10) <암초(暗礁)>(사상

계.1959.9) 〈백주의 고독〉(자유문학.1959.7) 〈계층(階層)〉(자유문학.1960.6)  
 〈메기의 추억〉(사상계 증간호.1961) 〈매궁(魅弓)〉(1962) 〈토끼띠의 여인(女人)〉(문학춘추.1964.7) 〈여름의 마지막 날〉(문학춘추.1964.10) 〈음악회〉(청파문학.1965.5) 〈어떤 평일(平日)〉(사상계.1967.6) 〈풀섬 속에서〉(1967) 〈은 빛깔의 작은 새〉(사상계.1968.6) 〈소희(少姬)〉(여류문학.1968.11) 〈초가을〉(1969) 〈명희(明姬)〉(사상계.1969.8) 〈안개의 초상(肖像)〉(삼성출판사.1972) 〈진아의 연인(戀人)〉(창원사.1974) 〈칸나의 뜰〉(창원사.1974) 〈언덕에 부는 바람〉(1977) 〈상아(象牙)의 꿈〉(서음출판사.1977) 〈오월제〉(태창출판사.1978) 〈불타는 신록(新綠)〉(어문각.1979) 〈불뱀의 집〉(자유문학사.1980) 〈혼자 가는 아이〉(여학생사.1980) 〈바람의 오는 사람〉(지인사.1980) 〈유라의 밀실〉(행림출판.1982) 〈초여름의 나팔소리〉(여학생사.1983) 〈광상곡(狂想曲)〉(문예출판사.1986) 〈고래의 노래〉(한벗.1989) 〈해바라기 소녀들〉(성바오로출판사.1991) 〈언덕에 부는 바람〉(성바오로출판사.1991) 〈오월의 축제〉(햇빛출판사.1992) 〈해바라기 소녀들〉(성바오로출판사.1992) 〈악사의 아이들〉(열린.1997) 〈빨간 새 파란 새〉(금성출판사.1995) 〈새의 결혼식〉(금성출판사.1995) 〈엄지꼬마〉(금성출판사.1995)

【창작집】 〈안개의 초상〉(삼성출판사.1973) 〈칸나의 뜰〉(창원사.1974) 〈은 빛깔의 작은 새〉(창원사.1975) 〈언덕에 부는 바람〉(성바오로출판사.1977) 〈요가를 하는 여자〉(일신서적공사.1979) 〈유라의 밀실〉(행림출판사.1982) 〈편지 적는 여자〉(예원문화사.1991) 〈해결되지 않는 불꽃〉(지혜네.1996)

【번역서】 〈보리수 피리〉(네메세기.성바오로출판사.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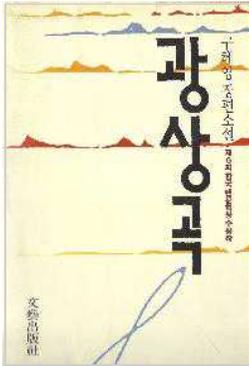
【수필집】 〈진아의 편지〉(창원사.1974) 〈젊은 벗과의 대화〉(법문사.1976) 〈해바라기 소녀들〉(성바오로출판사.1977) 〈사랑과 고뇌의 편지〉(대중출판사.1978) 〈세월의 강물소리〉(유아개발사.1979) 〈사랑의 세미나〉(범우사.1986) 〈어여쁨을 위하여〉(학원사.1986) 〈풀잎편지〉(제삼기획.1987) 〈해바라기 같은 그대〉(해문출판사.1988) 〈사랑 만들기〉(햇빛.1989) 〈사랑을 아느냐고 내게 물으면〉(신원문화사.1990)



장르	소설
제목	불타는 신록(광시곡)
작가	구혜영
발표년도	1971년 <여학생> 연재
배경지	유봉여자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 옛 춘광병원, 의암호

### 내용발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진 부드럽고 연하고, 눈물겨운 마음씨의 아름다움이 남성을 능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아름다운 마음씨를 잃은 소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인간사회를 위해서는 희망과 광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독버섯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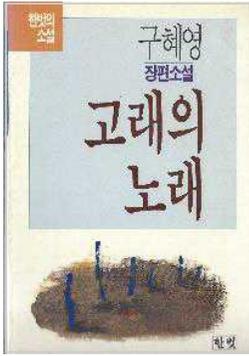


장르	소설
제목	고원의 노래(광상곡)
작가	구혜영
발표년도	1984년 강원일보 연재
배경지	봉의동, 세종호텔, 봉의산

### 내용발췌

그런 와중에 나는 거리로 질주해 가는 지프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어떤 눈과 일순 마주쳤다. 나는 그 지프 속의 눈과 마주쳤을뿐더러 이쪽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보았다. (중략) 나는 그 눈과 손가락질 하는 장본인의 얼굴까지 보았다. 규희....였다고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믿고 있다. (중략) 우리 눈앞을 스쳐, 지척에 있는 로터리를 돌아 맞은편 가로수 밑에 급정거한 지프에서 건장한 군인 두 명이 내렸다.

나는 온몸의 피부가 소리 없이 바싹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하필이면 남편이 그 시절의 언니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을 가리키는 것일까. 언니네는 줄곧 셋집으로 전전하던 신세였으니. “봉의동 집 시절 말인가요?” 나는 제발 그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빌면서, 다급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 역시 당신은 철저한 자명 씨 팬이로군. 봉의동 집을 다 아는 걸 보니.” 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끝내 태평스레 말했다. 아, 봉의동 집. 그 집의 추억은 나의 그 시절의 고독과 분노와 부끄러움을 대변한다. 그 집이야말로 그 시절의 나를 가 시나무 회초리로 깡마리게 만든 근원이었다. 그 속에는 나의 치부가 감춰져 있었다.



장르	소설
제목	고래의 노래
작가	구혜영
발표년도	1989년
배경지	요선동, 한림대학교(옛 성심여자대학)

### 내용발췌

오늘은 드디어 춘천으로 가는 날이다.  
 그새 줄곧 버리기만 하고 여태 떠나지 못한 춘천행이다.  
 그곳 H대학 명예교수인 현관우 박사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서울에서 평생을 바친 대학을 정년퇴직하자 곧바로 H대학으로 초빙된 그는 아예 뿌리박힌 서울 살림을 몽땅 이끌고 춘천으로 내려가 새로 나가 된 학교 근처 아파트에 눌러앉았다고 한다.  
 그 후 서울과는 영영 등진 듯 얼씬거리지도 않는다는 소문은 그렇다치더라도 서울서 전화까지 기피할 건 뭔가.  
 신입의 눈앞에 준기와 사랑하던 시절의 춘천이 떠오른다.  
 난생 처음 처녀의 옷을 벗게 한 도시.  
 춘천이란 이상한 곳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나에게 딱히 고향이란 데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경춘가도만 달리기 시작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되는 것일까. (중략)  
 버스가 의암댐 진입로로 접어들 무렵에는 두어 시간 전의 그로기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 단단하고 깨끗해진 자신이 만족스럽다.

## ② 피천득 (皮千得, 1910년 ~ 2007년)



호는 금아(琴兒)이다. 서울 출생으로 상해 호강대학교 (University of Shanghai)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중앙산업학원 교사로 근무하였고 광복 이후에는 경성대학 예과교수를 거쳐 1974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했

다. 1954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하였으며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주임교수를 지냈다. 2007년 5월 25일 작고하였다.<sup>10)</sup>

1930년 『신동아』에 시 「서정소곡」을 발표하고 뒤이어 「소곡」(1931), 「가신 님」(1932) 등을 발표하여 시인으로서 기반을 굳혔다. 수필 「눈보라치는 밤의 추억」(1933), 「나의 파일」(1934) 등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영미시(英美詩)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서정시집』(1947)과 『금아시문선』(1959)을 간행하는 한편 문집으로 『산호와 진주』(1969)를 간행하여 투명한 서정으로 일관한 작품세계를 보였다. 일체의 사상이나 관념을 배제한 순수한 서정을 기반으로 시정(詩情)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조와 생활을 노래하였다. 특히 『산호와 진주』에 실려 있는 그리움을 꿈으로 승화시킨 「꿈」이나 「편지」, 소박하면서도 전통적인 삶의 서정으로 노래한 「사랑」 및 순수한 동심과 자연을 기조로 한 작품이 상당수 실려 있다.

1976년에는 수필집 『수필』과 번역 시집으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을 간행하였다. 특히 『수필』은 수필 형식으로 쓴 수필론으로, 은유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수필의 본질과 특질을 잘 나타낸 그의 대표작이다. 「은전한 님」, 「눈보라 치는 밤의 추억」, 「기다리는 편지」 등의 수필에서는 생활에 얽힌 서정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그의 다정다감한 세계관을 주관적인 명상으로 수필화시키고 있다.

1980년에는 『금아문선(琴兒文選)』과 『금아시선(琴兒詩選)』을 출판하였으며, 1993년에는 시집 『생명』, 『삶의 노래』를 펼쳐 내었다.

10) 자료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권영민)

1996년 수필집 『인연』을 출간했는데 표제작인 「인연」은 각종 국정교과서에 실리는 등 독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아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피천득은 「엄마」, 「유순이」, 「아사코」, 「서영이」, 「구원의 여상」 등의 작품에서 특히 여성들을 찬미하고 그리워하며 연민의 정을 행간에 아름답게 풀어놓고 있다.

『수필』에서 수필문학의 본질을 ‘마음의 산책’, ‘독백’,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형식’으로 규정짓고 있어 수필의 문학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피천득의 수필은 간결한 문체로 명징한 사색을 펼쳐 놓음으로써 하나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세계를 영롱한 언어로 적어놓은 그의 수필은 운문을 읽는 것처럼 경쾌하며 독특한 글쓰기의 전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현대수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르	수필
제목	인연
작가	피천득
발표년도	1973년
배경지	요선동, 한림대학교(옛 성심여자대학)

### 내용발췌

지난 사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중략)

성심(聖心)여학원 소학교 일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카톨릭 교육 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 주었다. (중략)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이십여 년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곁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십 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중략)

그리워하는 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 ③ 이무상 (李武相, 1940년 ~ )



시인. 춘천시 서면 현암리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이전 교동 산75번지에 거주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교동 86-7번지에서 생활했다. 향교 근처의 교동 93-40번지에 살면서 주요 작품 활동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교동에서 생활했다. 선친이신 백웅(白熊) 이원직(李源直)께서 평생 춘천향교에 몸담고 계시면서 춘천의 한시 모임인 <소양음사(昭陽吟社)><sup>11)</sup>와 한국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모임인 <칠칠회

(七七會)><sup>12)</sup>를 이끌어오신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75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당선으로 등단하였고 1980년 『현대문학』으로 추천받았다.

1979~1989년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감사, 이사 및 부지회장 역임했으며, 1993년 한국문협 춘천지부장, 2001년 한국문협 강원도지회장을 역임했다. 1983년 제2회 강원문학상을 수상했고, 1984년 제26회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했다. 2009년 제2회 한국문학 백년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3년 첫 시집 《사초하던 날》, 1986년 《어느 하늘별을 닮으면》, 2000년 《향교골 시첩》, 2007년 《봉의산 구름》, 2007년 《봉의산 구름》, 2009년 《끝나지 않는 여름》, 2019년 《하늘의 로또》 등 7권의 시집과 춘천의 지명유래를 통해 역사를 찾아가는 《우리의 소슬피를 찾아서》(2007년), 6.25 서사집 《끝나지 않는 여름》(2009년), 고회문집 《나무로 서서》(2009년), 《소나무골 이야기》(2017년) 등의 저서를 냈다.

11) <소양음사>가 처음 발족된 것은 1946년 6월이다. 일본인이 떠나고 시골에 거주하던 선비들이 읍내로 이주할 때, 홍종대 분이 소양로2가 사창고개 <사창약방>을 개업하면서 그곳에 선비들의 만남 장소가 되어 뜻을 같이한 분들이 모여 시모임을 결성하였다.

12)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춘천의 유지들이 재건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965년 7월 7일 옥천동 옥천여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열었다.

• 신문기사<sup>13)</sup>

흠뻑 땀이 배도록 뛰고 싶은  
 정갈한 피 한 방울 되고 싶은 땅  
 만나는 이마다 사랑하고  
 만나는 이마다 이야기하고  
 내 것이 열 개라면  
 여섯은 남을 주며  
 바보스럽게, 바보스럽게 살아 왔으며  
 깨끗한 모래보다  
 진흙덩이로 남고 싶은 땅  
 그저  
 사람이 되고 싶은 땅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땅에서〉

유난히 따듯한 겨울, 얼음이 얼지 않아 겨울 축제가 위기다. 두꺼운 옷을 파는 이들의 주름살도 깊어간다. 시인이면서도 춘천의 역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이무상 시인을 만나기 위해 풍물시장 북산집으로 갔다. 워낙 술을 좋아하는 시인이다. 시인은 1975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1983년 첫 시집 《사초하던 날》, 1986년 《어느 하늘별을 닮으면》, 2000년 《향교골 시첩》 등 4권의 시집과 춘천의 지명유래를 통해 역사를 찾아가는 《우리의 소슬뒀을 찾아서》(2007년) 등 5권의 저서를 냈다.

### 오미나루를 계기로 지명을 통한 역사 찾기 시작

시인은 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부분적 견해만으로 자기주장을 펼친다는 말로 맘에 담겨 있던 이야기를 꺼낸다. 서면 신매리에 선산이 있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오미나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다가 오미나루가 '외피(孤山)'라는 걸 알게 됐다. 그걸 계기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는 지명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으

13) 자료참고 :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6545>

로 춘천의 지명을 통한 역사 찾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의 소슬피를 찾아서》에서 시인은 지명을 통해 춘천의 역사는 물론 맥국에 대해서까지 통찰하고 있다. 춘천지역 사학자들이 문헌에만 매달려 지명을 통한 역사 이전의 역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편향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인이 태어나 자란 춘천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해 긴 역사 여행을 했지만 천성은 시인이다. 오랜 시간 역사에 빠져 살면서 이제는 뭔가 보이려고 하는데 나이를 먹어버렸다며 아쉬워한다.

### 춘천을 닮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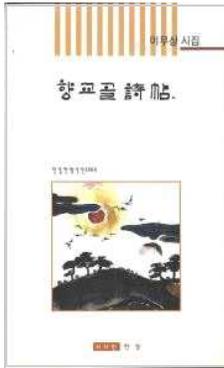
어떤 평론가는 시인에 대해 봉의산 아래에서 태어나 팔순을 넘기도록 한평생을 봉의산 주변만 맴돈 시인이라고 했다. 시인의 시는 <봉의산연가>, <대룡산>, <의암호에서>, <이땅에서> 등 춘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시인의 시가 춘천을 그대로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고향을 그려내는 시어(詩語)들의 연륜이 그만큼 쌓였다는 말일게다.

송년 인사를 부탁했다.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고집 세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면, 앉아 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춘천의 역사를 잘 정리해 달라며 <이땅에서>라는 시 낭송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글 오동철 시민기자 / 사진 김남덕 시민기자



인터뷰 당시 향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무상 시인



장르	시
제목	향교골 시첩
작가	이무상
발표년도	2000년
배경지	향교

### 내용발췌

#### 향교골 집

시계바늘 처럼  
돌아도  
싫증나지 않는 향교골 내집엔  
대문이 없어도 새가 와서 운다

초인종이 없는 담밑  
행인도 짓고, 주인도 짓는  
멍텅구리 개 한 마리 있고

한 나절 햇살이 반쯤 쉬어가는 집엔  
한여름 요염한 칸나가  
가을엔 새침한 국화가  
피어서 지고,  
대문이 없어 도둑도 없는 집.

취한 날이면  
가로등이 더욱 밝아  
머릴 숙이고 들어서고

아침이면 알 듯 모를  
어설픈 인사로 집을 나서는  
수수년 살고도  
싫증나지 않는 내 집.



장르	시
제목	봉의산 구름
작가	이무상
발표년도	2007년
배경지	봉의산

### 내용발췌

#### 봉의산

맛도 모르며 먹던 어머니의 것은  
 나를  
 토실 토실하게 키웠다  
 오랜 세월이 지난 날  
 아직  
 그 젓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한 평생 나는  
 산을 보며 자랐다  
 맛도 모르며 먹던 젓의  
 엄청난 자양만큼  
 건강한  
 정신의 자양으로  
 산은  
 가슴에  
 크게 남아 있었다



장르	시
제목	하늘의 로또
작가	이무상
발표년도	2019년
배경지	봉의산

### 내용발췌

#### 봉의산을 바라보며

춘천의 진산鎮山  
그 봉의산鳳儀山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봉황이 날아와 앉는 모습 같다’  
‘봉황이 날아가려는 모습 같다’

똑같은 모습을 보며  
서로 다른 생각들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긍정적 생활 속에 행운이 있듯  
행복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었다



장르	학술
제목	우리의 소슬뒀을 찾아서
작가	이무상
발표년도	2007년
배경지	춘천 전역

### 내용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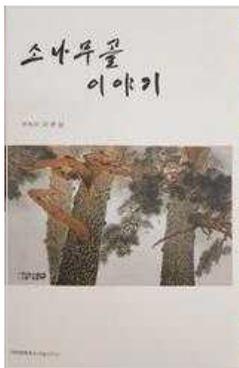
우두산은 춘천 시가의 북단부 소양강(昭陽江)의 서안에 해당되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작은 봉우리이다. 꼭대기에는 소슬뒀이라고 불리는 옛 무덤이 있다.

일본인들은 이 소슬뒀을 소시모리라하여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소슬뒀이 있는 우두산은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성지라며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소슬뒀 옆에는 춘천 이궁의 문루였던 조양루(朝陽樓)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보다 웃자란 빼곡한 굴참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늘 습한 가운데 있었다.

봉의산을 흔히 이스라엘의 성지인 마사다(MASADA)에 비유하기도 한다. 마사다 전투는 로마군대를 맞아 960여 명의 유대인이 마사다산에 올라가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거의 몰살당하는 처절한 전투를 벌였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노인 여자 2명과 아이들 5명에 의해 후대에 알려졌다.

봉의산은 1217년 고려 고종 4년 거란족의 침입으로 안찰사 노주한이 전사하였고 1253년 고종 40년 몽골 4차 침입 시 춘천시민들이 봉의산성에서 소와 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시는 최악의 상황까지 항전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6.25전쟁 때에는 민군관이 합동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결사 저지했던 격전장이기도 했다.



장르	학술
제목	소나무골 이야기
작가	이무상
발표년도	2017년
배경지	춘천 전역

### 내용발췌

그러던 때 이원직 분의 향교재단과 관계된 직함들이

- \* 춘천향교 총무장의
- \*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상임이사
- \* 춘천지구 유도회 총무부장
- \* 강원도 유도회 총무차장
- \* 향약동우회 총무부장

등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맡아오면서 일반 활동으로는 <춘천정악연구회>며, 한시모임인 <소양음사> 등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춘천의 유림들인 <소양음사> 모임에서는 옛사람들이 그러했듯 매월 초하루, 보름이 정기모임이었고, 특별 모임으로 회원들의 생일이나 회갑 또는 가정에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서로 초청들을 하여 친목을 다지며, 시들을 지어서 시전(시를 짓는 종이)이나 시축에 기록을 하여 보관을 하고, 그날에 잘된 글들은 회원들이 시조창으로 불러 감상들을 하면서 하루를 즐겼다.

또, 함께 운영되던 <정악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중앙의 명창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베풀고, 함께 <경연대회>를 열어 여자회원들은 민요, 남자회원들은 시조창으로 실력을 겨루기도 하였는데, 심사는 초청된 명창과 연사들이었다.

④ 이외수 (李外秀, 1946년 ~ )<sup>14)</sup>

경상남도 함양군 외가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인제군 본가에서 성장하였다. 인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춘천교육대학에 입학하였다.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견습어린이들》로 데뷔하고, 1975년 《세대》(世代)의 문예현상공모에서 중편 소설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젊은 시절 인제군에서 임시교사로 일한 적이 있다. 강원일보 기자 시절 옛 춘여고 뒤편 집에서 거주하다가 교동 한우물

터에 집을 짓고 거하는 등 춘천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다가 2006년 이후 현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육군 제15사단 명예 홍보대사이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초등학교와 인제중학교를 거쳐 인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1968년 육군에 입대한 뒤 1971년 제대하고 1972년 춘천교육대학교를 중퇴했다.

어릴 적 꿈은 화가로 춘천교대 시절 미전에 입상한 경력도 있었지만 스스로 재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절망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1973년엔 인제남초등학교 깃골(인제읍 남북리 일대)분교 소사로 잠시 근무하였다.

1975년 《세대》지에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정식 등단해서 생활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였고 강원일보에 기자직으로서 잠시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 교동 옛 춘여고 뒤편에 있는 단칸방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1976년 11월 전영자와 결혼하고 춘천 세종학원과 원주 원일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장편 《꿈꾸는 식물》을 발표하고 몇 편의 단편을 발표하고 난 후, 창작에만 전념키 위해 79년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이후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창작집 《겨울나기》(1980), 장편소설 《장수하늘소》(1981년), 《들개》(1981년), 《칼》(1982년), 《산목(상)》(1987년), 《벽오금학도》(1992년), 《황금비늘》(1997년), 《괴물》(2002년), 《장외인간》(2005년), 《완전변태》(2014

14) 참고자료 : 이외수 공식홈페이지

[http://www.oisoo.co.kr/ik\\_ct/bbs/board.php?bo\\_table=db1&wr\\_id=1](http://www.oisoo.co.kr/ik_ct/bbs/board.php?bo_table=db1&wr_id=1)

년), 《보복대행전문 주식회사》(2017년) 등과 시집 《풀꽃 술잔 나비》(1987년), 《그리움은 화석이 된다》(2000년), 《그대 이름 내 가슴에 숨설 때까지》(2006년) 등을 비롯해 에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1985년), 《말더듬이의 겨울수첩》(1986년), 《감성사전》(1994년),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1998년), 《날다 타조》(2003년), 《하악하악》(2008년), 《청춘불패》(2009년), 《아블류 시블류》(2010년),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2011년), 《마음에서 마음으로》(2013년), 《먼지에서 우주까지》(2016년) 등을 간행하였다. 그 외에 《사부님 싸부님 1,2》(1983년), 《흐린세상 건너기》(2002년), 《외뿔》(2001년),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2003년), 《뻘》(2003년), 《글쓰기의 공중부양》(2006년),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2007년), 《파로호》(2013년) 등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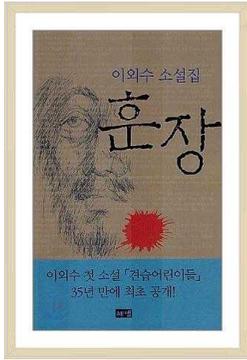
한편 화가지망생이기도 했던 작가는 90년 나우 갤러리에서 '4인의 에로틱 아트전'과 94년 신세계 미술관에서 선화(仙畵)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 위출열로 인해 진단을 받았더니 위암 2기 판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1달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였다. 위 절제 수술까지 수반해야 할 정도의 병세였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서 고비는 넘겼지만, 항암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5년 6월에 항암치료를 마쳤다.

2018년 7월 음악 단과대학인 남예중(남서울예술종합학교) 학장으로 취임했다.



인터뷰 당시 교동에서 작품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외수 소설가



장르	소설
제목	훈장
작가	이외수
발표년도	1975년 <세대> 신인문학상 수상
배경지	옛 남춘천역, 소양댐 오르는 길, 품걸초등학교

### 내용발췌

그때 내가 살던 퇴폐의 마을 남춘천에는 밤 열한 시 사십 분에 마지막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불을 줄지어 밝히고 열차는 아주 천천히 들어옵니다. 두어 번 기적이 울면 나는 반드시 창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중략)

사람들은 몽환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주황색 불빛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아주 낮은 땅, 멀고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략)

때로는 얼굴이 가름하고 무척 슬프게 생긴 여자가 은은한 불빛에 젖어서 나를 멍하니 내다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멍한 눈은 틀림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 되어집니다. 그런 여자가 서서히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연민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여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잠깐일 뿐이죠. 그 여자를 보여주기 위해 열차가 일부러 내방 창 앞에서 고장 난채 해주지는 않으니깐요. 하지만 그 잠깐 동안에 그 여자를 잠깐만 사랑하고 말았었죠.”



장르	소설
제목	꿈꾸는 식물
작가	이외수
발표년도	1978년
배경지	소양로 집창촌, 옛 캠프 페이지, 시민회관, 중앙시장 뒷골목

### 내용발췌

고등학교를 나온 인텔리 출신 어머니가 겨우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화물트럭 운전사인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른다. 다른 어머니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아버지를 닮은 사고뭉치 큰 형을 증오했다. 그러나 작은 형에 대해서는 온 정열을 쏟았다. 작은 형은 수재였고 어머니를 닮아 품위 있는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이곳 목도시에 와서 매춘업을 했고 작은 형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왔다. 작은 형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일하던 창녀의 장난으로 매독에 걸린 일이 있다. 작은 형은 매독에 걸려 한동안 앓았고 그해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말았다. 작은 형은 완전히 절망 속에 살았다. 그러다 훌쩍 집을 떠났던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형을 데리고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몽유병에다 정신분열 증세까지 있다는 것이다. 작은 형은 천제 망원경으로 별을 보며 별들과 교신을 한다고 했다.

일찍이 중학교 때 소년원을 갔다 왔던 큰형은 아버지를 대신해 창녀들을 관리했다. 어느 날부터는 돈 벌이를 위해 춘화를 찍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작은 형과 창녀들을 모델로 출연시켜 찍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형은 신체적으로 불능이었다.



장르	소설
제목	겨울나기
작가	이외수
발표년도	1980년
배경지	춘천도립의료원, 요선동, 춘천역, 소양로3가 집창촌, 옛 남춘천 봉제공장, 중앙극장, 육림공원 등

### 내용발췌

나는 역 대합실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다. 스물셋쯤 돼 보였다. 양파의 속살처럼 깨끗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바퀴 발레를 먹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른 여자 같으면 미친놈 쳐다보듯 했겠지만, 그녀는 맞장구를 쳤다. 친절하 여자였다. 나는 그녀에게 헤르만 헤세의 악처 얘기를 해주었다. 그 악처는 내가 '하숙집 주인 여편네'라고 부른 우리 마누라와 비슷한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녀에게 노란 옷을 입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외로운 분이라며 힘을 내라고 한다. 그녀는 절름거리며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중략)

나는 그 노란 옷의 여자를 찾기 위해 메리야스 공장과 미장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내가 찾는 그녀는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양장점을 생각해냈다. 노란 옷을 맞춘 여자를 수소문했다. 드디어 한 여자를 찾았다. 요선동에 사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가 나는 봉변을 당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몰아세웠다. 그녀도 내가 찾는 노란 옷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선술집의 그 사내가 보고 싶어졌다. 마누라의 겹돈을 훔쳐 선술집으로 갔다. 그 사내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연애 중이던 여동생이 남자의 변심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 사내의 여동생은 내가 역 대합실에서 만났던 그 절름발이 여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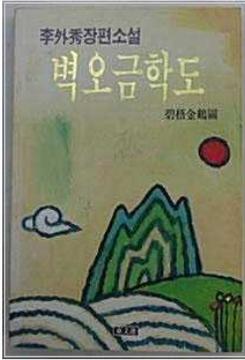
장르	소설
제목	황금비늘
작가	이외수
발표년도	1997년
배경지	춘천낚시터, 금산리, 춘천역

### 내용발췌

춘천행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자기 생경한 전율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백화점에서 거액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목격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백화점의 전율감이 가슴을 냉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한 여자가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전율감을 점차로 고조되고 있었다. (중략)

“어떻게 생긴 물고기입니까.”

“춘천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인데, 평소에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지만 안개가 짙은 날은 안개 속을 헤엄쳐 다니지요. 아시다시피 춘천에는 세 개의 댐이 축조되어 있어요. 물론 전자제품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댐을 좋아하시겠지요. 전기를 생산해 내는 축조물이니까요. 하지만 댐은 물고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신형 감옥이에요. 댐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여러 갈래의 강줄기를 상하류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가 있었지만, 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정된 수역 속에서만 살게 되었죠. 의암호에서 사는 물고기는 종신토록 의암호에서만 살아야 하고, 춘천호에서 사는 물고기는 종신토록 춘천호에서만 살아야 하고, 소양호에서 사는 물고기는 종신토록 소양호에서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무어는 달라요. 모든 댐을 넘나들면서 살 수가 있지요. 안개 속을 헤엄쳐 다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장르	소설
제목	벽오금학도
작가	이외수
발표년도	2002년
배경지	춘천 전역

### 내용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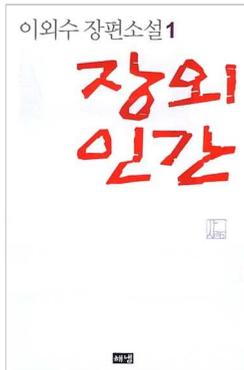
내일은 정기휴일이었다. 그는 무육점의 셔터를 일찍 내려 버리고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배낭을 꾸리기 시작했다.

한국 신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화헌파수룩에 의하면, 가평의 최 씨라는 사람이 춘천의 외조부를 만나러 가다가 폭설 속에 길을 잃고 선계로 빠져들어가 거기 여자와 결혼해서 일 년 동안 살다가 본가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병자년 봄이 되자 홀연히 말을 탄 사람 하나가 나타나 봉한 편지 한 통을 바쳤는데 바로 선계에서 온 편지였다. 뜯어 보니 금년 겨울에 너희 나라에는 반드시 큰 재난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들이 모두 어육으로 변할 것이니 가족들을 모시고 선계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중략)

최 씨가 폭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곳이 어디쯤일까. 강은백은 가평과 춘천 사이를 한번 답사해 볼 심산이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버스가 마석을 지날 때였다. 곁에 앉아 있던 사내가 말을 걸었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시골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다. 옷차림이 세련되어 있었다. 사내는 아까부터 사 흡들이 소주로 혼자 병나발을 붙고 있었다. 병뚜껑을 따자마자 강은백에게 먼저 한 잔을 권했지만 사양했다. 소주는 벌써 반 이상이나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내는 주량이 센 모양인지 아직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b>장르</b>	소설
<b>제목</b>	장외인간
<b>작가</b>	이외수
<b>발표년도</b>	2005년
<b>배경지</b>	봉의산, 구봉산, 금병산, 이디오피아, 고슴도치섬

### 내용발췌

서른 두 해를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학교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딱지와 구슬과 팽이들, 학용품과 신발과 옷가지들, 중학교 때 뽀질나게 드나들던 빵집과 만화방과 오락실들, 자전거와 불량식품과 유행어들, 고등학교 때의 여드름과 빨간책과 낙서들, 참고서와 생활계획표와 문제집들, 대학 시절의 술집과 혈기와 울분들, 로터리의 기념탑과 공지천의 팔각정과 변두리의 공터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밖에 수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사라져버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외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대수롭지 않았다. (중략)

"자네가 산을 바라보는 순간 산도 자네를 바라보고 자네가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호수도 자네를 바라보고 자네가 달을 바라보는 순간 달도 자네를 바라본다네. 자네가 눈길을 주기만 하면 삼라만상이 모두 자네를 본다네. 자네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 백로를 보았다고 하세. 그 순간 백로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겠지. 그러나 백로의 의식은 자네를 보고 있네. 하지만 인간은 예외일세. 인간은 의식이 육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네가 바라본다는 사실을 감지한 못한다네."

## ⑤ 최수철 (崔秀哲, 1958년 ~ )



춘천에서 태어났다. 교동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문과 석사과정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문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강원대학교에서 강사생활을 했었다가 지금은 한신대학교 문예창

작과 교수로 있으며, 한신대학교에서 문예창작대학원 원장과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1981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맹점'으로 등단했다. 등단한 해 '신유년 겨울, 혹은 계류' 과 '사소한 부재를 위하여'를 발표했다. 번역가로서 르 클레지오의 '타오르는 마음'이나 '황금물고기' 등을 번역했다. 이상문학상을 받은 중편소설 '얼음의 도가니'는 한국적 누보로망의 가능성을 연 작품으로 유명하다.

2019년 61세의 나이에 제50회를 맞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 직후의 인터뷰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거의 40년이 되는 동안 제가 동인문학상 후보에 아마 가장 많이 오른 작가가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받게 됐다"며 웃었는데, 실제로 젊은 작가 시절에는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발표하는 작품마다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최수철은 아버지가 국문학 전공자이며 동시에 국어 교사이자 작가지망생이었다. 최수철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학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 최수철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문예반 활동을 했고 이때 시를 많이 쓰게 된다. 특히 그는 이제하의 '초식'을 읽고 자신과의 어떤 동질감, 일체감을 느끼며 큰 감명을 받았으나, 대입이 다가오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은 한풀 꺾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최수철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대학신문에 '모를 일'이라는 작품을 투고하여 호평을 받게 된다. 최수철은 다시 대학신문의 대학 문학상 공모에 투고하게 되고, 아쉽게 떨어지나 정명환 서울대학교 불문학 교수의 칭찬을 받고 소설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는 '결국(結局)'이란 단편을 투고해 가작에 당선된다.

\*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교동 18-4번지에 거주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맹점》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1981년 단편소설 《신유년 겨울, 혹은 계륵》과 《사소한 부재를 위하여》를 발표하였으며, 이듬해 《타임 킬링》을 《우리세대의 문학》에 발표하였다. 중편 소설집 《화두, 기록, 화석》(1987)은 개인 사이의 존재하는 소통의 문제에 천착하여 개인의 진정한 만남의 언어, 건강한 소통의 언어를 추구한 창작집이다. 1989년 4부작 소설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을 발표하였으며, 1990년 소설선집 《배경과 윤곽》, 《말(馬)처럼 뛰는 말(言)》을 발표하였다.

이외의 작품에 소설집으로 《몸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들》(1994), 《내 정신의 그림》(1995), 《분신들》(1998), 《공중누각》(2000)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로 《고래 뱃속에서》(1989), 《벽화 그리는 남자》(1992), 《모든 신포도 밑에는 여우가 있다》(2001) 등이 있다. 동화로는 《물음표가 느낌표에게》(2004)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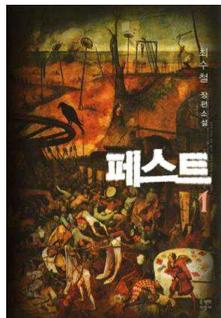
1988년 《고래 뱃속으로》로 제4회 운동주문학상을 받았으며, 1993년 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모색을 통해 한국적인 누보로망(양티로망)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편소설 《얼음의 도가니》로 제17회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즐거운 지옥의 나날  
발표년도 : 1990



불멸과 소멸  
발표년도 : 1995년



페스트  
발표년도 : 2003년



사랑은 게으름을 경멸한다  
발표년도 : 2014년



독의 꽃  
발표년도 : 2019년

## (2) 미술

① 장운상 (張雲祥, 1926년 ~ 1982년)<sup>15)</sup>

호는 목불(木佛). 춘천 신북읍 유포리 출생으로 목사인 부친이 춘천중앙교회를 담임함에 따라 목사 사택인 <옥천길 53>에 거주하여 청소년기를 지냈다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하고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재학 때인 1949년 제1회 국전(國展)부터 응모, 특선과 특선을 거듭하였다.

그 뒤 1961년에 추천작가가 된 직후까지는 비사실적인 현대적 화면구성으로 「여인상」·「연못 풍경」·「학과 달」 등의 채색표현의 작품으로 전통회화의 새로운 창조적 지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대작가가 된 1969년을 전후하여서부터는 전통적인 옷차림과 우아한 얼굴표정의 전형적인 한국여성상을 섬세한 필선과 맑고 선려한 채색으로 묘사한 작품을 주로 발표하여 세칭 ‘미인화가’의 평판을 확립시켰다.

다른 화단활동으로는 1960년에 서세옥(徐世鈺) 등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중심으로 전통회화의 혁신적 시대성 및 새로운 방법의 실현을 이념으로 내건 묵림회(墨林會)를 조직하고, 첫 회원작품전에 참가하였으나 이내 탈퇴하였다.

국전에서는 심사위원도 여러 차례 역임하였고, 지병으로 죽을 때까지 동덕여자대학 미술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대표작으로 「전설」(1961)·「아(雅)」(1968)·「운(韻)」(1969) 등이 있다.



<목불 장운상의 미인도>

15)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미술 전시리뷰] 미인화가 장운상을 만나다<sup>16)</sup>

전시명 : 절대미를 꿈꾸다: 목불 장운상의 예술세계

장 소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기 간 : 2013.4.17~6.23

장운상(張雲祥 1926-1982)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배출된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기반을 마련한 해방 1세대 작가이다. 특히 소재와 재료, 화법 등에서 스승 장우성(張遇聖 1912-2005)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일본색을 청산하고 민족적인 미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수묵채색 미인도를 통해 선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왜냐하면 미인화는 소재와 표현기법 등에 있어서 일제감정기의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일본화(日本畫)에 가장 많이 노출된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해방 1세대 화가들은 대개 사의적(寫意的) 수묵화나 서양의 영향을 받은 추상 회화 등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도 1. 장운상, <9월> 1956년, 종이에 담채, 200×150cm, 국립현대미술관

하지만 장운상은 화선지와 수묵채색이라는 전통 재료를 고집하며 인물 중에서도 여성의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 즉 美의 가치를 완성하는데

16) <Smart K> <http://www.koreanart21.com/review/antiques/view?id=2862>

천착하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50년 중반 이후, 여성의 누드를 소재로 새로운 조형적 실험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통적인 미인도류도 다수 제작하였다. 일례로 1956년 제5회 국전에 무감사로 출품했던 〈9월〉(도 1)은 상반신 누드 여성의 파격적인 자세와 표현기법에서 새로운 조형적 모색을 보여준다. 반면 한복 차림의 여성이 양장을 입은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미인도〉(도 2)는 조심스러운 몸가짐에서 보이는 보수성과 목이나 양쪽 팔을 드러낸 옷차림에서 풍기는 개방적 성향이 대조를 이루며, 1960년대 중반 완성되는 한복 차림의 고전적 미인도에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장운상의 조형세계를 예고하고 있다.



도 2. 장운상, 〈미인도〉, 1956년, 비단에 채색, 79.5×82.5cm, 국립현대미술관

그가 한국 현대 미인화의 전형을 모색하던 1960-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의식주 문화가 빠르게 서구화되어 갔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유교적 관습도 약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늘어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며 즐기는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장운상이 확립한 한복 차림의 현대 미인도는 고전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신윤복(申潤福 1758-?)이나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여성상과 그만의 絶對美가 반영되며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얼굴을 보면 쪽진 머리에 의해 드러난 시원한 이미, 사선으로 처리된 긴 눈매, 반듯한 콧날의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 은근한 미소 등

이 어우러지며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꽃을 감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을 당당하게 즐기는 자족감(自足感)과 생동감(生動感)이 넘친다. 이러한 특징적 얼굴 표현은 장운상이 추구한 절대적 아름다움의 전형으로 현대 여성의 익명성과 공중화를 의미하는 상징적 도상이기도 하다. 더불어 민무늬의 반회장 한복은 평범한 현대 여성의 정숙함이나 우아함을 대변하는 코드로 작용한다(도 3). 그러나 기존의 미인도와 다르게 팔등신에 가까운 서구식 신체비례나 손동작의 자세한 묘사는 그가 받았던 대학의 미술교육에 뿌리를 둔 것이다. 결국 장운상은 전통적인 미인도에 당시의 현대적 여성상과 미술교육을 통해 습득한 화법을 절충하여 한국 현대 미인화의 전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 3. 장운상, 〈운(韻)〉, 1977년, 종이에 담채, 150×178cm, 개인

그의 미인도는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감상하고, 부채를 든 여인의 모습에서 익명의 현대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여유와 즐거움을 소리 없이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 미인화의 한 전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방 1세대 화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최경현(문화재청) 관리자

② 안중중 (安淙重, 1946년 ~ )<sup>17)</sup>

호는 시백(時伯). 1946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신고등학교, 홍익공전을 졸업하였다. 춘천으로 이주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2000년 강원서예상, 2010년 강원문화상 등 다수 수상했다.

2000년 강원일보 창간 55주년 기념 초대 전 외 개인전 7회. 대한민국 현대서예문인화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전각학회 이사, 근역사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노자 81송과 전각》이 있다.

- 신문기사<sup>18)</sup>

[작가의 작업실] 장르의 구분을 초월한 작가 시백(時伯) 안중중

### “서예는 예술이 아니라 학문이자 인성교육”

난정서예학원. 지긋한 연세의 어르신 몇몇이 서예를 배우고 있다. 떡물이 질게 뻗 책상 앞에 시백 선생과 마주 앉았다. 시백 선생은 서예가 일상의 생활이라고 말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서예가 예술로 분류됐지만, 서예는 예술이 아니라 학문이며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선생은 서예가 인성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서예가 예술이 되는 것은 인성을 다스리는 교육이나 학문을 통해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라고 한다. 선생은 동양 3국 중 우리나라만 서예를 예술로 분류해 교육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한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해 경신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술부장으로, 홍익공전에서는 목칠공예를 전공하며 미술과 서예를 병행했다. 국전에 회화와 서예를 동시에 출품했는데, 회화는 입선을 못하고 서예만 입선을 한 것이 회화보다 서예에 더 집중하게 된 계기였을까? 대학에서는 회화를 더 많이

17) 참고자료 : 『월간미술』

18)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2>

배웠는데 서예의 대가인 검여 유희강 선생을 만나면서 서예를 병행하게 됐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며, 글씨를 쓰며, 하루를 보낸다.” 그가 들려준 시구다. 그렇게 20여 년을 지내며 문인화와 전각을 병행했다.

**근래 들어서는 우유팩을 이용한 새로운 장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생은 근래 크레파스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크레파스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불에 은근하게 녹이는 기법으로 부드러운 색감을 창조해 내고 있다. 선생에게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내기도 하고 칼을 통해 선을 연출하기도 한다. 어떤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그림이 아니라 감성이 가르치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 소재를 불문하고 그림을 그리니 장르를 구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생은 서울 토박이다. 춘천으로 오면서 달라진 게 그림에 나타났다. 춘천이 가진 호수, 산, 물빛, 달에서 얻어지는 감성이 지대하다. 우유팩을 곧게 펴면 나타나는 선에서 산의 윤곽을 보고, 접했던 면에서 실상과 허상을 보며, 그것을 춘천의 풍경과 대입시켜 나가는 작품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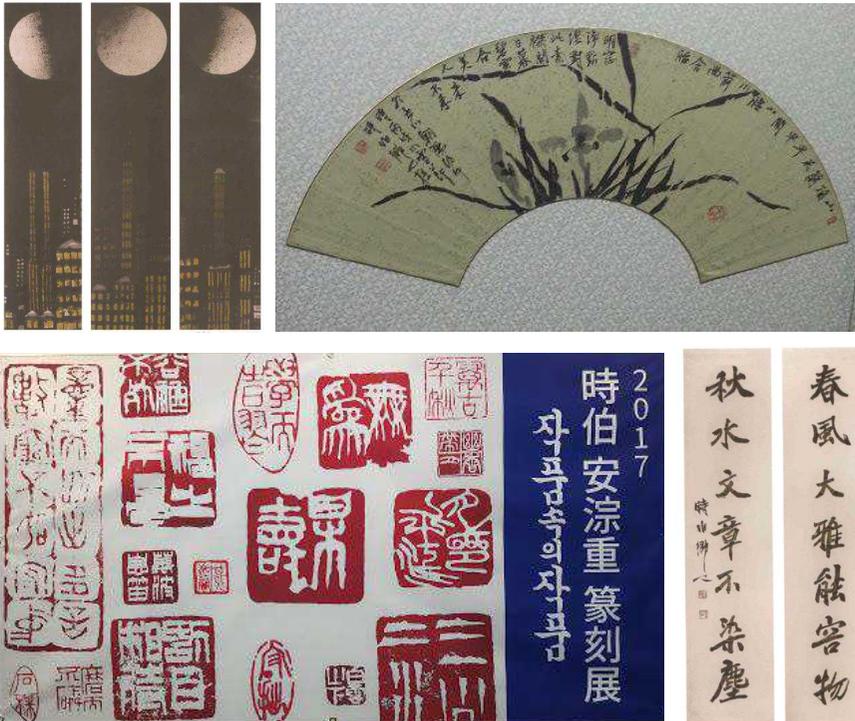
산과 강물, 강물 속의 그림자, 그 위를 가르는 오리배 등 모든 것이 우유팩의 접혔던 선에서 나타난다. 선생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다. 전각을 하며 느낀 감성을 통해 도화(칼로 그린 그림)를 그리기도 한다. 이미 고회를 넘은 나이.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내 멋대로, 본대로 그리면 된다. 그러나 크레파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난로가 필요해 여름에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며 아쉬워한다.

선생은 현대화된 새로운 형식의 문자도가 마지막 작품세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인화, 전각, 서예 등 선생이 했던 모든 작품이 한 곳에 들어가는 작품을 하려는 것이다. 선생을 존경하는 후배들에게 해 줄 말을 물으니 예술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다. 살아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지 어떤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생은 춘천의 현실에 대해 예술이든 행정이든 갈등과 충돌이 많이라며 모두가 좀 자제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원로로서의 염려가 느껴지는 말이다.

선생은 지난해 고회전을 열었다. 서예, 문인화, 전각, 서양화 등 여러 장르에서 대가의 경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생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된 문인화가 기대된다.

오동철 시민기자



<시백 안종중 작품>

## ③ 김대영 (金大榮, 1959년 ~ )



봉의산 아래 교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춘천에서 다녔다. 197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 회화과에 진학하며 미술을 시작한 이래 1995년 동아미술대전 특선 수상을 통해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며 8차례의 개인전과 수십 차례의 그룹전을 거친 중견 서양화가이다.

30여 년째 후진을 위한 강의에 나가고 있으며 틈틈이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가을 춘천으로 이사해온 후에는 강원도의 산하와 일상처럼 오르는 봉의산에 담겨진 춘천의 전통적 흔적들을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가로화실(현 서부대성로69 2층)에서 작업

- 신문기사<sup>19)</sup>

**[작가의 작업실] 오방색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김대영 화백**

눈을 보기 힘든 겨울, 며칠간 한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내의 공기는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작가의 고향인 봉의산 아래 교동 인근에 자리한 작업실을 들어서면서 ‘아! 겨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작업실 문을 들어서자 뽁뽁이라는 비닐 단열재가 휘장처럼 둘러져 있다. 작업실 구석구석 점들이 이어져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된 산수화 작품들이 보인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연탄난로가에서 앞머리가 듬성듬성한 인자한 얼굴의 김대영 작가와 마주 앉았다.

작가는 봉의산 아래 교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춘천에서 다녔다. 197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 회화과에 진학하며 미술을 시작한 이래 1995년 동아미술대전 특선 수상을 통해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며 8차례의 개인전과 수십 차례의 그룹전을 거친 중견 서양화가이다.

19)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6733>

2010년~2011년은 북한강포럼의 기획전 한강 살·가·지(살리고, 가꾸고, 지키자) 전의 기획을 책임져 미술과 환경문제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30여 년째 후진을 위한 강의에 나가고 있으며 틈틈이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과 함께70 미술에 담은 강원도 산하’ 전을 통해 수백 호가 넘는 대작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3년 가을 춘천으로 이사해온 후에는 강원도의 산하와 일상처럼 오르는 봉의산에 담겨진 춘천의 전통적 흔적들을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전한다. 호불호가 심한 예술계의 특징이 있지만 힘을 합쳐서 참여와 소통을 이룬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진다고 한다. 각자가 가진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간다면 반대의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림에서 전해지는 색감에 대해 물으니 작가는 우리나라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언급한다. 아울러 사전적 의미로 신성하게 여기는 특정한 동식물 또는 자연물, 각 부족이나 씨족·사회집단의 상징물의 의미인 토템을 강조한다. 오방색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의 한 양상이며 어머님들이 느끼던 신성한 자연의 힘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 표현방식이 2007년부터 작가의 작품세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가 산맥의 선을 형성하는 오방색과 바위 앞 시루떡, 무지개 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가의 표현기법은 독특하다. 일반적으로는 캔버스에 작품을 그리지만 요즘은 캔버스에 한지를 붙인 방식으로 좀 더 한국적인 표현을 가미하려 한다고 한다. 밑그림으로 그려지는 점들은 여러 차례의 분사기법과 몇 차례의 미세한 터치로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 선들의 연결이 작품으로 완성된다.

작가는 올 7월에 ‘백송화랑’에서 개인전이 연다. 10월에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부스전을 열 예정이라고도 한다. 11월에는 춘천에서 개인전을 열고 겨울에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지난해 호평을 받은 ‘산과 함께 70’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도 밝힌다.

작가는 개인의 작품세계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소통과 경험을 나누고 힘을 모아 지역문화의 발전을 이루는데 최종목표를 둔다며 기회가 생긴다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수십 년간의 후진양성과 치열한 작가정신에서 파생된 경험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는 끝이 없다. 작가가 추구하는 전통적 기법의 작품들이 많은 독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오동철 시민기자

● 칼럼<sup>20)</sup>

[연재칼럼] 내마음속 미술  
(86)쓸모없는 일의 동경

아마 중학교 때 미술 교과서였던 듯하다. 앙그르의 <샘> 그림이 있었다. 요즘에야 여성의 벗은 몸 이미지가 인터넷에 넘치게 돌아다니지만, 1970년대 초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귀하디귀한 사진이었다. 미술교과서에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머리카락과 손으로 특정 부위를 가리고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이었다. 갓 사춘기에 들어선 까까머리의 성적 호기심을 합법적·교육적으로 다독겨려 준 미술교과서에 나는 지금도 고마움을 느낀다.

리비도 영역뿐이었을까. 어른들의 눈총, 사회 상규(常規), 다들 옳다는 공식, 빠른 레일 위를 달리는 삶 따위에 의심이 들거나 질리거나 지겨워질 때, 미술 또는 미술 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나는 대학시절 별 이유 없이(물론 지금 생각하면) 두 차례 휴학을 하고 고향 춘천에서 '전원'이라는 클래식 음악다방의 DJ를 했다.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김춘배·김대영 화백은 나와 고교 선후배 사이였다. 한동안 김춘배 형과 저녁마다 후배 김대영의 화실에 가서 술 마시고 떠들다 아무렇게나 잠들곤 했다. 그 시절 만난 또다른 선배가 당시 소양강가에 작업실을 갖고 있던 조각가 故 박희선(1956-97)의 형이다. 정물용 북어·사과까지 안줏감으로 거덜 내며 그토록 많은 술을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하자면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의 한 구절쯤 될까.

20) <Seoul Art Guide> <http://www.daljin.com/column/14453>

‘...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 별뿔별이 되어 떨어졌다.’

작가이자 화가인 이제하의 첫 창작집 『초식』(1973)도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를 들어 단편 『유자약전』에서 주인공 유자는 독일 출신 화가 얀 보스(Jan VOSS)의 작품 〈순간의 환희〉를 우연히 외국 잡지에서 보고 “이 망할 자식이... 나보다 먼저 그려버렸어”라며 머리를 움켜쥐고 절망한다(그 이제하를 수십 년 후 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어느덧 나도 남의 눈총과 제반 상규를 의식하고, 레일 한 가닥에 올라타 혹여 궤도라도 벗어날세라 주뻗거리며 지내는 생활인이 되었다. 그렇더라도 남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은 아직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미술, 요셋말로 시각예술이 특히 그렇다. 일본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여행지 부근 미술관을 찾는다. 일본의 풍부한 미술 감상 인프라는 정말 부러울 정도다. 하코네 조각의숲미술관,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도와다현대미술관, 그 외 많은 공·사립미술관들을 다녔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이던 섬 전체가 미술관으로 변신한 나오시마도 두 번 찾았고, 이 일대 12개 섬에서 열리는 세토우치트리엔날레 기간에 맞춰 배를 타고 섬들을 돌아다닌 적도 있다. 나오시마의 지추(地中)미술관에 있는 클로드 모네 작품 전시실에 들어가려면 무슨 성지순례라도 하듯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 그에 못지않게 경건한 자세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있는 데시마아트뮤지엄의 행한 바닥에서 조금씩 솟아오른 물방울이 서서히 흐름을 형성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술은 참 재미있는 고등사기라고 생각했다. “예술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이다”라는 피카소의 말이 맞았다.

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술을 찾는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어야 하고, 수상쩍고 불온해야 하고, 정해진 잣대로 측정하기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그런 특징이 나에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느낌을 선물한다. 물론 미술관에 갈 때는 그런 선물을 받을 거라는 익숙한 기대가 이번에는

보기 좋게 배반당했으면 하는 또 다른 '기대'도 하지만...

- 노재현(1958년 ~ )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졸업, 중앙일보 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앙북스 대표이사 역임. 『나를 깨우는 서늘한 말』(중앙북스, 2015) 등 저술. 현재 : 신문유통원 원장



<김대영 화백 작품>

## ④ 김춘배 (金春培, 1957년 ~ )



그림, 미술수업, 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가이자 문학인이다. 82년 강원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한국미술협회전, 강원미술협회, 춘천 미술 협회전, 한일 교류전 등 활발한 전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화가다. 두 차례의 개인전 경험이 있으며 미술과 비평

선정작가 초대전 초대작가로 초청받은 경력이 있다. 강원기독교미술협회 고문이며, 춘천시장상, 제10회 춘천미술상을 수상했다. 그림의 서정적인 내용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작(時作)에 몰두한다. 결국, 동인활동으로 이어져 '풀잎' 시동인에서 16년 동안 활동했고 지금은 'A4'에서 활동하고 있다.

\* 가로화실(현 서부대성로69 2층)에서 작업

- 신문기사<sup>21)</sup>

[시터view]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다시 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하는 것

지난해 《춘천사람들》 창립 2주년 기념 그림전시회 개막식을 앞두고 전시 공간을 돌아보다 김춘배 화가의 갈대 그림 앞에서 발을 멈췄었다. 갈대는 흔히 외로움으로 상징되는 소재인데, 화가의 그림은 다른 느낌이였다. 강바람에 흠날리는 갈대의 갈기에서 작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님프인 시링크스(Syrinx)가 목신(牧神)인 판(Pan)에 쫓기다 갈대로 변신하자 판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붙였는데서 갈대가 음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다고 한다. 갈대에서 음악소리를 들었던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그림이 참 따듯했다. 다양한 색감과 강물에 반짝이던 물비늘의 파편 때문이었을까? 평상시 소년처럼 해맑던 작가가 생각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화가이자 시인인 김춘배(62) 씨는 춘천의 문화가 꽃피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는 터줏대감이자, 흔히 있을 법한 소소한 이지러짐조차 천진한 웃음으로 녹여내는 기분 좋은 화해의 전령이기도 하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도 불편하고 듣고 말하

21)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37592>

는 것도 불편한 화가가 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림과 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부분을 필답으로 주고받은 인터뷰지만, 따로 작가를 만나는 기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흔히 빵떡모자라 불리는 모자에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맑은 피부. 처음 자리를 마주한 화가는 예의 그 친화력으로 자칫 어색하기 쉬운 인터뷰 자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먼저 작가가 성장해온 과정과 미술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어난 지 3년 만에 생모가 가출해 조부모 손에서 양육되다시피 했는데, 그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방안에서만 지내면서 집에 걸려있는 ‘모나리자’나 밀레 등의 복제그림과 그림에 소질이 좀 있었던 아버지의 심심파적 낙서그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일이 손과 몸에 밴 것 같아요. 취학하면서 자연스럽게 특활과목이 미술이 됐고, 중·고 미술부를 거쳐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전공하게 됐죠.

화가는 강원대 미술교육과에 응시해 수석으로 입학하게 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교사라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졸업 후 교사발령을 않겠다는 조건 하에 입학할 허락했다고 한다. 수석이 아니었다면 탈락시켰을 게 분명하다. 이런 화가의 성장기에는 뭔가 특별한 도움과 관심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학창시절 화가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등학교에선 미술부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이길중 선생님이 학업실력과 그림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약대에 진학하기를 바라셔서 미술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3학년 때 김승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설득해 미대진학을 준비했지요. 성적이 괜찮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유학을 반대하는 바람에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강원대에 입학해 전공보다는 연극, 문학, 방송, 사진 등 다양한 서클활동으로 대학생활을 했어요. 성인이 된 후 예술과 예술가 집단을 만나면서 예술을 권력으로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먼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일탈도 있었지요.

대학 졸업 후 화가는 미술보다는 신학과 문학에 심취했다. 15여 년 동안 미술 입시지도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그림에 대한 갈증으로 1997년에 첫 개인전을 열면서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풍경화부터 인물화까지, 실경에서 추상화까지 작품의 세계는 참 다양했다. 작가는 그 자신의 그림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아직 이렇다 할 경지라든가 내세울 만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인물화에 관심이 많아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의 내용을 담으려고 시도했어요. 우선 기본을 다지는 단계로서 풍경을 주로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추상화를 몇 번 시도하기도 했지요. 아직 작품세계라는 것을 제대로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나름의 아이템이라든가 작품세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하거나 참여했던 많은 전시회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나는 전시회나 더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게 마련이다.

아직은 충분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런 질문에 맞는 답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래도 지난해 강원아트페어에 출품했던 ‘reeds-調律’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갈대밭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인가 수채화 초대 개인전을 했을 때는 완판이 돼 특히 고마웠지요.

화가의 갈대그림은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틀림없다. 화가는 갈대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 지난해 느꼈던 따뜻함이 작가가 갈대를 그리면서 의도한 감정일까?

오래전부터 갈대의 일렁임에 마음도 일렁여서 어떻게 제대로 표현해 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작품에서 그런 따뜻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갈대는 많은 이들에게 존재의 근원과 다양함의 여러 변주를 보여주는 소재지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어요.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이 강물의 윤슬을 배경으로 하는 30호짜리인데, 공교롭게도 질문과 시기적으로 잘 맞네요. 제 아호가 ‘성위’인데, 깨달을 성(醒), 갈대 위(葦)를 씁니다. 약 20년도 전에 선물 받은 건데, 꼭 그때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그려도

그런 일렁임의 손짓이 저를 지배해 왔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갈대의 꽃말이 ‘신에 대한 믿음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본격적으로 갈대를 갈 때까지 그려야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 같아요.

“갈대를 갈 때까지 그려야겠다”는 화가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와 닿는다. 평소 가진 삶에 대한 해학이자 스스로에 대한 각오였으리라. 이런 탁월한 언어의 조율에서 보듯 작가는 화가이자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강원기독교문학 발간작업을 맡아 일을 하면서 작가의 시를 읽은 적이 있었다.

햇빛의 기인 손이 바람을 활로 삼아  
그리움의 스트라디바리 현(弦)들을  
한 묶음씩 켜대고 있다  
하얀 신열 얇게 피워 올리며 가을강이  
몸을 고쳐 앉는 것이 보였다

reeds-調律(2016)

이 시를 표현한 그림을 보면서 ‘자연의 감동을 이렇게도 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와 그림의 상호보완 또는 같은 시각으로 시와 그림을 표현한 작업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아! 시가 먼저인지, 그림이 먼저인지?

우선은 시가 먼저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시동인 ‘풀잎’ 활동 때 발표한 연작시 3편 중 하나인데 12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갈대밭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림에 붙인 것인데, 지지난해 미협에서 기획한 ‘미술가 소리를 탐하다 展’에 출품할 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서 그 시를 넣게 되었지요. 보니까 정말 안성맞춤이더군요.

화가로서의 삶, 시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다른 걸까? 또,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그림과 시는 어떻게 다르게 활용될까?

처음에는 그림의 서정적인 내용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작(時作)에 몰두했죠. 그게 결국 동인활동으로 이어져 ‘풀잎’ 시동인에서 16년 동안 활동하고 지금은 ‘A4’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시와 그림은

각각 독립적 특성이 있어요. 시화라는 장르도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창작의 구조적 특성은 엄연히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시적인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작업의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희망사항쯤 되겠네요. 시인으로서의 삶과 화가로서의 삶은 확실히 다르더군요.

박제영 시인의 블로그에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춘배 옴빠’라는 시를 보았다. “춘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춘천”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춘천에서 오랜 시간을 살며 춘천을 사랑하는 작가가 느끼는 춘천과 춘천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따뜻이 품어주고 보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춘천만이 가진 천혜의 조건과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순박한 춘천사람들의 싱그러운 내음이 나오는지요. 지금 많은 것을 상실해 가고 있어 안타깝지만, 춘천시민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움직임들도 많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춘천지역 작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풍부해지면서 작가를 지원하는 환경도 10여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못한 것 같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지난해 춘천미술인협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춘천에서 예술의 한 영역을 굳건히 지켜오면서 후배나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예술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사실 뜻밖의 수상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창작도 미미하고 춘천미술계에 별로 한 일도 없었는데, 아마도 그해 미술협회 행사에 약간의 힘을 보태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천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가을에 개인전이 예정돼 있고요. 앞으로 좋은 전시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경험과 사유를 정리해 책을 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후회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늘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고 자부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후회할 정도로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지금

까지 이른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은혜의 결과라 감사히 생각하고 있지요.

가을에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낙엽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랑잎’이라거나 ‘갈잎’이라고 한다. 갈대나 참나무 종류는 새봄이 오기까지 갈잎을 씩씩하게도 달고 있다. 갈대 또한 ‘갈잎을 달고 있는 대’다. 화가 김춘배가 곧 갈대가 아닐까? 갈잎을 달고 새봄을 맞을 때까지 화가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이 같은 천진한 웃음으로 주위를 밝혀주고 종종 사람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다시 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라는 화가의 말이 내내 긴 여운으로 마음에 남는다. 앞으로 다시 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하면서 그려진 화가의 그림 앞에서 우리 또한 다시 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원미경 시민기자



<김춘배 화백 작품>

## (3) 영화

## ① 여고 졸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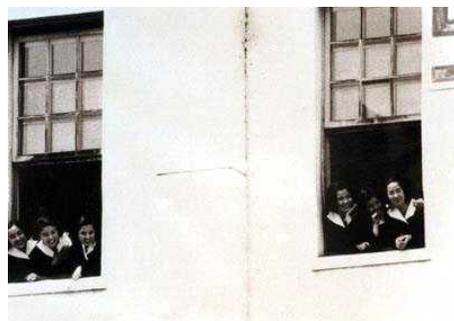
개요	드라마 / 95분 / 1975.08.23 개봉
감독	김응천
출연	이정길, 임예진
등급	15세 관람가
촬영지	옛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춘천 일대에서 촬영 *여성작가 구혜영의 소설 '불타는 신록' 이 원작

## 즐거리

여고 2년생인 유시내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흰샘고교에 전학온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일선물로 가발을 해드리기 위해 머리를 자른다. 어느 날 사복으로 거리를 걷던 시내는 지도부 선생에게 적발되어 머리를 깎이고, 담임 현기목 선생님은 이 일로 사표를 쓰나 학생들의 사과로 무마된다. 겨울방학 대관령에서 스키를 즐기던 시내는 현선생님이 보고싶어 집으로 돌아온다. 시내를 동경하던 훈은 멀리서 시내를 지켜본다. 현 선생님의 생일날 시내는 그와의 약속을 기다리나 그가 오지 않자 거리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혼수상태에서 그녀가 깨어날 무렵 현선생은 훈으로 하여금 시내곁에 있게 한다.



춘천여자고등학교 교정



춘천여자고등학교 교사와 창문

## ② 청춘 공화국



개요	드라마 / 95분 / 1977.05.18 개봉
감독	최현민
출연	이정길, 한유정, 김효원
등급	12세 관람가
촬영지	옛 강원중·고등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촬영

## 즐거리

최충지는 춘천의 강원종합고등학교의 교사이다. 현호라는 학생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충지는 금요일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메아리 운동을 시작한다. 익수는 가난하여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익수의 부친은 주벽이 심해 괴로움을 받는다. 문호는 동정에 반발하여 사랑의 메아리 돈을 훔쳐 달아나지만 보육원 장선생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나려 한다. 그러나 최 선생을 만나 다시 돌아온다. 사랑의 메아리 운동은 점점 퍼져서, 졸업생의 성의가 학교로 답지하고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등 춘천의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강원고등학교 교사 앞



강원고등학교 교정

## ③ 와니와 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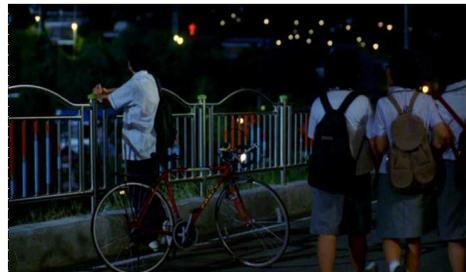
개요	멜로/로맨스, 드라마 114분 / 2001.11.23 개봉
감독	김용균
출연	김희선(와니), 주진모(준하)
등급	15세 관람가
촬영지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유봉여자고등학교에서 촬영되었다.

## 줄거리

26세의 와니(김희선 분)는 현재 6년 경력의 동화부 애니메이터다. 성공보다는 일 자체를 사랑하는 와니는 원화부로 옮기는 문제를 망설이고 있다. 그녀를 사랑하는 27세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준하(주진모 분)는 춘천에 있는 와니의 집에서 지내면서 첫 장편 시나리오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낭만적이고 장난기가 많지만, 속 깊은 면이 매력인 준하는 그런 와니를 챙겨주면서 그녀 곁에 머물고 있다. 와니의 집 2층에는 잠겨진 방이 하나 있는데, 그녀의 이복동생이자 첫사랑이었던 영민(조승우 분)의 방이다. 어느 날 영민의 귀국 소식이 전해져오고 영민에 대한 외사랑에 마음을 태웠던 소양(최강희 분)이 그 집에 찾아오면서 추억의 문도 열린다.



유봉여자고등학교 후문 입구



유봉여자고등학교 후문 앞

## 6) 기록적 가치가 있는 건물, 자연자원

### (1) 건축물

#### ① 춘천예술마당

춘천예술마당은 춘천시민들에게 예술문화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공간으로 춘천 시가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춘천예술마당은 연중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춘천미술관과 사진전 위주의 전시를 볼 수 있는 아트플라자 갤러리, 각종 연극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봄내극장,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창작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2)</sup>



춘천예술마당 전경

#### ② 춘천미술관

고풍스러운 옛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술관. 춘천 시 옥천동의 랜드마크이며,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쉽게 다가와 다양한 문화예술의 세계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편안한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이다.<sup>23)</sup>

22) 출처 : 강원도청,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23) 참고 : 강원대학교 역사관, 춘천중앙교회사

## &lt;춘천미술관의 변천표&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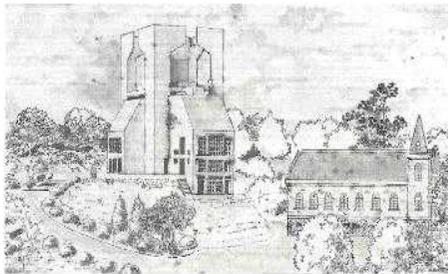
당시 춘천농업대학(강원대학교 제공)



현 춘천미술관

## ③ 봄내극장

김석재 건축가의 작품으로 지역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살린 것이다. 중앙상부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하늘과 대화하게 디자인되었다. 1층은 다목적 기능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외형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등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당시 달착륙 우주선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아폴로 건물’로 불리기도 하였다.<sup>24)</sup>



조감도(춘천중앙교회 제공)



기공예배(춘천중앙교회 제공)

24) 참고 : 한국건축가협회, 춘천중앙교회사



1970년대 봄내극장  
(한국건축가협회 제공)



현 봄내극장

• 김석재 건축가(1937년 ~ )

1961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인 김중업의 제자로 공부했다. 1960년~1967년 김중업건축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1967년~1970년 알파 오메가 건축연구소 소장, 1970년~1988년 (주)코리아건설 대표이사를 맡았다. 1989년~1997년 (주)방산건설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7년~2002년 (주)알파오메가 건축사무소 대표와 2000년~2002년 (주)리콕스건설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김석재 작품 : 연세대학교 루스체플



김석재 작품 : 용산 국군중앙교회

- 신문기사<sup>25)</sup>

### [시선] 캔틸레버 건축과 우리대학교의 루스채플

늦가을.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계절이다.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시간을 품은 교사(校舍)들이 보인다. 1917년에 이곳에 자리잡은 후 100여 년간 채워진 캠퍼스의 곳곳에는 그 시간의 켜들을 간직한 건축물들이 놓여 있다. 캠퍼스 대표건축물들이라 할 수 있는 본관, 스팀슨관, 아펜젤러관, 핀슨홀 등은 1920년대 서양인들에 의해 서양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교사들로 이후 한국 대학 건축의 전형이 된 건축물들이다. 한편 1950년~1970년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사용한,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한국적 모던 양식의 교사들이 주로 지어졌는데, (학생회관, 백양관 등) 같은 시기 지어졌지만, 이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건축물이 하나 있다. 바로 1960년대 말~1970년대 말까지 한국 건축의 화두였던 ‘현대건축에서 어떻게 한국성을 구현해낼 것이냐’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루스채플’이다.

루스채플은 학생회관과 세브란스 병원 사이, 수경원이 있었던 언덕 위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주변의 분주함과 다른 고요함이 머무는 곳. 커다란 지붕이 떠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건축물은 건축가 김석재의 1974년 작업이다. 한국 근대건축의 거장, 김중업의 제자였던 김석재는 김중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전통건축의 조형적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안하는 것에 몰두하였는데, 루스채플 역시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루스채플의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려 17m나 뻗어나온 거대한 지붕이다. 이러한 거대지붕이 가능했던 것은 철골구조를 이용한 '캔틸레버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캔틸레버보, 일명 외팔보는 철골, 철근 등의 재료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에나 가능했던 건축형식으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Falling Water) 등이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건물 입구에 주로 설치된 캐노피<sup>26)</sup> 등이 대표적이다. 루스채플은 캔틸레버 구조를 지붕에 사용하였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대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이 지붕은 그 내부가 구조적 부재들을 제외하고는 비워져있으며 외피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덮

25) <연세춘추>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8>

26) 캐노피(Canopy) : 건물 입구 등에 돌출되어 설치된 지붕 혹은 덮개.

여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체이다. 지붕의 하중은 내부철골구조에 의해 수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전달됨에 따라 아래로 처질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으며, 수평으로 전달된 하중은 하부에 있는 6개의 기둥으로 전달되어 전체 건축물의 구조를 형성한다. 심지어 하부의 6개 기둥들은 외부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 루스채플의 지붕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Falling Water)

루스채플의 캔틸레버 구조를 이용한 형태는 한국 건축의 지붕과 처마가 만들어내는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변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통건축이 길게 뻗어 나온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 ‘공포(栱包)<sup>27)</sup>\*\*’라는 부재를 사용하였듯이, 루스채플에서는 길게 나온 지붕을 지지하기 위하여 캔틸레버보라는 새로운 시대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루스채플은 1960년대 후반 ‘한국성’을 찾기 위한 한국 현대건축의 고민을 담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구현해내고 있는, ‘전통’과 ‘첨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건축이다. 배흘림기둥을 닮은 듯한 기둥의 모습이나 기둥머리 부분의 모습, 종이 있는 부분을 둘러싼 구조체 모두 전통건축에서 모티브를 따오고 있다. 채플 앞에 있는 ‘종’ 역시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중세 교회에 있던 종탑을 한국적으로 해석해내어, 수직적 배치가 아닌 수평적 배치로 한국의 전통적인 종을 위치시켜 루스채플이 가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캠퍼스 안에는 각 시대의

27) 공포(栱包) : 전통건축의 처마 끝 하중을 받치기 위해 나무부재로 짜맞추어 댄 부분.

화두에 응답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수 있다. 그중 하나인 루스채플을 소개하며 1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간직한, 100여 년 동안의 한국 근현대건축의 질문들을 간직한 캠퍼스 내 건축물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이연경 학부대 학사지도교수

#### ④ 춘천화교소학교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인 중화민국인인 화교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만주, 북한 지방, 일본과의 연결이 끊기면서 한반도 남부의 화교들은 중계무역 등을 독점하게 된다.

\* 당시 화교의 숫자는 북부 지방에 5만, 한국에 2만 정도.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북부에 살던 화교들 중 약 1만 명이 중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월남한다. 장제스는 중화민국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확전을 원치 않던 미국은 거절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화교들은 상업을 포기하고 요식업에 주력한다. 그러나 1950년 창고봉쇄령과 화폐개혁, 1962년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등으로 몰락하기 시작한다. 화교 요식업자들은 토지 소유 제한으로 대규모 영업장 운영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른다.

1992년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 대만 정부는 부지를 그대로 중국에 넘겨주게 되고 청천백일기가 내려가고 오성홍기가 올라가게 된다.

춘천에는 화교가 하는 중국음식점이 있으며, 일부 춘천 화교는 한의원도 하고 있다. 화교학교가 있었으나 입학학생이 없어 2001년 들어 문을 닫게 된다.



1990년대 수업(강육재님 제공)



1990년대 졸업식(강육재님 제공)



1990년대 화교소학교 교실(강육재님 제공)



1980년대 쌍십절(강육재님 제공)



1980년대 화교 관련 제례(강육재님 제공)



1990년대 춘천화교소학교(강육재님 제공)



2000년대 춘천화교소학교 (강육재님 제공)



2000년대 춘천화교소학교(강육재님 제공)



현 춘천화교소학교



현 춘천화교소학교

- [관련논문] 강원도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 190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 II. 강원도화교의 형성<sup>28)</sup>

### 1. 강원도 화교의 인구 추이

강원도에 화교가 정착하기 시작한 정확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단, 1910년의 『朝蘇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하면, 강원도의 외국인 인구가 중국인(화교) 18호:44명, 프랑스인 3호:3명, 미국인 1호:4명인 것으로 볼 때, 화교의 정착은 1910년 이전에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29)</sup> 화교는 강원도의 도청소재지가 있는 춘천에 11호:23명이 거주하여 가장 많았다.<sup>30)</sup> 화교의 각 지역 정착 연대는 서울 1882년, 인천 1883년, 부산 1884년, 원산 1884년, 목포 1893년, 진남포 1897년, 군산 1899년, 대구 1905년, 신의주 1906년, 청진 1908년이었다. 화교의 개항장 도시 정착은 1900년 이전에 거의 이뤄진 반면, 내륙 도시인 대구의 경우는 1905년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강원도는 개항장이 없고 철도가 부설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내륙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1900년대에 화교가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의 각 군별 화교 인구 통계가 『朝蘇總督府統計年報』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12년이였다. 이 통계연보에 춘천은 11호:27명(남17, 여10), 원주 6호:12명, 강릉 2호:7명, 양양 1호:3명, 금성 2호:2명, 평강 40호:612명, 이천 2호:2명, 철원 4호:10명, 금화 2호:3명, 양구 1호:1명, 인제 1호:4명이였다. 이 가운데 평강군에 화교 40호 61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쿨리(단체로 이주한 단순육체노동자)로 보이며 정주자라기보다 체류자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917년 평강군의 화교 인구가 6호:16명으로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쿨리가 아닌 강원도 정착 화교는 형성 초기 춘천, 원주, 강릉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했다. 거주 화교의 인구를 남녀별로 나눠보면, 1916년 인구 251명 가운데 남성은 247명, 여성은 4명, 1919년 인구 410명 가운데 남성은 393명, 여성은 17명으로 극단적으로 여성 인구가 적었다. 이것은 화교의 이주가 가족 단위가 아니라 출가형 이주라는 이주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성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화교 총인구 가운데 강원도 화교가

28) 이정희 (2017) 강원도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 190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30, 110-138

29) 朝蘇總督府 r朝蘇總督府 統計年報 明治卅一年, 1912, 131-151쪽.

30) 朝蘇總督府, 앞의 자료, 124쪽. 1910년 춘천 거주 일본인의 호수 및 인구는 112호:309명, 조선인은 352호:2,299명이였다.

차지하는 비중은 1916년 1.5%, 1919년 2.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20년대 들어 강원도 화교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함 추세를 보였다. 화교 인구는 1921년 507명에서 1930년(a)에는 1,004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193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국세조사 상의 인구는 2,587명으로 집계되어 1921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 된다. 이 기간 조선화교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2.7배, 3.7배인 것과 비교해볼 때 강원도 화교의 인구증가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 화교 인구에서 차지하는 강원도 화교의 비중은 1930(b) 기준으로 2.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1930년대 강원도 화교 인구는 1931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1937년 다시 급감하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화교 전체의 인구 추이와 비슷하다. 1931년 인구의 급감은 1931년 7월의 화교배척사건과 9월의 만주사변의 영향으로 인한 귀국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1937년 인구의 급감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의 영향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단, 강원도 화교는 이 두 번의 사건의 영향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1931년의 화교 인구 감소율은 1930년에 비해 -66.3%, 전국 평균 감소율의 -45.8%보다 훨씬 심했다. 1937년의 감소율은 1936년에 비해 -71.5%, 전국 평균 감소율의 34.5%와 비교하여 극단적인 감소율을 보였다. 그 원인은 강원도 화교 인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두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강원도 화교의 인구는 전국 화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로 떨어졌다. 1930년대 강원도 화교의 인구는 1천명을 회복하지 못했고 1940년에 이르러 비로소 1,049명으로 1천명 대를 회복하며 해방 직전인 1944년 5월에는 1,028명을 기록했다.

## ⑤ 춘천향교 - 춘천도호부의 儒道場



춘천향교 명륜당

향교(鄕校)는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으로 성현(聖賢)에게 제사를 올리고 유생(儒生)들에게 유학을 교육하던 곳이다. 춘천향교는 조선 초기에 설립되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집(於于集)에 따르면 1520년(중종15)에 부사 이만손(李萬孫)이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594년(선조27)에 부사 서인원(徐仁元)이 고쳐 지었다. 한국전쟁으로 대성전(大成殿)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1960년에 복구하였고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춘천향교 장수루 (藏修樓)

춘천향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익공집이다. 춘천이 도호부였기 때문에 다른 군현의 대성전 건물보다 정면 칸수를 크게 잡았고, 정문에는 높은 주춧돌을 세우고 팔작지붕의 누각을 올려 위세를 갖추었다.



춘천향교 대성전

대성전에는 중앙에 공자(孔子)를 비롯하여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등 5성과 좌우편에는 아국(한국) 18현, 송나라(중국) 2현 등 25위의 위패(位牌)가 봉안되어 있고 대성전 앞 좌우에는 동무(東?)와 서무(西?)가 있다. 또한 춘천향교에는 강론을 하던 명륜당(明倫堂)과 유생들이 기숙하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교수 1명이 유생 70명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향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진사 자격으로 다시 성균관(成均館)에 입교하여 소정의 교육을 거쳐 과거에 응시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 이후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향교는 옛 성현의 제사만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석전제(釋奠祭)를 봉행(奉行)하고 있다.

- 현지 안내문



왼쪽부터 부사업황흥학비, 지계사호성비, 장헌근모성비

홍살문 옆에 당(唐)나라 때 인물인 피일휴(皮日休)의 공부자묘정비(孔子廟庭碑)가 있다. 또한 반창균(潘昌均)의 부사업황흥학비(府使嚴愧興學碑), 이정현(李廷顯)의 지계사호성비(池繼泗護聖碑), 군수 장헌근모성비(張憲根募聖碑)가 세워져 있다.

⑥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sup>31)</sup>

구분	국가등록문화재 제107호
수량/면적	1동, 2층 / 336.2㎡
지정(등록일)	2004.09.04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춘천시청)
시기	1960년 전후
소유자(소유단체)	춘천시

해방 후 강원도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자연스레 강원도지사 공관의 건립도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공관 건립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강원도가 펴낸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지사 공관의 건립 시기를 1964년 11월 1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가 일자가 1959년으로 정리된 건축물대장과 4·19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

31) 『월간문화재사랑』 2017년 4월호.

지 강원도 내에 자유당 권력이 강력했던 점, 그리고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대근 전 춘천문화원장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1960년 이전인 1959년에 강원도지사 공관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건물은 1998년까지 강원도지사 공관으로 사용되다가 1999년 1월 25일 춘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3월 18일 춘천문화원이 이전해오면서 건물의 용도가 크게 변화했다. 주거의 기능을 하던 공간은 업무·강의 등의 문화원 용도에 맞게 변경공사를 진행했다. 춘천문화원이 2010년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건물은 춘천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을 담당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춘천시청 뒤편에 위치한 옛 춘천문화원 건물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있는 데다가, 건물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어 외부 사람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당시 고위 인사들이 이곳에서 도정을 논의하거나 상류층의 접객 장소로 배려되었음을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확연히 알 수 있다. 길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가면 작은 규모의 흰 건물에 툇 튀어나온 캐노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차량이 직접 현관 입구까지 진입해 승하차 시 편리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캐노피의 하중을 지탱하는 V자형 기둥은 일종의 승리를 상징하도록 의도해서 만든 듯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표현주의적 건축성향을 보이는 디자인이 매우 우수한 건축물로 근대주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옛 춘천문화원의 평면 구성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덧붙여가는 비대칭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관공서의 대칭적 배치가 권위적 상징으로 통하던 당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형태로서 설계자의 의도 혹은 도지사의 건축적 식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계단의 50cm 남짓한 난간에 걸레받이, 난간벽, 황동 손잡이를 조화롭게 설치했고, 계단의 모서리에서 꺾이는 콘크리트 난간벽과 황동 손잡이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하여 세밀하게 시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의 가장 넓은 2층 강의실은 한쪽 벽 대부분을 긴 창으로 처리해 난간과 외부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갖게 했다. 이렇듯 강원도지사 공관이 건립되던 시기의 근대건축이 가진 특징을 반영하여 평활한 백색 평면, 넓은 유리창,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방지하고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루버(louver: 가느다란 널빤지로 빛대는 창살)를 부분적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당시 전후복구라는 시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주의 건축양식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을 것이다.

옛 춘천문화원 건물은 1950년대 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나 건축이 반

영하는 사회상 등을 고려할 때 보기 드문 근대건축물로 인정받아 2004년 9월 4일 등록문화재 제107호로 등록·관리되어 오고 있다.

현재 춘천시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옛 춘천문화원에 대한 이전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에서는 이전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하고 문화재가 가진 역사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춘천의 새로운 청사는 근대건축물을 품은 전국 유일의 청사가 되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춘천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증받아 시의 행정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문화공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당시 강원도지사 구 관사  
(문화재청 제공)



현 춘천시청 앞 강원도지사 구 관사

## (2) 나무

① 위성류 (춘천미술관)<sup>32)</sup>

위성류는 위성류과(타마리카케아이 Tamaricaceae) 위성류속(Tamarix)으로 분류된다. 분류상 위로 더 올라가면 '제비꽃목(비올라레스 Violales)'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의 APG 분류체계에서는 석죽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향은 중국이어서 종소명에 '중국(산)의'라는 의미의 키넨시스(chinensis)가 붙어 있다. 영어 꽃이름은 Chinese Tamarisk를 쓴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은 위성류속 식물 4종을 올려놓고 있다. 위성류, 향성류, 파르비플로라위성류와 라모시시마위성류의 한 품종을 올려놓고 있다. 위성류속의 영어 꽃이름은 Tamarisk 또는 salt cedar를 쓴다. salt(소금)가 붙은 이유는 즐겨 사는 생태와 관련이 있다. 이 속의 식물은 세계적으로 50~60종 정도가 있다.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고 짠내 나는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이다. 맹아력은 좋지만 성장 속도는 아주 느리다.

속명 타마릭스(Tamarix)는 이 속명의 꽃나무를 Tamaris강 유역에서 처음 발견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Tamaris는 스페인에 있는 탐브레강(Tambre river)의 옛 이름이다. 강의 위치는 스페인 북서 대서양 쪽 지역이다. 바다와 가깝다.

중국에서는 위성류를 柽柳(cheng liu 정류)로 부른다. 柽은 檉의 간체자이다. 檉을 우리는 '위성류 정'이라고 읽는데, 재미있는 것은 '능수버들 정'으로도 읽는다는 것이다. 겉모습이 비슷하니 글자도 동일한 것을 쓴다. 중국에서는 柽柳(chengliu) 이외에도 观音柳(guānyīnliǔ 관음류), 红柳(hóngliǔ 홍류), 三春柳(sānchūnliǔ 삼춘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교류우(ギョウウ)라고 부른다. 한자로 쓰면 檉柳 또는 御柳를 쓰고 있다. 御柳는 '양귀비가 사랑한 나무'여서 御자를 썼다는 설명이 일본 자료에서는 보인다. 발음때문에 께맞춘 느낌이 든다. 교류우(ギョウウ)는 檉柳, 중국 꽃이름을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御柳는 일본만이 쓰는 이름이다.

32) 출처 : 정태현 외 3의 <조선식물향명집, 1937>



2014년 당시 춘천미술관 앞 위성류  
(이수응님, 춘천중앙교회 제공)



현 춘천미술관 앞 위성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성류(渭城柳)로 부르고 있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은 위성류 국명(추천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성류는 <조선식물향명집, 1937>에도 나오고 더 오래된 자료인 <조선식물명휘, 1922>에도 나오는 우리식 꽃이름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꽃이름을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조선식물명휘는 '위성유(Uisongyu)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식물향명집은 본문과 목록이 다르나 본문은 '위성류'로 기록하고 있다.

위성류(渭城柳)의 위성(渭城)은 한문 익힌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다. 위성(渭城)은 바로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 수도였던 셴양(咸陽 함양)의 옛 이름이다. 진나라는 바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이다. 그래서 중국 문헌을 읽었던 지배층들에게 익숙한 나라였다. 한시(漢詩)에서는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를 '위성곡(渭城曲)이라고도 하였다.

위성류(渭城柳)는 결국 아름다운 이 꽃나무가 버드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에서는 전래된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 나무 이름으로 보인다. 이 동혁의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2014>는 '버드나무를 닮았고 중국 진나라의 수도 위성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성 즉, 중국의 셴양(함양)은 산시(Shaanxi)성(陝西省) 섬서성은 우리가 잘 아는 중국어로 시안 Xian인 西安서안이 섬서성의 주된 도시이다. 셴양은 시안과 40여 km 떨어져 있는데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안시와 셴양시로 바

로 붙어 있는 도시이다)에 있는데, 위성류는 안후이, 허베이, 허난, 장수, 라오닝, 산둥 등 중국 서해안 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위성류가 '양귀비가 사랑한 나무'라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내륙도시인 당나라의 수도 장안(지금의 西安西安)에도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많이 심겨졌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만약 인위적으로 원예종 형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시기가 상당히 이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성류는 5~7월에 총상꽃차례로 핀다. 재미있는 것은 1년에 꽃이 두 번 핀다는 것이다. 봄철에 피는 꽃은 2년지(가지)에서 나오며 꽃이 크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고(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여름철에 피는 것은 새 가지에 달리며 꽃이 작고 열매를 맺는다. 꽃받침조각은 달걀모양으로 5장이며, 꽃잎은 원형으로 5장이다. 수술은 5개이고 씨방에는 곤봉형 3개의 암술대가 있으며 밀선반은 10개로 갈라진다.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은 위성류를 재배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위성류를 재배식물(원예종)으로 생각한다면 처음에 조경수나 정원수 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것도 삼국시대 등 아주 이른 시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생식물이라는 유력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Wikipedia(영문)는 아예 위성류의 고향을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로 기재하고 있다( It is native to China and Korea.). 중국 동부 해안과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이 자라는 걸 보면 자생식물로 생각할 수 있다.

- 신문기사<sup>33)</sup>

### [나무 따라가는 춘천여행] 춘천미술관 위성류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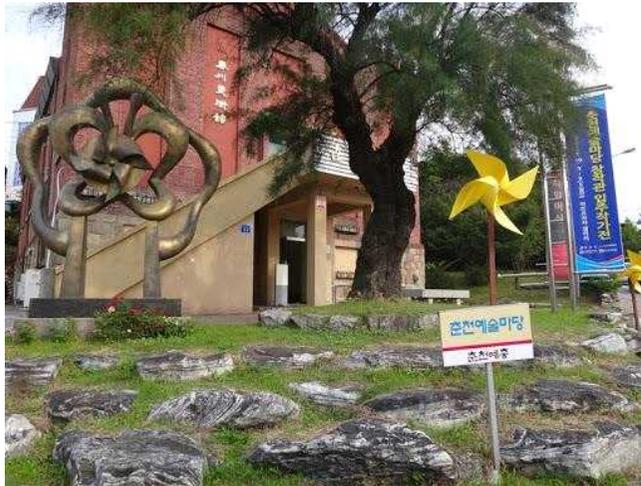
춘천미술관 입구를 지키는 나무가 있다. 이름도 특별한 위성류(渭城柳)다. 잎은 소나무처럼 보이고 가지는 버드나무처럼 늘어져 보인다. 낙엽 활엽수 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지다.

이 나무는 춘천미술관의 전신인 춘천중앙교회와 관련이 깊다. 성경에서는 에셀나무라고 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

33) <춘천사람들>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3>

남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팔레스타인)의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서로 평화할 것을 요청받는다. 이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명세의 우물)에서 서로 언약을 세우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는다'고 적고 있다.

위성류는 지중해 연안에서 중앙아시아 북쪽으로 중국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염분이 낀 사막이나 바닷가, 산악지대 및 반건조 지대에서 자란다. 이 나무는 가뭄, 염분 있는 토양에도 잘 견디며 사막지대 방풍림으로 심는다.



춘천중앙교회 역사를 증언하는 나무

### 평화·생명의 나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성류는 중국 원산으로 신장 위구르자치구나 감숙성 일대에서 자라는 나무다. 다른 나무가 말라죽는 악 기상에도 위성류는 잎이 가늘어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땅속 30m까지 뿌리를 내려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으로 살아남는다.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흔한 상록수인 위성류는 다른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 자생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생명의 나무라고 불린다.

중앙감리교회는 춘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98년 서울 남송현교회(현 광희문교회) 선교부가 춘천을 방문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사용했던 요선동 예배당이 6.25전쟁으로 완전파괴돼 임시 예배소로 덜 파괴된 병원 건물을 사용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흐를 정도로 열악한 예배당 환경 개선을 위해 미 감리회 선교부에서 제공한 500만원과 교인들이 모은 교회 복구비 100만원을 합쳐 옥천동 춘천중앙교회(현재 춘천미술관)를 건축했다. 옥천동 73번지에 대지 658평, 연건평 172평, 2층 벽돌 예배당이 모습을 드러내 1955년 10월 18일 봉헌예배를 가졌다.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는 춘천중앙교회가 지어진 후 기념수로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무의 수령은 100년 정도이며 나무 표피가 세로로 갈라지면서 다양한 문양을 보여 춘천미술관 문지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1년에 두 번 꽃 피우는 나무

위성류 나무는 기상과 관련이 깊어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를 먼저 알아 기를 움직여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서리와 눈 아래에서도 얼지 않아 예부터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왔다.

줄기가 버드나무처럼 늘어서 버들 류(柳)라는 이름이 붙었다. 비를 관장한다고 해서 우사(雨師)라고도 불리며, 비를 맞으면 실처럼 늘어서 우사(雨絲)라고도 불렸다. 또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사람을 닮았다고 해 인류(人柳), 길게 늘어서 장수하는 사람을 빗대 장수선인류(長壽仙人柳)라는 예칭도 있다. 1년에 3번 꽃이 핀다고 해 삼춘류(三春柳)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사실 꽃은 1년에 봄과 여름 두 번만 피운다. 5월에 피는 꽃은 묵은 가지에 달리며 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8~9월에 피는 것은 새로 난 가지에 달리고 작으나 열매를 맺는다. 나무 높이는 5m 가량으로 과거 양반가에서 정원수나 연못가의 풍치목으로 심었다.

김남덕 (강원사진연구소장)

## ② 목백합 (옛 춘천여자고등학교)

목련목(木蓮目 Magnoliales) 목련과(木蓮科 Magnoliaceae)에 속하는 북아메리카산 관상용·목재용 교목이다. 우리 말로는 목(木)백합, 백합나무, 툴립나무라고도 하며, yellow poplar, whitewood라고도 한다.

포플러와는 유연관계가 없다. 북아메리카 동부의 혼합 활엽수림에 분포하는데, 이 지역의 다른 활엽수들보다 크게 자라 지름이 2m 이상, 키가 60m에 이르기도 한다. 잎자루가 긴 밝은 녹색의 잎은 좌우대칭으로 2갈래 또는 4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잎끝이 직선이거나 넓게 V자형으로 패어 있다. 잎은 가을에 황금색으로 변하며 잎자루 아래쪽에 큰 턱잎[托葉]을 가진다. 노란색이 감도는 녹색의 큰 꽃은 툴립처럼 생겼는데, 아래쪽이 노란색인 꽃잎 6장과 밝은 녹색의 꽃받침잎 3장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날개가 있는 열매가 줄기 끝에 구과(毬果)처럼 뭉쳐 달리는 점, 향기가 나고 자줏빛이 도는 갈색의 어린 가지에 오리의 부리를 닮은 겨울눈[冬芽]이 있는 점, 쪽 뺨은 줄기에 긴 타원형의 수관(樹冠)을 이루는 점 등이 특징이다. 툴립나무는 약 200년이 되어야 완전히 자라게 된다. 목재는 밝은 노란색에서 노란빛이 감도는 녹색으로 가구재, 합판 패널, 종이, 목공제품, 상자 및 나무상자 등을 만드는데 쓴다. 툴립나무는 병충해에 비교적 강하며, 이 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한 장소에서는 큰 녹음수로 유용하다.

백합나무라고도 한다. 북아메리카 원산이다. 높이 약 13m이다. 나무껍질은 잿빛과 검은빛이 섞인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넓고 둥근 달걀모양이며 길이와 나비는 6~18cm 정도이다. 버즘나무의 잎끝을 수평으로 자른 듯이 보이며 턱잎이 겨드랑이를 둘러싼다. 잎자루는 길이 3~10cm이다. 꽃은 5~6월에 녹색을 띤 노란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지름 약 6cm의 툴립 같은 꽃이 1개씩 달린다. 꽃받침조각은 3개, 꽃잎은 6개이다. 꽃잎 밑동에는 주황색의 무늬가 있다. 암술과 수술이 많고 꽃이 진 다음 꽃턱이 길이 7cm 정도 자란다. 열매는 폐과로서 10~11월에 익으며, 날개가 있고 종자가 1~2개씩 들어 있다. 미국에서는 생장이 빠르므로 중요한 용재수(用材樹)로 쓰나 한국의 중부 이남에서는 관상용으로 심는다.

생장속도가 빠른 나무인 관계로 목재의 재질이 약해 건축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펄프제조기술이 발달한 20세기에 들어서 매우 중요한 펄프용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햇볕이 잘 들고 편평하며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학명이 '리디오텐드론' 이기 때문에 백합나무라고도 불린다. 미국목련, 목백합, 노랑포플러라고도 불린다. 한방에서는 나무껍질을 '미국아장추'라 부르

며 해수, 천식에 사용한다. 열매가 떨어지기 직전에 열매를 따 2~3일간 그늘에 말려 씨를 얻는데, 건조에 약하므로 씨를 뿌린 다음에도 짚을 덮어 주는 것이 좋다.



2010년 춘천여고 당시 목백합  
(장승진님 제공)



2012년 춘천여고 당시 목백합  
(장승진님 제공)



2018년 춘천시임시청사 당시 목백합



현 춘천시청 별관 앞 목백합

• [블로그] 춘천여고 목백합은 아직도<sup>34)</sup>

1934년 4월10일 춘천공립고등여학교로 개교한 후 올해로 개교81주년을 맞은 춘천여자고등학교는 춘천시 교동 36번지에서 2012.11.16일 구교사 고별식에 이어 춘천시 동면 만천양지길 95번지로 2013년 1월 25일 신축교사 준공식과 함께 이전하였습니다. 학교는 이전하였지만 그간 춘천여고의 상징이며 교목인 목백합은 아직도 구 춘여고 교정을 의연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춘천여고를 졸업한 분들에게는 추억이 담겨있을 구 춘천여고 교정을 저도

34) 인용 <http://blog.daum.net/khydong/15705864>

옛 생각이 나서 아쉬운 마음으로 둘러봅니다.

딸아이들이 춘천여고에 다닐 때 밤늦게 야자가 끝나면 아이를 데리러 가서 체육관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특히 우리 딸들은 왜 그랬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교실에서 나왔고, 늘 도시락 보따리가 커서 (예전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지요. 밥, 반찬, 과일, 물...) 그게 눈에 띄었던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런데 이 학교 졸업하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서면 옛 생각에 잠기시게 되겠어요.

### ③ 은행나무 (춘천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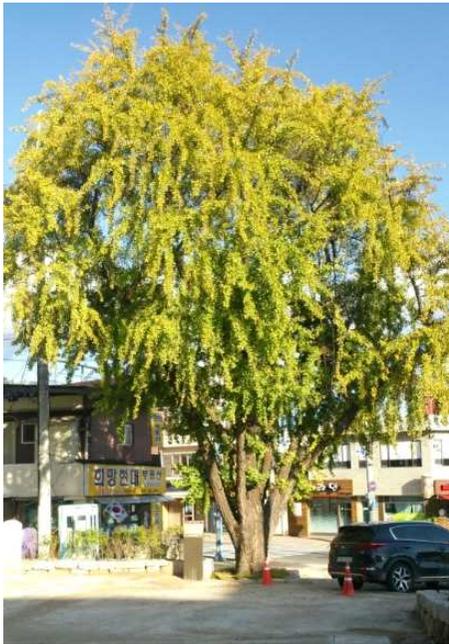
은행나무(銀杏--, 학명: Ginkgo biloba)는 겉씨식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이다. 공손수(公孫樹), 압각수(鴨脚樹)로도 부른다.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가을에 잎이 노랗게 물들며, 가로수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은행나무문에서 유일하게 멸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나무이다.

어느 향교를 가든지 오래된 은행나무가 정문 앞이나 향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향교를 건립하면서 심은 것이므로 나무의 수령은 곧 향교의 설립 햇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나무는 공자 선생께서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향교의 은행나무를 보면서 학생들은 공자의 정신을 기렸다.

강원도 춘천시 교동 춘천 향교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있다. 수형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250년 이상의 나이를 먹었으면서 향교 앞에 있는 나무로 학사목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보호수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으로부터 289년이 된 이나무는 18세기 초엽에 심었다는 것으로 조선 영조대왕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시는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하였다.<sup>35)</sup>

품격	춘천시나무
고유번호	강원 - 춘천 - 13
수종	은행나무
수령	289년(2020년 기준)
수고	18m
유형	명목
나무둘레	340cm
소재지	춘천시 교동 27-1
지정일자	1982.11.13



2016년 향교 은행나무<sup>36)</sup>



현 향교 은행나무

35)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강원도 춘천시 보호수표준데이터 \* 데이터 기준 : 2019.08.14.  
<https://www.data.go.kr/dataset/15024511/fileData.do>

36) 출처 : <https://blog.naver.com/culturecre/220834865141>

• [블로그] culturecre의 문화이야기<sup>37)</sup>

보호수는 마을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는 ‘정자목’과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공부에 지친 몸을 쉬면서 다시 공부하기에 전념하라고 서당 같은 곳에 심어진 ‘학사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정자목이 종교적인 의미가 가해졌을 때 ‘당산목’이라고 한다, 보통 서당, 사찰, 향교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 건물들의 역사와 함께 했기에 그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나무 모양이 기괴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노래되지 않을 수가 있다. 춘천향교 은행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다. 그러니까 향교 안에 있다는 면이 보호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다. 보호수 지정은 최하 100년을 넘겨야 하는데 이 은행나무도 간신히 100년을 넘겨 120년이 되었다.

37) 인용 <https://blog.naver.com/culturecre/220283589882>

## 7) 현재 거주지역 주민 및 생업을 유지하는 지역민의 인터뷰에 기반한 스토리

## (1) 강육재(姜育財)



나이	62세(1959년생)
출생지	대만
거주기간	30년
	전 춘천화교소학교 교장 옥천길 53-1 현재 거주

## 주요스토리

- 1990년에 춘천화교소학교 교사임명을 받아 춘천에 왔음.
- 교사 3년 지나자 교장을 하라고 추천. 교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음.
- 2009년에 학생이 없어 폐교. 2001년부터 중국학생이 없어서 한국학생들이 와서 공부했음.
-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어머니 만남.
- 대만에서 태어나 3살 때 한국으로 왔음.
- 형수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음.
-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대학을 대만으로 갔음.
- 누나가 70년에 춘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음. 방학 때 춘천에 자주 왔었음.
- 춘천은 인구나 건물이나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내가 왔을 때 학생이 10명이었음. 예전(1960년대)에 가장 많을 때는 150명이었다. 춘천지역 학생은 4,50명. 중국 사람이 적어도 4,50 가구가 있다는 의미.
- 낙원동과 요선동에 중국인이 가장 많았음. 1960년대 낙원동, 요선동은 차이나타운이었음.
- 양구, 화천, 가평, 청평, 횡성, 홍천에서 춘천화교소학교로 왔음.
- 차이나타운은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됨.
- 중국문화카페 유래: 1983년 '대의빈'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춘천에 민항기 도착 때 내렸음. 한국에서 은혜를 입어서 춘천을 잊지 않고 아들이 다시 찾아와서 건물을 구입.
- 본토와 대만의 관계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유사

- 대만 축제 때는 대만국기를 들고 문화 활동을 하고, 중국본토 축제 때는 오성기를 들고 문화 활동을 하기도 함.

- 춘천화교소학교에서 중국 문화활동을 하고 싶으며 장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음.



인터뷰 모습



화교소학교 교원자격증



춘천화교소학교에 관한 이야기



당시 춘천화교소학교에 관한 사진자료



옥천동 우물터에 관한 증언



옥천동 샘터에 관한 증언

(2) 김기태



나이	86세(1935년생)
출생지	강원도 삼척시
거주기간	30년 옥천길40번길 32 과거 거주 춘천중앙교회 원로장로, 전교육공무원

주요스토리

- 1972년 삼척에서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왔음.
- 교동에서 3년 거주하다가 옥천동으로 이사. 2005년까지 살다가 현재는 만천리로 이사.
- 주변에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했음.
- 처음에는 골목도 좁고 비포장인 곳이 많았음.
- 골목에 작은 점포들이 있었음.
- 큰 우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함.
- 문선재 전 강원대 총장이 옥천길 60에 살았음.
- <옥천길> 끝 계단의 모양이 달라졌음. 지그재그로 좁았으나 현재는 넓고 편하게 되었음.
- 봉의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전에는 계단이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 동보빌라는 예전에 미선교사 사택이었음.
- 현 예총 건물 중 1,2층은 유치원건물이었고, 3,4층은 교회교육관이었음. 뒤쪽에 두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헐렸음.
- 강원도교육청(현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발령받아 갔을 때, 큰 은행나무가 있었음. 누가 언제 식수했는지 알지 못함.
- 지금의 한어울 식당은 예전 옥천목욕탕이었음.
- <옥천길>과 <옥천길40번길>로 성심여대 학생들과 유봉여고학생들이 많이 다녔음.



강원도교육청 시절에 관한 이야기



봄내극장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당시 춘천중앙교회에 관한 이야기



춘천중앙교회와 위석류에 관한 이야기



옥천길과 우물터에 관한 증언



옥천동 우물터에 관한 증언



교통과 옥천길40번길에 관한 과거 이야기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3) 이무상



나이	81세(1940년생)
출생지	춘천
거주기간	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교동 93-40번지 등 교동일대 과거 거주
	시인

주요스토리

- 서면 현암리에서 태어나 교동에서 생활함
- 선친께서 향교 장의를 오래하셨음. 소양한사회 모임 이끄심.
- 한국전쟁 후 현 교동교회 바로 뒤편(에서 7-8년 살았음.
- 그 후 유봉여고 올라가는 길목으로 이사해서 살았음.
- 예전에 향교 앞으로 해서 옛 춘여고를 지나서 옥천길을 지나서 관아로 들어감
- 중앙로가 30년대 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나다님.
- 백고개를 지나다녔는데, 두 가지 유래가 있음. 토질이 하아서 백고개이고, 위쪽 잣고개에 이어져서 잣 백(柏)를 써서 백고개라고 불렀다고 함.
- 시백 안중중 씨와 잘 아는 사이. 옥천동 작품소장고에 자주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음.
- 이전 시의회 자리에 예전에 양로원이 있었음. 고아원은 한림병원 건너편에 있었음.
- 고아원 아이들이 교동초등학교, 강원중학교에 많이 다녔음.
- 시청 옆에 허문(虛門)이 있었음. 관하 들어가는 홍살문이 제일은행 바로 옆에 있었다. 당시에 허문리라고 부르기도 했음. 일제 강점기에 없어짐.
- 현재 춘천화교소학교, 우물부터 위쪽 지역이 관원들이 살던 지역.
- 우물 바로 옆집에 미인도로 유명한 장운상 화백이 살았음. 권진규 선생보다 조금 앞대.
- 이외수 작가가 한우물의 격외선당에 살았음.
- 우안 최영식 화백의 화방이 향교 골목으로 조금 올라가서 <삭주로35 2층>에 있었음.
- 1961년에 향교에서 명륜중학원을 열었음. 후에 춘천명륜고등공민학교

(1963~1981년)가 되었음. 명륜중학원에서 수학을 6개월 정도 가르쳤음.

- 지금은 공터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집(향교옆길21번길)에서 살았음. 최수철 작가와 아래 윗집에 살았음.



인터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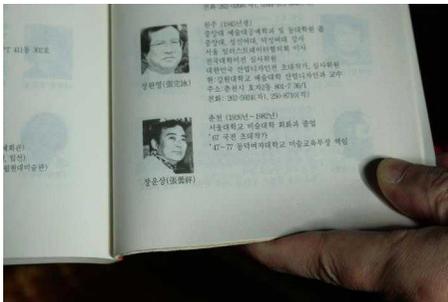
교동에서의 삶과 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



향교골시첩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



자료를 찾고 있는 이무상 시인



목불 장운상 화백에 관한 이야기



서재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 이무상 시인

#### (4) 이외수



나이	75세(1946년생)
출생지	경상남도 함양 (강원도 인제에서 성장)
거주기간	2년(1975년 ~ 1976년 강원일보 근무) 당시 향교뒷길 4 부근 거주
	소설가

##### 주요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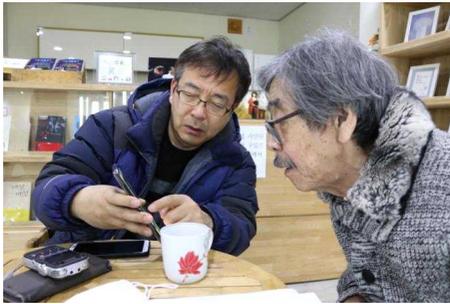
- 옛 춘천여고 뒤 한옥 단칸방에 거주했다.
  - 이 기간에 강원일보에 연재하고, 삽화 그림, 어린이신문 편집 등의 일을 했다.
  - 업무량이 많아 집에 가지고 와서 일하기도 했다.
  - 에피소드 : 춘천역에서 검문을 당함. 장난감 권총을 내밀었음. 당시 권총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긴장하던 상태.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을 때 강원일보 부장을 통해 석방. 산문집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에 자세한 내용 들어있음. 후에 창작판소리로 공연되었다.
  - 옛 춘여교 뒤편 교동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다. 장모님이 몸 보양하라고 닭을 가지고 오셔서 잡아주시기도 하였다.
  - 『칼』(1982년)이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 현 교동 한우물터 자리에 있는 <격외선당>을 구입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 <격외선당>에서 많은 소설을 저술함. 『장외인간 1』(2005년)까지 완성.
  - 이외수에게 교동은 문학의 산실이다.
  - 소설 속에 춘천 전 지역이 나온다.
- 노영일 한테크 대표에 의해 공지천에 황금비늘 테마거리를 조성되었다. 생존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한 경우는 거의 유일하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 아쉽다.



인터뷰 모습



강원일보 근무 시절에 관한 이야기



강원일보 근무 당시 거주지에 관한 증언



1970년대 당시 교동에 관한 이야기



교동에서의 작품 활동에 관한 이야기



교동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이외수 소설가



황금비늘테마거리 메인 조형물



황금비늘테마거리 안내문



캐릭터를 활용한 의자



몽도리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



강원일보 기자시절 거주했던 곳



고동 문학의 산실 격외선당

## (5) 박병선



나이	65세(1956년생)
출생지	강원도 춘천시
거주기간	65년(교동 출생)
	옥천길40번길 30 현재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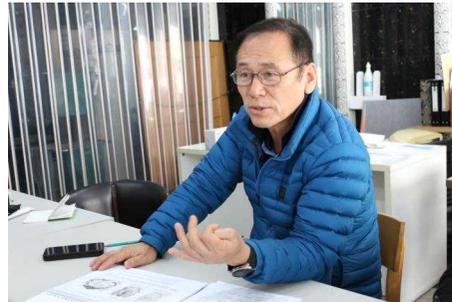
## 주요스토리

- 도시재생에 있어 <옥천길40번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 예전 교동 혈거유지가 현재 옥천동 혈거유지로 바뀌었다. 확인 필요.
- 경찰국장 관사에 우물이 있는데, 가뭄에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어릴 적 그 우물에서 물을 가지러 간 적이 있음. 옛날 관리들이 먹는 물로 추정.
- 의회 안에 우물터를 남겨두었다고 함.
- <봉의산길 22번길> 봉의산 올라가던 길옆에 물레방아(디딜방아)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물이 있었음.
- 동보빌라 자리에 헌병부대와 보안부대가 있었음. 그 위에 처음에는 온통 밭이었음. 3단 밭이 있었음. 1971년 이후 부대들이 이전하고 평지로 메워 2단으로 만들.
- 그 후 포교당이 생김. 처음에는 동보빌라에서 길을 내주지 않아 주민들이 돌아다녔다. 민원을 제기하여 길을 내도록 했다.
- 부대 안에도 우물이 있었음.
- 우물을 중심으로 관사들이 많았고, 지명이 옥천동(玉泉洞)인 것이 그것을 반증함.
- 춘천농고가 교동초등학교(1953년 개교) 자리에 있었음. 확인이 필요함.
- 지역 문학 예술인들이 있음. 예전에는 봉의동이 변화가여서 소설에 등장함.
- 이외수 소설가가 교동에 살았음. 향교 뒤쪽 <향교뒷길 4>쯤에 살았음. 근처에 타올 공장이 있었고 연못이 있었음.
- 이외수를 포함하여 우안 최영식 선생을 살려서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명동을 들러서 봉의산을 오르는 걷기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 예전에 봉의산 순의비 자리에서 개나리 축제를 했음
- 봉의산과 더불어 봉황 관련 조형물을 건립하여 봉황의 의미를 살리며 마을 상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 옥천동 지명을 살린 생수로 또는 샘터길 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 춘천향교와 연계한 전통다례, 선비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 교동, 소양동, 약사명동, 조운동,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원도심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였으면 좋겠다. 춘천시 르네상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과 연관이 깊은 구혜영, 이무상, 이외수, 최수철 등의 작가와 연결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특화하여 문인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 모습



과거 교동에 관한 이야기



교동·소양동의 우물터에 관한 이야기



교동·소양동의 주민으로서 의견

## (6) 현해숙



나이	62세(1959년생)
출생지	강원도 춘천시
거주기간	3년(시내에서 옥천동으로 이주) 옥천길 64 현재 거주

## 주요스토리

- 초등5년 시절 고향이 수몰되어 화천으로 이주했다가 춘천으로 들어왔다가 최근 옥천동 빌라 자가에 거주하였다.
-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의 정기를 받은 옥천동에 살수록 좋다. 그런데 원룸이 많아지고 있음. 무분별한 개발로 조망이 해치고 있다.
- <옥천길 61>에 전 도지사 통역가가 살고 있음. 북카페를 하고 싶어 함.
- 빌라가 많아지는데 주차장이 부족함.
- 봉의산 골바람이 불어서 시원함.
- <옥천길 65> 마당에 우물이 있다. 현 주인이 마당과 화단에 물주는데 사용하는데, 샘터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 남편께서 공무원으로 봉직하셔서 화천에 살다가 춘천으로 이주함.
- 운영하는 원룸에 학생들이 의외로 적음.
-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
- 옥천동 주변에 학생들이 적고 교동 쪽에 많음
- 옥천동은 음식점, 문화 환경이 부족
- 학생들을 문화예술을 통해 유도했으면 좋겠음.
- 문화공간을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음.
- 봉의산, 향교를 연결하는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시백 선생 작품보관소 <옥천길 67>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 예전에는 작가께서 문학생도 키우고 작품 활동도 했었다고 함.
- 현재 공간을 활용하기는 협소하고 부족하기에 안내판을 두어 관람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 춘천미술관을 더욱 활용했으면 좋겠다.
- 봄내극장도 활용할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 도시재생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역량을 결

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적십자 활동을 오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한다.
- 예술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마을 재생사업을 펼치고 싶다. 예를 들어 시백 안중중 작품소장고에 문화사랑방과 같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한다.



인터뷰 모습



옥천길 예술 거리에 관한 이야기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도지사 통역사가 살았던 곳에 관한 증언



옥천길 65에 위치한 우물 현장 증언



옥천길 65에 위치한 우물 현장 증언

## (7) 권영돈



나이	76세(1945년생)
출생지	강원도 강릉시
거주기간	40년(요선동에서 살다 10년 전 옥천동으로 이사) 옥천길 60 현재 거주

## 주요스토리

- 〈옥천길 48-3, 48-5〉 앞쪽에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이 있었음. 원장이 복싱선수여서 원생들에게 복싱을 가르침.
- 잣고개에 디딜방아가 있었음.
- 〈옥천길 57, 59〉 뒤편에 있는 공터에 샘이 있었고, 그 뒤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깊은 굴이 있었음. 그 앞에 목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쉬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음.
- 춘천에서 제일 좋은 동네. 자동차 소리가 안 들림.
- 〈옥천길 59-1〉에 한림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거주하기도 했음.
- 전봇대가 많아 골목이 좁다
- 봉의산 올라가는 길을 정비하면 좋겠다.
- 홍동포 씨를 오랫동안 잘 알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많음. 요선동에서 오가면서 이야기 많이 들음.
- 맑은 개울이 흘렀다고 얘기를 들었음.
- 5개 정도의 우물이 있는데 제일 큰 우물이 〈옥천길 57, 59〉 뒤편에 있는 공터에 샘과 중앙에 있는 큰 우물이다.
- 〈옥천길40번길 5〉 뒤편에 우물이 있음.
- 남아 있는 적산가옥은 〈옥천길40번길 5〉이 유일할 것임.
- 〈옥천길 35-8, 35-10〉 앞에 일제 강점기에 쌓은 돌담이 남아 있음.
- 한국전쟁 후 〈옥천길 56, 58〉 〈옥천길54번길 1, 3-3〉 네 채에 걸친 큰 한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춘천시청이 있었음.



인터뷰 모습



옥천길40번길 5 뒤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



한국전쟁 후 춘천시청 위치에 관한 증언



옥천길57 앞 샘터에 관한 증언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쌓았던 돌담 이야기



옥천길 골목길 이야기



유계순님과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 (8) 흥동표



나이	85세(1936년생)
출생지	강원도 고성군
거주기간	73년(일제강점기부터)
	옥천길 37 사업체 운영 및 거주

## 주요스토리

- 현 춘천미술관은 독일 사람들 병원이었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철수함. 그 당시 초등학생 때였음.
- 한국전쟁 때 인민군 보위국이 들어왔음
- 한국전쟁 때 폭격에 의해 4층 건물의 3, 4층이 파괴됨. 수리하여 춘천농업대학이 잠시 있었음.
- 일제 강점기부터 언덕 위(현 동보빌라 인근)가 독일, 네덜란드 사람 거주지였음.
- 일제 강점기에 옥천동 일대는 다랑논이었고 일본사람들이 많이 거주
- 옥천길을 넓혀서 봉의산에 터널을 뚫어서 소양교와 연결했으면
- 한국전쟁 이전에는 춘천시청이 미군 부대 안에 있었음.
- 지금 시청 자리는 일제 강점기에 말을 두었던 장소
- 한국전쟁 중 수복되면서 1951년부터 <옥천길 56, 58> <옥천길 54번길 1, 3-3>에 춘천시청이 1956년까지 있었음.
- 지금 춘천고 자리가 미군 야전병원이었음.
- 강원교육연구원에 춘천고가 잠시 있었음.
- 한국전쟁 후 도청 일대에 종합학교라고 해서 춘천교대, 농고 등 모든 중학교를 모아두었다가 각각 짓고 분리되었음.
- 옥천길 골목이 개울이었음. 가재도 잡고 잠자리 날던 깨끗한 개울이었음.
- 1960년에 복개되어 사라짐.
- 바로 아랫집인 <옥천길 35>이 이전에는 옥천목욕탕이었는데, 한국전쟁 때는 임시 교도소였음. 밤마다 고문하는 소리를 들었고, 잣고개로 넘어가 현 한림대학교 뒷산에서 처형하여 묻었음.
- <옥천길 45>는 옛날부터 큰 집이었음.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행랑채

가 있었고 머슴이 거주하였음. 아들 둘과 내외가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군 2개 대대가 월북하였음. 머슴 장남이 군대 입대했는데 그 부대가 월북했음. 한국전쟁이 나자 인민군이 되어 내려옴. 주인을 살려줌  
 - <서부대성로 63번길>이 도청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음.



인터뷰 모습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



옥천길 이야기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옥천길 37 사업체 앞

## (9) 나경덕



나이	58세(1963년생)
출생지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12년
	옥천길 45 사업체 운영 및 거주

## 주요스토리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문서를 보니 상당히 오래되었음.
- 현재 집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수리할 때 서까래를 살펴보니 연력이 소화(昭和)로 되어 있었다.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을 알았으며 금강산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함.
- 관사로 쓰다가 음식점이나 여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함.
- 한국전쟁 때 소작인이 거하는 행랑이 있었는데 소작인이 살았다고 함.
- 주인의 성품이 좋아서 머슴의 아들이 북에 갔다가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되어 내려왔는데 주인을 살려주었다고 함.
- 봉의산과 관련하여 마을을 재생하면 좋겠다.
- 전국에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귀한 금속 재질로 봉황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 봉황과 관련한 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
- 특히 밤과 관련된 문화예술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밤과 낮 모두 예술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 되길 희망한다.
- 지역예술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을 예술창작장소를 제공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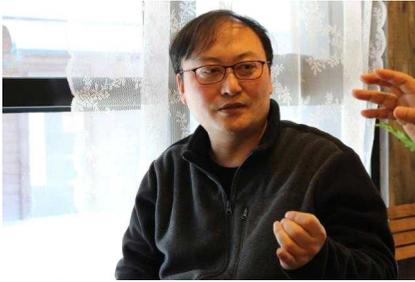


인터뷰 모습



교동·소양동에 관한 이야기

(10) 안용선



나이	46세(1975년생)
출생지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과거 교동 10년 거주
	한국화가

주요스토리

- 시백 안중중 화가의 장남
- 어려서부터 아버지 작업을 보고 자람
- 서울에서 교동으로 이주. 어린 시절을 지냄.
- 부친께서 시청옆 옛 제일병원 지하에 화실을 운영했음
- 현재 <옥천길 67>을 시백 선생 작품소장고로 사용하고 있음.



인터뷰 모습



시백 안중중 화가의 작품소장고



시백 안중중 화가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



작품소장고 내부

## (11) 유계순



나이	83세(1938년생)
출생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기간	40년
	옥천길 48-3 현재 거주

## 주요스토리

- 남편은 황해도 출신
- 남편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
- 아래 우물을 기억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집은 20년 전쯤 건축



권영돈님과 옥천길에 관한 이야기



집에 관한 이야기

(12) 나순자



나이	82세(1939년생)
출생지	강원도 춘천시
거주기간	36년
	삭주로 39-2 현재 거주

주요스토리

- 교동 출신으로 24살에 결혼함.
- 남편 분(김후근, 87세)이 공직에 계셔 지방으로 이곳저곳 생활하다 현 건물에서 36년째 생활함.
- 춘천고등학교, 춘천농업대학(강원대학교 전신)이 있었을 당시 기억이 있다고 함.



교동의 교육기관들에 관한 이야기



나순자님 자택 전경

## (13) 박영숙



나이	67세(1954년생)
출생지	강원도 춘천시
거주기간	12년
	향교옆길15번길 7-2 현재 거주

## 주요스토리

- 샘밭에서 20여 년 살다가 12년 전 교동으로 이사했고, 자녀들은 분가하여 단독 거주 중이다.

- 건너 집(향교옆길15번길 8-3)의 주택이 상당히 넓어 장마 시 비가 새기도 함. 주변 주택들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 지도(네이버) 상 교동경로당의 위치(향교옆길15번길 7)는 일반 가정집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12년 거주하면서 주변에서 경로당을 보지 못했음.

- 집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향교옆길15번길 7-1)에 과거 주택이 있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주변에 어르신을 위한 쉼터(운동기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가 없어 인근 학교(유봉여자중·고등학교, 교동초등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나 길이 험하다. 공, 폐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휴게공간이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쉼터 조성을 고려해주길 희망한다.



주변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으로서 의견



박영숙님 자택 전경

### III.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활용방안 제안

#### 1. 조사분석을 통한 기본 콘셉트

- 1) 지역의 지리적 특징
- 2) 마을형성과 주민 거주역의 역사적 맥락

#### 2. 봉황이 품은 마을

- 1) 행정의 중심으로 Power Spot
- 2) 교육의 중심으로 Power Spot
- 3) 외교의 거점으로 Power Spot
- 4) 문학과 예술의 산실로서 Power Spot

#### 3. 생활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제안

- 1) 봉의산 순례길
- 2) 봉황마을 교육 축제
- 3) 글나무 세 그루 이야기
- 4)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한 뉴딜로 만나는 춘천
- 5) 봉황마을 아트페어
- 6) 차이나 춘천(중국문화의 재발견)
- 7) 봉황마을 이야기꾼(스토리텔러 아카데미)
- 8) 공자 학당
- 9) IT로 만나는 청소년 네트워크
- 10) 봉황마을 이미지 아이덴티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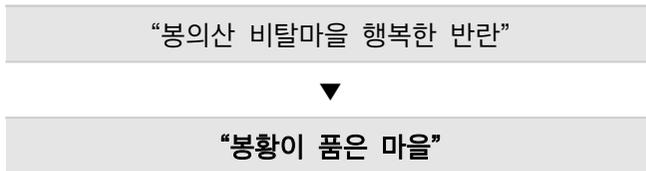


## 03 교동·소양동 생활문화자원 활용방안 제안

### 1. 조사분석을 통한 기본 콘셉트

#### 1) 발상의 전환

(1) Power Spot 개념을 도입하여



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2) Why

조사대상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교동34 일대로 행정구역 상으로 교동, 소양동 일부가 해당된다. 법정동 개념으로 봉의동, 옥천동, 교동이 포함되는 지역이다. 대상 지역은 춘천시 동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의산 남단의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이다. 서측에는 강원도청이 있으며 동측으로는 한림대학교와 유봉여중·고등학교에 면해있으며 남측으로는 춘천시 동지역 시가지로 이어져 있는 지역이다.

대상지역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간개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범주에는 지리적 범주와 인식범주가 있다. 조사를 주택, 토지 중심의 지리적 범주에 한정할 경우, 교동·소양동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 교육, 문화의 배경으로서 인식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마을형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지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와 분석을 통해 파악하게 되었다.

인문지리적 범주로 조사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콘텐츠들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었다. 조설 후기 이궁터에 자리한 위봉문, 조양루가 범주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 주요 교육 시설과 춘천의 주요 언론기관들이 연결된다. 또한,

옛 춘천문화원이 있었던 전 도시자 관사가 조사지역과 관련을 맺으며 문화 예술적으로 연관성을 갖는다.

인문지리적 범주에 의해 안개와 그리움의 작가인 이외수 소설가의 ‘문학의 산실’인 격외선당이 포함되어 지역작가인 이무상, 최수철 등의 문학인들이 조사대상 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한편 장운상, 안종중, 김대영, 김춘배 등의 지역 미술작가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춘천미술계의 뿌리와 인프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춘천향교와 관련된 인물들과 지역 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들, 봄내극장과 춘천미술관, 옛 도시서관사와 같은 근대건축물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문지리적 범주에서 조사 분석된 콘텐츠를 통해 도시재생이 문화 재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도출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펼쳐내기 위한 기본 콘셉트로 ‘파워스팟(power spot)’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Power Spot 이란

- ‘파워스팟(power spot)’이란 특정한 장소에 흐르는 강한 기운을 받아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안식을 얻는 여행지를 일컫는 말이다.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30~40대층 중심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다.
- 2011년 서울시는 사전답사를 토대로 창덕궁, 종묘, 선릉 등 고궁과 조선왕릉, 마이산 탐사, 마곡사, 범어사 등 “한국의 파워스팟” 관광상품 개발하고 있다.

① 봉의산<sup>38)</sup>

산의 모습이 마치 상서로운 봉황(鳳凰)이 나래를 펴고 위의(威儀)를 갖춘 것 같다고 해 유래되었다. 춘천을 오근내(烏根乃)·조근내(鳥根乃)라고 부르기도 했다. 날아다니는 새와 관련된 이름으로, 우리 민족 새[鳥] 신상을 상징한다. 새 신앙의 이름이 춘천 지명에 남아있다.



봉의산 전경(강원도민일보 제공)

② 봉황<sup>39)</sup>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서 기린·거북·용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이다. 봉황은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四海)의 밖을 날아 곤륜산(崑崙山)을 지나 지주(砥柱)의 물을 마시고 약수(弱水)에 깃을 씻고 저녁에 풍혈(風穴)에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한다. 한유(韓愈)의 「송하견서(送何堅序)」에 “내가 듣기로 새 중에 봉이 있는데, 항상 도(道)가 있는 나라에 출현한다(吾聞鳥有鳳者 恒出於有道之國).”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체로서 새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봉황을 ‘신조’(神鳥)라 하여 새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겨 신성시했다. 봉황은 360종 새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상서로운 존재이다.

38) 출처 : 『춘주문화』 제16호

39)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봉황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개인소장)

교동·소양동 지역은 춘천의 심장으로서 행정과 교육,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다. 교동·소양동 지역의 정점인 곳이 봉의산 순의비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이곳을 Power Spot의 근원지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③ 봉의산 순의비

“춘천의 진산(鎭山)인 봉의산은 이 고장과 영고(榮枯)를 함께한 우리들의 표상으로 그 갈피마다 역사의 자취가 서려 있다.

고려 고종(高宗) 40년(1253)에 몽고군이 춘천에 침입하였을 때 이 고장의 관민이 봉의산성에서 몽고군과 대치(對峙)하여 즐기찬 항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세(勢)가 적에게 미치지 못 한데다가 식수(食水)마저 끊겨 우마(牛馬)의 피로 해갈(解渴)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의기로 굶힐 줄 모르는 항거(抗拒)를 하였으나 힘이 다하여 산성이 적에게 함락되자 참전하였던 관민이 함께 이 산성에 피를 뿌리고 전사하였다.

끝까지 생존하였던 관민은 적에게 굴하여 욕되게 사느니보다 깨끗이 대의(大義)에 순하겠다고 가족과 함께 자결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 봉의산성이다.

나라를 지키려다 뿌린 선열의 숭고한 피가 스며있는 산성은 허물어진 채 오늘까지 그 잔영(殘影)이 전하고 있으나 대의에 순한 이름 모를 수많은 선열의 절의(節義)는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기에 여기 이분들의 고혼(孤魂)을 달래고 그 충절을 길이 후세에 기리려고 이 비를 세운다.”

1983년 6월 2일.



봉의산 순의비 전경



봉의산 순의비 뒤 비문

## 2. 봉황이 품은 마을

### 1) 행정의 중심으로서 Power Spot

조사대상 지역인 교동·소양동은 조선 시대에 아동(衙洞) 또는 아동리(衙洞里)라 불렸다. 춘천도호부와 춘천향교 사이에 위치한 아동(衙洞)은 관리들이 밀집하여 살던 동네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교육기관과 병원, 행정기관이 있던 곳으로 교육자와 금융인 그리고 행정가들이 밀집하여 살던 곳이다.

휴전 이후 행정가, 교육자가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다. 지금도 이궁, 조양루, 위봉문, 강원도청이 남아있으며, 강원신사, 강원도교육청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궁 문소각  
(춘천문화원 제공)



조양루



위봉문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연구원  
(구 강원교육청)



춘천 화교소학교

## 2) 교육의 중심으로서 Power Spot

조선 시대 국가교육 기관인 향교가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근대식 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성장하여 새로운 지역에 학사를 짓고 나갔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파괴되었을 때, 조사대상 지역은 모든 교육기관이 집합하는 장소였다. 현 춘천미술관은 강원대학교 전신인 춘천농업대학교 자리였기도 했다. 주변에 성심여대, 한림대학교, 춘여고, 유봉여중고, 강원중고 위치하였다.

(1) 강원대학교 전신인 춘천농업대학(1949) → 중앙교회(1955~2000) → 춘천예술마당(2001~현재)

(2) 춘천도립사범학교, 춘천공립농업학교(1920~30년대) → 춘천여자고등학교(1934~2012) → 춘천시 임시청사(2016~2018) → 춘천시청별관(2016~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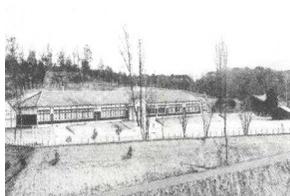
(3) 성심여자대학(1961~1982) → 한림대학교(1982~현재)

(4) 유봉여자중·고등학교(1964~현재)

(5) 강원고등학교(1959~1994)



춘천농업대학  
(강원대학교 제공)



1930년대 춘천여고 교사  
(국립춘천박물관 제공)



성심여자대학  
(가톨릭대학교 제공)



유봉여자중·고등학교  
(두산백과 제공)



1970년대 강원고등학교  
(영화 청춘공화국)

### 3) 외교의 거점으로서 Power Spot

교동·소양동은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에 독일인,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이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1980년대까지 거주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료들이 살다가 해방 후 중국인들이 유입된 지역이기도 하다.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인 거리가 형성되었다. 화교소학교는 단순히 춘천지역만의 중심지가 아니라 인근 가평, 화천, 양구, 홍천, 인제 등지의 화교인들의 중심지역이었다.

1983년 중국민항기가 당시 미군 부대인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함으로 한중 수교의 물꼬가 트였다. 중국본토인들의 춘천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많은 중국 방문객이 들리는 명소가 되었다.

교동·소양동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후손이 방문하기도 하고, 대만인과 중국인들이 갈등 없이 서로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다.



춘천화교소학교  
(강육재님 제공)



춘천화교소학교 교실  
(강육재님 제공)



춘천 속 쌍십절  
(강육재님 제공)



중공 민항기 불시착  
(춘천KBS 제공)



중공 민항기 불시착  
(춘천시 제공)

#### 4) 문학과 예술의 산실로서 Power Spot

교동·소양동은 문학가나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창작 의욕을 불태웠던 곳이다. 지금의 그들이 되기까지 예술혼을 키우던 인큐베이터이다.

##### (1) 문학

- 시인 이무상(향교 중심 활동, 교동 거주)
- 소설가 구혜영(봉의동 배경)
- 수필가 피천득(성심여대 배경)
- 소설가 이외수(강원일보 기자 시절 옥천동 거주)
- 소설가 최수철(청소년 시절 교동 거주)

##### (2) 미술

- 목불 장운상(동양화)
- 시백 안중중(서예)
- 가로화실 : 김대영, 김춘배(서양화)

##### (3) 건축

- 춘천미술관 : 한국전쟁 이전 건물
- 봄내극장 : 옛 춘천중앙감리교회(1970년 준공)
  - \* 김석재 건축가 설계 :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모티브
  - \* 상징 랜드마크로 활용(스마트 미디어 접목)
- 춘천향교 : 명륜당과 장수루(서울 성균관과 동일한 구조)

### 3. 생활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제안

#### 1) 봉의산 순례길(봉의산 순의비 가는 길)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봉의산 순의비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춘천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구봉산이나 원창고개는 시야가 막혀서 조망권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또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춘천시 중심을 조망하지 못한다. 따라서 춘천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봉의산 순의비 지점은 봉의산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① <옥천길> → 봉의산 순의비
- ② <옥천길54번길> → <옥천길40번길> → 봉의산 순의비
- ③ <향교옆길> → <향교뒷길> → <옥천길40번길> → 봉의산 순의비

세 가지 코스로 봉의산 순의비에 올랐다가 <봉의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순례코스를 개발하면 된다. 위봉문과 조양루를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이다.

또 다른 코스로 ②③번 코스로 봉의산 순의비에 올랐다가 ①번 코스로 내려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조사대상 지역 내를 순회하는 코스이다.

주간 코스와 야간코스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야간코스를 위해서는 조명과 야간 안내판이 있어야 한다.

\* 춘천관아지도와 병행하여 제작(춘천 옛 관아길 체험코스 및 지도)

#### 2) 봉황마을 교육 축제

과거와 현재의 교육기관을 연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동·소양동은 많은 교육기관이 밀집해있던 곳이다. 지금은 대부분 흩어졌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추억은 많은 이들이 간직하고 있다. 옛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더불어 춘천 교육의 흐름을 알기 위한 전시 및 체험활동을 여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내용 : 조선, 근대, 현대 교육기관 탐색

\* 교구, 교재, 교복 전시 및 체험

- 연계 : 춘천교육지원청, 춘천교육문화관(강원교육박물관)



#### 4)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한 뉴딜로 만나는 춘천

현재 4개 지역에서 춘천시 도심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 뉴딜사업은 근화소양일대 도시재생사업, 약사명동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동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운동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2016년 선정된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오는 2020년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라는 콘셉트로 가로환경 개선, 인생도서관 등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선정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약사·명동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콘셉트는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조운동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콘셉트다.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특히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돌봄공간 조성 등 커뮤니티 돌봄센터 조성과 온마을 돌봄프로그램 운영사업, 노후주택 재생사업, 마을공공공간 재생사업 등이다.

이들 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호연관성이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지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호 협조가 진행된다면 공동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4개 도시재생 지역을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4개 지역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최·주관 : 춘천시·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내용 : 춘천의 도시재생사업 구역간 소통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  
교동·소양동, 약사명동, 조운동(중앙시장, 제일시장, 육림고개 청년몰, 명동상가, 요선시장, 새명동, 지하상가) 연계 원도심을 활용한 주·야간 문화트레킹 개발  
\* 나눔마당, 아트전시, 센터정보 교류마당
- 연계 : 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장소 :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차장

### 5) 봉황마을 아트페어(카니발)

지역 출신 작가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술단체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필요하다. 춘천예술마당이라는 유효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며 문화예술적 감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축제는 마을 공동체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공간에서 펼쳐지는, 마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 내용 : 지역주민, 출신작가, 예술계와 함께하는 공동체 축제
  - \* 봉황 문화장터(마을영화제, 이야기한마당, 플리마켓, 어울마당)
- 연계 : 춘천시, 춘천문화원, 춘천문화재단, 춘천예총, 춘천민예총
- 장소 : 춘천예술마당 일대(공영주차장 포함)

### 6) 차이나 춘천(중국문화의 재발견)

춘천의 명물 중의 하나는 100년 짜장면, 짬뽕이다. 일찍부터 유입된 중국인들이 중국문화를 펼쳐왔다는 걸 의미한다.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교류하거나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다. 이일은 중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이 되며, 중국생활문화연구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중국문화 관련 단체나 문화원들과의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중국문화를 재발견하는 일은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류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 내용 : 차이나 데이
  - \* 중국문화마당, 음식기행, 중국 도서 나눔터
- 연계 : 한국춘천화교협회, 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 장소 : 춘천화교소학교 일대

## 7) 봉황마을 이야기꾼(스토리텔러 아카데미)

사라져가는 교동·소양동 마을 이야기를 수집·제작하고 마을 이야기해설사(스토리텔러)를 양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내용 : 도시재생 전문 스토리텔러(춘천시 도시재생센터 스토리텔러 인증)

\* 복수의 스토리텔러(2인 1조)

예) 옥천동 샘터 할머니, 춘천여고 할머니, 봉의산성 할아버지, 예술마당 큐레이터 등

- 연계사업

①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사업지역 방문자 안내

- 마을 이야기 길(교동·소양동 마을순례길) 개발

- 이야기꾼이 이야기 길을 직접 안내

②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

- 교육 운영보조자 수당 지급

- 공공근로 사업 대체(이야기꾼이 해당 공공시설 관리)

③ 마을 예술사업으로 발전

- 마을 이야기를 연극, 마임, 문학, 영화 등의 콘텐츠로 활용

-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물, 영상물 생산

## 8) 공자 학당

춘천의 선비정신과 강원 선현들의 얼을 보급하기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이들 강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함으로써 교동·소양동 주민 및 춘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들의 인성함양 및 마을과 춘천의 정체성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향교는 한림대학교와 유봉여중과 유봉여고 후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교 주변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지역학생이 많기 때문에 향교도서관을 만들 때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선비문화 체험교실이나 향교도서관 사업과 병행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

- 내용 : 생활 속의 유교문화 배우기

\* 향교 큐레이터, 선비 아카데미

- 연계 : 춘천향교, 한림대학교, 유봉여중고

### 9) IT로 만나는 청소년 네트워크

교동·소양동은 어린이들의 비율이 적은 지역이다.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찾아오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동·소양동 지역에 IT 아카데미 센터를 세워 지역 내는 물론 인근 지역 아이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IT 아카데미 센터를 통해 양질의 IT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순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령층에게도 개방하여 IT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와의 소통을 도모하려는 것 역시 또 다른 목적이다.

- 내용 : IT 아카데미 센터 프로그램

\* 코딩, 과학 프로그램, 디지털로 만나는 우리 마을

- 연계 :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폴리텍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 10) 봉황마을 이미지 아이덴티티 개발

봉황마을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마을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도록 한다. 봉황마을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미지인 ‘봉의산’, ‘봉의산 순의비’, ‘봉황’, ‘춘천시’의 기본 이미지를 결합하여 마을 브랜드를 구상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봉황마을 이미지는 마을 생산물이나 마을 구조물, 마을 홍보물과 마을 축제 CI에 적용하도록 한다.



봉의산



봉의산 순의비



봉황



춘천시 심볼

# 봉황마을 Story Map



유형문화재	상징목	영화
1 위봉문	22 위성류(춘천미술관)	34 여고 졸업반(구 춘천여자고등학교)
2 조양루	23 목백합(구 춘천여자고등학교)	35 청춘 공화국(구 강원중·고등학교)
3 향교	24 은행나무(향교)	36 와니와 준하(구 유봉여자고등학교)
기념물	25 은행나무(강원도교육청)	우물터
4 봉의산 순의비	26 구혜영 소설가(작품배경)	37 우물터1
5 춘천철거유지	27 피천득 소설가(작품배경)	38 우물터2
6 봉의산성	28 이무상 시인(집터, 작품배경)	39 우물터3
7 춘천옥천동고분군	29 이외수 소설가(집터, 격외선당)	40 샛터
교육기관	30 최수철 소설가(집터)	기타 건축물
8 옛 춘천공립농업학교(소양고)	31 목불 경운상(생가)	41 병역명문의 집
9 옛 성심여자대학교	32 시백 안중중(작품소장고)	42 국가유공자의 집
10 한림대학교	33 가로화실(김대영, 김훈배)	43 경관우수건축물
11 유봉여자중·고등학교		44 일제강점기 건물
12 옛 강원고등학교		
13 옛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연구원)		
등락문화재		
14 강원도지사 구 관사		
건축물		
15 춘천예술마당		
16 춘천미술관		
17 춘천아트플라자갤러리		
18 봉내극장		
19 춘천화교소학교		
언론기관		
20 KBS춘천방송총국		
21 강원일보		

## IV. 부록

### 1. 지역 설화

### 2. 포토갤러리

1) 길

2)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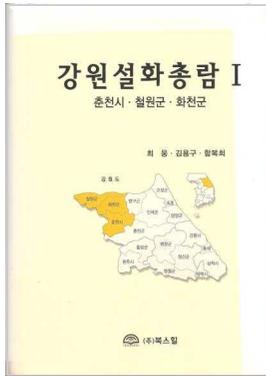
3) 문화재 및 건축물

4) 자연 및 생활문화



# 04 부록

## 1. 지역 설화



교동·소양동은 춘천의 중심지역이므로 춘천 관련 설화들의 출발점이자 집중되는 곳이다. 특히 충, 효에 관한 설화들의 발생지고 집결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설화들은 춘천 지역의 설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설화는 춘천시 교동에 거주하신 조보옥(2003년 당시 83세, 여) 님과 주변 노인들로부터 발췌되었다.<sup>40)</sup>

<설화 목록표>

순번	구분	제목
1	지혜설화	산신에게 빌어서 농사 잘 지은 사연
2	효행열녀설화	아들 파문다 금덩이 캔 효자
3	교훈설화	은혜 값은 잉어
4	인물설화-민담	전처 자식 구박한 첩
5	효행열녀설화	아버지 유언 따라 잘 된 아들
6	지혜설화	홍 대감 아들 살린 김 진사 아들
7	효행열녀설화	현대판 열녀
8	교훈설화	개가 키운 전처 소생
9	교훈설화	돈 욕심에 친정어미니 죽인 딸
10	교훈설화	나무꾼 흉내 내다 망신 당한 이웃 사람
11	동물식물설화	곳감 무서워하는 호랑이
12	인물설화-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3	효행열녀설화	바람난 어머니 지혜롭게 혼낸 아들
14	지혜설화	지혜로운 어린 신랑
15	효행열녀설화	효자 도운 호랑이

40) 인용 : 『강원설화총람 I』(2006년)

## 1) 산신에게 빌어서 농사 잘 지은 사연

옛날에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말이야. 농사를 짓는데, 왜 논이 높은 논이 있고 얇은 논이 있잖아.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아주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아주 꼭대기에서 내려오니 물이 힘이 있는 사람 쪽으로 내려올 거 아냐. 물이 꼭대기에서 물이 알로<sup>41)</sup>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 힘이 없는 사람은 밤새도록 이제 논에 물을 대고 그러는데, 그래 인제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물을 꼭대기에서 물꼬를 빼 가는 거야. 그래서 앓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노상 자다가 일어나서,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산천 기도나 드려야지.”

그래 농사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뭐, 저, 아무 효과가 없드래. 그래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한 번 더 가야겠다.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아무 효과도 없으니.” 하고서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허연 영감이 오더니,

“야, 이 놈아 너는 힘을 해서 뭐 할라고 그런디?”

그러니까 그래고 설라므네 이 인제 밭꾸라에다가 칭칭 감아주더래. 그러더니 저리 내려가다가 큰 바위를 지나가다가 밭길로 차보고 가라고 그러더래. 그래 내려가다가 이상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바위에다가 밭길로 툭 차니까 이 바위가 굴렀단 말이야. 이 농사를 그 이듬해 짓는데 아 그 사람이 또 그 물고를 다 빼 갈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논을 나가면서 이 호미 있잖아? 호미를 이제 쫘무니에다 차고서 나가서 물을 실컷 빼고서 인제 호미를 쭉 빼더니 그 사람의 두 손목에다가 칭칭 감아 났드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백일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농사를 해 먹드래. 힘이 세져 가지고.

## 2) 아들 파문다 금덩이 캔 효자

옛날에 어떤 집이 있었어. 근데 참 못살았어. 가난하단 말이야. 손주가 하나 있어. 아들 손주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는데 품을 팔아. 품을 팔아서 간을, 고기 같은 걸 조금 사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드리면 할아버지는 자기 안 먹고 손주 자꾸 먹인단 말이야. 손주를. 할아버지가 그냥 드시지 손주 자꾸 먹이니까 아니 우리가 그게 우습단 말이야. 할아버지 우리가 잡수라고 그런 걸 손주를 자꾸 먹이니 손주를 먹이는 거나 한가지니 안 되겠다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 바깥 사람<sup>42)</sup> 하고 둘이 얘기를 했던 말이야. 자

41) 알로: 아래로

42) 바깥 사람: 남편

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저 아들놈을 없애야지. 그래서 파묻기로 했어. 그런데 아들 파묻을라고 구덩이를 파니까 이만한 금이 나온단 말이야. 금덩어리를 썼어. 부자가 됐는데 고만에 아들을 살렸지.

### 3) 은혜 깊은 잉어

이제 흠애비가 이 노인네가 지관인데, 아 이 노인네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됐는데 이 총각 아들이 자기 아바이 묘를 다 써야겠다. 묘자리를 물어봤는데, 산에 묘자리를 남겨줬단 말이야.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할라고 남의 묘자리만 잡으려 멍기느냐?”

고 하더라.

“아버지의 생각을 들려줘야 쓰지 않겠냐?”

하니까

“아 그렇다.”

그래. 그래서 아들보고 하는 얘기가,

“나 죽으면, 죽을 거 같으면 그 편편한 그 한포리 밖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산에 이제 큰 이제 지하가 있고 그 위에는 바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 죽으면 신체는 어디 갈 수 없으니까 내 목만 잘라서 거기다 싸서 가지고 가서 가르쳐 준 보리밭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는 그 파 논 지하가 있을 테니 거기다가 얼른 쓸어 넣고 니가 뛰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바위에 올라서야지 안 그러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랬는데 지하에 설라므네 아 이거 이렇게 우르릉 하더라.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 섰더니 그 곳만 남았단 말이야. 내려와 가지고 총각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이제 밖에 서 가지고선 강가에 이제 갔는데 강가에 가니까 애들 서이서<sup>43)</sup> 잉어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서 싸우고 있더라.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니까는,

“야 너희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걸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삼 전을 줄 테니 똑같이 일 전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애들도 생각해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삼전을 주고서 잉어를 샀는데 잉어가 아 눈에서 이 눈물이 똑똑 떨어지더라. 그래서 인제 강가에 가서 놔주니까 꼬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가더라.

그래 이 사람이 오고 가지도 않고 강가에서 잠이 들어서 이제 잠을 자는

43) 서이서: 셋이서

데 아 새까만 강아지가 강에서 나오더니 물을 뿌려서 깨우더라. 이 깨우니까 강아지가 말하길,

“업혀라.”

그러더라. 그래서,

“난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

업히라고 해서 업혔대. 그래 강아지가 물 속 안으로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풀어준 잉어가 용왕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고 좋다고 정성을 받들어서 잘 먹고 그러고 있으니 잉어의 아버지가 저 선반에 큰 뭐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 다 훌륭한데, 그 잉어를 구해줬던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싫다.”

그러더라.

“그럼 그 연적이나 하나 가지고 가라.”

그러더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 넣고서는 다시 강아지가 업어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나와 가지고서 얼마쯤 나와서 시중에 아무 것도 없고 옛날엔 주막이 있잖아. 주막에 들러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하필 많은데 연적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나.’

그래서 연적을 꺼내니까 그 연적 속에서 고운 색시가 나오더니 밥을 채려 가지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잘 채려 가지고 나오더라. 그래더니 밥을 채려놓고 그냥 쪽 들어가더라. 연적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아, 이상하다.”

하고서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는 한 번은 연적을 깨뜨렸대. 연적을 깨뜨리니까 색시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적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더라.

“나는 추워서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나를 뭐로 싸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못 산다.”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그랬으니 색시를 싸 줘야지. 그래서 색시를 짚으로 된 걸로 싸 주니까는 시간이 되어서 나오고 또 색시가 천하일색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그래 얼마쯤 오래 되어서는 색시하고 사는데 색시가 지금 물 길러 나오는데 하도 그 남자가 집에만 있으니까 아 색시가,

“왜 그렇게 안 나가냐? 나가서 살 궁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이 그리워서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 색시가 자기 화상을 하나 그려 주더라. 자기 화상을 그려 주면서 가서 그래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며칠도 못 가서 두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때는 내버려 둬야지. 아 그래서 그 남자가 그 화상이 없단 말이야. 그래 집에 이 남자가 올면서 들어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상을 잃어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그 동네 옛날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에 색시가 물을 길러 갔는데 말이야. 아 그 물을 길러 가지 않고 그 화상이 대국천자의 말 앞에 떨어졌대요. 화상이. 그래니까 그 대국천자가 부하들을 풀어서,

“그 화상의 주인공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색시가 물 길러 나간 사이에 만났지. 그래 그 대국천자가 그 색시를 빼앗으려고 이제 싸 싸우기 내기를 했대요. 싸 싸우기 내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견딜 수가 있어? 그래 군사들도 많은데.

“그래 색시 뺏기게 생겼는데 이제 강으로 가면 까만 강아지가 나올 텐데 강아지 등에 업혀서 뒤옹박 세 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인제 뒤옹박 세 개를 가지고 나와서 싸 싸우기 내기를 하는데 그 대국천자는 뭐 뭐이며 다 있는데 그 남자는 뒤옹박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색시가,

“그 하나는 안개 끼는 뒤옹박인데 그걸 열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 싸우다가 대국천자가 인제 군사들이 안개가 끼니까 보여야 싸울 꺼 아니야? 그 군사들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꺼 없이 강 가운데에다 집을 짓기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 그래 강 가운데다가 집을 짓자고 말이지.

“그러면 그래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강에 또 들어가서 강아지를 타고 들어갈 것 같으면 웬 말이 많고 좋지만 비루먹은 말을 하나 가지고 나오라.”

고 그러더라. 아 이제 대국천자는 아주 신하 백 명이 아주 뭐 기름이 푹푹 흐르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비루먹은 말을 가지고 오지 않

았어.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대국천자부텨 건너뛰라.”

고 하더라.

“그리고 건너뛰고 말 궁둥이를 회초리로 치면 그 말이 건널 꺼라.”

고 하더라. 그래서 또 대국천자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뿔단 말이야. 그래 말이 빠질 꺼 아니야? 빠지니까 이 벼루먹은 말의 궁둥이 탁 치니까 걸어가서는 대국천자의 말을 건너뛰고 건너뛰었다. 이 대국천자가 또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울면서 마누라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가자.”

고 하더라. 마누라가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번에는 강에다 집짓기 내기 시합을 하자. 그래 그러니까 여자는 강 사람이니까 집을 지었는데 대국천자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래 여자가 강 가운데다 집을 지어놓고 왕은 강에 빠져죽고 말았지 뭐.

#### 4) 전혀 자식 구박한 첩

옛날에 선비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한 삼 년을 살아도 아기를 못 낳더라. 큰 마누라가. 그래서 마누라 하나를 또 얻었는데 그 마누라도 삼 년이 되어도 아기를 못 낳더라. 그래도 또 하나 얻어 보자 하고 셋째를 얻었는데 그것도 삼년이 되도 못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마누라 셋을 앗혀놓고,

“당신은 내가 삼 년을 있다 올 동안에 무슨 선물을 해놓겠소?”

하니까는 큰마누라 하는 말이,

“저는 세 골짜기 있는데 첫 골짜기 가서 머리감고 목욕 싹 하고 그렇게 골짜기 가서 여전히 머리 감고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아들을 낳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둘째 마누라한테,

“당신은 삼 년 동안에 뭘 해가다가 바치겠느냐?”

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둘째 마누라가,

“저는 꽃을 수를 놓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라. 둘째 마누라도 여지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고서는 첩들 보고 그랬대.

“큰마누라님이 아들을 낳아다가 바친대니 낳거든 아주 잘 같이 길러서, 같이 길러 달라.”

그것 밖에 고마울 게 없대요. 그래서 떠나서 갔는데 한 일 년 열 달이 넘 어가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데 낳자마자 이 놈의 첩들이 여느 사람을 해 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연못에 갖다가 집어넣었대. 허접대기에 둘둘 말아서. 낳자마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아들인지 모르지. 까무라칠 때 이제 둘이 갖다가 내버렸으니까. 첩 둘이서. 이 아이를 길러 놓으면 이 남편이 오면 필시 팔세를 할 테니까 이제 갖다 버린 거지. 그러니 아들을 내버린 거야. 첩 둘이서.

삼 년 만에 오니까 한 여자는 예쁜 꽃을 수 놓았어. 큰마누라를 불러다,  
“당신은 아들을 낳아서 바친대더니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아기를 낳긴 분명히 낳았는데 뭘 낳았는지 모르고 까무라치고 깨보니까는 허무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옥을 짓고 그 안에다가 가둬놓고 맷돌이나 갈라고 그랬어. 그 안에 앉아서 맷돌질만 밤낮 하는 거야. 울고. 그냥 눈물로다 세월을 보내고 앉았는 거야. 그런데 이 영감이 연못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꽃송이가 동실동실 떠 나오더라. 꽃이 동실동실 떠내려 오더니 영감한테로 오더라요. 그래 꽃을 꺾어다가 문 꼭대기에 엮었대. 엮었더니 작은 마누라가 들어올 때 쥐어뜯고 나갈 때 쥐어뜯고. 꽃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첩들이,

“요 알미롭다. 아궁이에 쳐 놓자.”

그래서 아궁이에 쳐 넣었어. 그리고서는 불을 땀는데,

“꽃은 어쨌소?”

하니까 첩들이 둘이서,

“아궁이에 쳐 넣었다.”

하는 거라. 아궁이에 보니까 하얀 구슬이 송이로 되어서 연꽃대로 구슬이 나오더라. 그걸 갖다가 잘 닦아서 엮어놓았는데 요 놈의 구슬이 또 어디다 갖다가 버려야 된다고. 연못에 갖다가 탁 버렸어. 구슬이 연못에 들어가면 없어질 줄 알았지.

“구슬을 어쨌나?”

“갖다가 버렸다.”

“어디다 갖다가 버렸나?”

고 하니까 안 가르쳐주더라. 식전에 일어나서 연못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니까 청개구리가 깡충 뛰어 올라오더니 요기 와서 올라앉더라. 위하고 맨날 들여다보니 예뻐서 쓰다듬어도 주고 그러니 어느 날 갖다 오니까 청개구리가 없

어졌더라. 그래서,

“이 놈의 청개구리가 어디 갔나?”

“못 봤소.”

그러더라. 소여물 주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청개구리를 잡아먹었대. 소가. 소가 집어먹고 배가 점점 불러졌어. 소가 뭘 낳았냐 하면 아주 금송아지를 낳은 거야. 낳아 가지고는 구불구불 자라서 매일 아침 선비가 나가서,

“참 이쁘다.”

쓰다듬어 주니까 요 놈의 작은 마누라 들어서,

“그 놈의 금송아지 어떻게 없애면 좋으냐?”

하고 들어서,

“우리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 가지고서 간을 한 쪽씩 먹어야 산다고 하자.”  
고 그랬단 말이지.

신랑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

“아이고 배 아프다.”

그리고 점을 치러 가면,

“금송아지 간을 먹어야 산다.”

고 점쟁이가 그랬대.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

별 약을 다 먹여도 배가 아프다고. 가서 점을 쳐보라고. 둘이 쳐보니까는 금송아지 간을 먹여야 한다고 그러네. 점쟁이가. 금송아지 죽이기도 아깝고 속상해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깐,

“왜 말을 못하냐?”

“금송아지를 간을 빼먹어야 산다.”

“죽이기 아까운데 탄 걸 먹어볼 수 없느냐?”

“금송아지를 먹어야 산다면 먹어야지. 금송아지 하나가 중요하나? 사람 둘을 살려야 옳지.”

할 수 없어서 백정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보냈어.

“나는 죽이는 건 못 보니 갖다가 간이나 달라.”

고 했다. 금송아지를 내려 보냈는데 백정이 이렇게 보니깐 얼굴을 보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

“너는 보통 소가 아니다. 큰 개가 있으니, 그걸 잡아서 간을 올려 보내고 너는 한이 없이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풀어줬어. 그리고 이것들은 그 개 간을 한

쪽씩 먹고 나왔다고. 한 쪽씩 먹은 거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구. 그 간을 먹고 나왔다고. 그것들은 그 두 첩들은 살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는 어디 갔냐면 아랫녘을 가서 임금님 잔치날 찾아갔는데 아주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러더라요. 그 옆에다가 인제 임금이 자기 딸을 앉히고서는 열 치 위로다가 북을 달아놓고서는,

“저 북을 치는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시켜 준다.”

임금 잔치하는 날 딸을 옆에 앉혀놓고. 세상 어느 사람이 북을 칠려고 해도 뛰어오르지 못해. 그런데 이 송아지가 말은 못해도 말귀는 다 듣는데. 반도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송아지래도 발을 구르면, 발로 서면 서잖아요. 옛날 말이라 그럴겠지만 꺾충 올라서 그 북을 쳤어. 이 보통 송아지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송아지한테로 시집가는 아가씨도 그렇지만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전체가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는데 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녁에 신방을 차려줬어. 돗자리를 깔고 이불 요에 신방을 꾸며 줬는데 밤중 되니까는 발로다가 옆에 자는 아가씨를 건들더라요. 열 두시에.

“왜 그러냐?”

하니깐 자리를 가르쳐주더라. 자리를 들고 나가니까,

“마당 한 가운데 펴라.”

고 그러더라. 그러고서는 세수하래. 자기도 세수하는 척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깨끗한 접시에 정한수를 뜨라.”

고 그러더라. 말은 못해도,

“상을 갖다가 내려놓아라.”

상 갖다 놓고 칼, 칼도 갖다 놓고. 정한수 떠다놓고 자리 펴놓고 열두시에 한가운데 딱 드러눕더라. 송아지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니 여기를 이렇게 탁 가르더라. 선비가 세상 천에 없는 선비가 싹 나오더라.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도록 잘 자는데 아침이 되었는데, 이 송아지 동네사람도 궁금하고 암만 임금의 딸이면 뭐해. 궁금할 거 아냐. 엄마가 문을 열고 요렇게 들여다보니 그렇게 잘 생긴 선비가 없이.

“금송아지가 어디 가고 선비가 되었나?”

야단법석 난리를 치른 거야. 아침에 색시가, 딸이 얘기했지.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되었다.”

조반을 차려놓고 동네 잔치를 크게 벌여서 보내놓고. 그제서야 집으로 가

는 거야. 작은 엄마들 원수 갚으러. 집으로다가 보따리를 싸고 선비하고 아가씨하고 가니까는 그 때꺼정 저 어머니가 멧돌질만 하는데 아주 백발이 되어서 사람도 몰라보더라. 못 나오게 열고 닫는 문만 해놓고 바깥으로 걸고 밥만 주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서 몇 날 울고 해서 눈도 말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문을 때려 부수고. 작은 마누라 둘을 갖다가,

“내가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하지 않지만 니들이 우리 엄마 말라 죽었으니까 당신들도 똑같이 한다.”

못을 박아놓고. 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돌아와서 처갓집 가서 잘 살고 죽었다.

##### 5) 아버지 유언 따라 잘 된 아들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을 9남매를 낳아서 사는데 아주 그냥 애들이,

“아버지, 우리 어떻게 구 남매 살까요?”

“느들이 그래도 다 살겠지. 느들이 못 살겠니? 내가 죽을 적에 다 가르쳐주고 죽으마.”

그러는데 죽을 적에 큰 아들 둘째하고 셋째 아들은,

“어디쯤 가면 삼거리가 났으면 삼거리에 가서 셋이서 하나씩 나눠서 가라. 그리고 가면 살 길이 나오니까는 그리 가서 살아라.”

그리고는 아들이 여섯이 남았죠. 다섯은,

“느들은 그냥 하나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느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랬어. 아들 하나를 가지고서 막내아들한테는,

“너는 내 목을 잘라 가지고서 가라.”

“아버지, 목을 어떻게 자릅니까? 형제들이 많은데.”

“그러면 9일장을 지내니까 너는 내 목을 잘라 가지고선 하얀 종이에다가 이쁘게 싸 가지고 짙어지고 가면 아주 멀리 가면 거기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나무가 세 개가 딱 섰다. 거기다 나를 놓고 얼른 뛰어 나와야지 조금만 더 있으면 너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나를 놓고서 아주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뛰어야 너는 산다. 그렇게 하면 너는 아주 평생에 잘 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일장을 지내는데 하루 하루 지나가는데 내다보니까 형제들이 다 술에 취해 잠을 못 자서 떨어져 나갔어. 칼을 갈아서 저 아버지 목을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아버지한테 빌고서 아버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는

죄를 사해 달라.”

그러고서는 목을 잘라서 하얀 종이에다 싸고 싸고 서너 번 싸가지고 망태기에 넣어서 저 아버지를 짊어지고 가서 한이 없이 가는 거야. 가니까 연못이 나오는 거야. 거기 가서 백일을 기도를 했대요. 백일을 기도를 하고서 나니깐 물이 차츰차츰 연못이 줄어가더라.

나무가 가운데 뚝 섰는데 가운데 나무에 저 아버지를 이렇게 놓고서 놓자마자 막 뛰어나와서 돌려다보니까는 연못에 물이 가득 하더라. 도로 가만히 서 강 건너에 갔는데 저 건너를 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인데 풀이 반짝반짝 하더라. 저 집을 찾아가야지. 옛날에는 집도 많지 않았잖우.

강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강을 건너야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서 저 집을 찾나?”

강물에 헤엄을 쳐서 건너 가려보니까 강물이 그렇게 깊어 보이더니 강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 보이더라. 그래서 인제 강물로다 헤엄을 쳤대요. 집에 가느라고. 헤엄을 치니깐 꽤 가겠더라. 아주.

헤엄을 쳐서 그 집을 찾아가니깐 아주 조그만 집에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

“아유 여기서 하룻저녁만 자고 갈 수 없습니까?”

“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떡하냐?”

고 그러니까,

“어여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서는 요만한 은적을 하나 주더라. 옛날에 글씨 쓰는 그건가 봐. 은적이라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데. 그러는데 받은 금이고 받은 은인가 봐. 아가씨가 쓰던 건데 거기가 산소래. 그 사람은 집으로 봤지만 그게 산소래. 그 아가씨가,

“여기서 잘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가면 살 길이 나온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 앉아 있으면 꼭 누가 흥정을 할 적에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얼른 주라.”

고 그러더라. 그래 가지고서는 장에 가서 종일 놓고 앉아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더라. 저녁때 어떤 청년이 하나 오더니 이렇게 은적을 보더니,

“아유 그거 팔니까?”

“예 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시오.”

하고 사 가지고 가더라. 가는데 그 집이 아주 대감의, 임금이라나 대감이라나. 딸이 엇그저께 죽었대. 딸의 물건이라. 딸이 가지고 나와서 그 남자를 준거야. 그걸 가지고 가서 판 거야. 그 집이 남자가 그 집 종이라. 시장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제 집의 아가씨 죽은 아가씨 그거 같더라. 그래 이걸 사 가지고 가서,

“너 오늘은 시장에 가서 뭘 사왔니?”

“예 이걸 사왔습니다.”

대감이,

“이걸 판 사람을 찾을 수 없느냐?”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팔고서는 저기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고 그랬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는,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강을 건너왔는데 밤에 요만한 집이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그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가씨를 찾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럼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2년이고 3년이고 살아라.”

“예 살겠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데 100일을 살았대. 밤중이 되니까 딱딱 문을 두드리더라. 여자가 찾아와서. 살짝 열어주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하고 가고 그러더라.

“여기서 자고 갈 수 없습니까?”

그 남자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곁몸만 다니지 사람은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100일이 되었는데. 100일이 돼야만 사람이 되어 나오지. 이승에서 100일, 물 속에서 100일, 저승에서 100일, 그렇게 300일을 살아야

사람이 되어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 여자가,

“100일이 내일 모레 될 텐데.”

하니까 주인이,

“너는 밤중에만 무슨 얘기를 중얼중얼하니?”

“그런 게 있습니다.”

“바른대로 말해라. 왜 나를 속이느냐?”

“얼마 안 있음 다 알게 됩니다.”

그러더라.

“너 그러면 나 좀 살짝 보여줄 수 없느냐?”

“그러면 정 보고 싶으면 내가 병풍으로 가리고 있을 테니까 병풍 그 뒤에 앉아서 그 구멍을 바라보라.”

고 그랬어. 한밤중 되니까 오더라. 와서 얘기를 참 재미있게 하고 앉았더라. 그게 인제 저 아버지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색시 죽은 거를 살려서 인도한 거래. 막내아들이 하도 착해서. 여는 것들은 술 먹고 와서 아버지한테도 막 덤비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막내 아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저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도 잘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도와 준 거래. 이렇게 보니까 저 딸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수.

“아무개야, 회숙아, 아무개야!”

하고 팡 나가는 바람에 아주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내일 모레가 바로 100일인데,

“그것 봐라. 조금만 참았으면 내일 모레면 완전히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내일이 100일인데 오늘 저녁에 왔더라. 얼굴이 문둥이가 되어 왔더라. 배는 불렀대. 산소에서 잤다는지 여기서 잤다는지 배는 불렀대. 사흘만 있으면 사람이 되어서 오는데 사흘을 못 참아서 얼굴이 문둥이가 되었다. 내일 아침에 제사를 잘 차려놓고 내 산소에 와서 지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완전히 사람은 안 되었다 그러더라. 제사를 잘 차려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서 산소가 짝 갈라지더니 아기를 업고 나왔다. 얼굴은 사람이 죽어 가지고 사람이 되어 나올려는데 안 그렇겠어?

나와 사는데 잘 사는데 임금이 색시 아버지는 대감이고 임금이 부른 거야. 색시 아버지를. 아무개 오라고. 그래서 임금 앞에 갔는데,

“너는 죽은 딸을 살렸는데 난 아들이 세 살 먹은 게 엇그저께 죽었는데 너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느냐?”

하니까는 뭐라고 답을 하난 말이야.

“네 살려드립니다.”

이 놈의 대감이 그렇게 하고서는 앓는 거야. 끄끔 앓고 있으니까 딸이,

“아유 아버님은 진지도 안 잡수시고 이렇게 앓으십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임금 앞에 불려갔는데 손주래나 봐.

“손주를 살려내라니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도 살리는 방법이 있겠죠.”

산랑더러,

“우리 아버지 이래저래 해서 앓고 드러 누웠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한 번 만나볼 게.”

이러더래. 아주 밤중에 정한수 떠 놓고 빌고 앉았으니 지 아버지가 떡 나타  
나더래.

“우리 장인 어른이 임금의 죽은 세 살 먹은 손주를 살릴 수 있다고 대답  
을 하셨다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지.”

임금을 불러다 놓았어.

“그러면 당신의 손주를 살려줄 테니 당신은 내 곁으로 언제 오겠소?”

“우리 손주 살려만 준다면 내일 모레 갈게요.”

그러고 끝이야. 손주는 살았어. 살아왔는데 내일 모레 임금은 죽은 거야.  
그래서 잘 살았대요.

#### 6) 흥 대감 아들 살린 김 진사 아들

화천에 진사가 살고 춘천에 육 판서가 서울에는 흥 대감이 살고 그랬는데  
시골에 사는 김 진사는 아들을 낳았는데 일곱 살 먹도록 바깥출입도 잘 못  
해. 아들 하나 있는데. 그저 아홉 살 먹던 해에 아랫목으로 갔다 윗목으로  
갔다가 새끼 끈다는 게 이렇게 꼬꼬 앓아 있어. 아홉 살이 먹도록.

저 사촌형이 서울에 가서 사는데 저 아버지 하는 말이 서울 조카한테다가  
부탁을 해.

“야 우리 아들은 아홉 살이 되어서 아랫목으로 갔다가 윗목으로 갔다, 새끼  
나 파바라 그러니까 이렇게 꼬꼬 앓았고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떡하냐? 네가 좀  
데려다가 공부 좀 시키고 잘 가르쳐라.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잘 해봐라.”

“네. 그럼 올려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올려 보냈어. 서울로. 서울에 가 가지고서는 맨날 그저 말을  
한 되 두 되 한 말 두 말 가르쳤어. 사촌이 데려다가. 말만 쓰다듬고. 청소

만 해주면서 한 말 두 말 자꾸만 붙이면서 먹이를 주면서 그런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꾸 땅을 팔아서 올려 보내고, 올려 보내고 해서 마음 놓고 시켜도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하루 날은 재상들 집을 데려다 놓았대. 사촌 동생을.

“너 이런 데서 재상이 들어오면 어이 재생들이 건방지게 시골에서 온 사람을 꽤 무시하네.”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시골사람 하나 와 있다하니까는 기생 여자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는,

“아유 기생여자들이 사람을 무시하네. 들어올려면 들어오지. 뭘 열었다 닫았다 아니꼽게 구냐?”

그랬어. 방에서.

“보통은 좀 되는데.”

하더니 문을 닫고 나가더라. 그래서 살았대. 시골에서 저 아버지 하는 말이, “이 땅 저 땅 다팔아서 두 늙은이만 남고 집도 해 입히지도 못하고. 집도 새고 할 도리가 없다. 내려오던지 무슨 수를 해라.”

편지를 해 보냈어. 저 사촌 형이,

“더 가르칠 수 없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도중에 춘천에 육판서 딸이 내일 모레 시집을 간대. 서울 흥 대감 아들 앞으로다 시집을 간대. 흥 대감의 아들이 아홉 살이고 딸은 열여덟 살이래. 그런데 시집을 가는데 장독대를 타고서 큰아버지를 만나보고 시집간대. 내일 모레.

저 큰덕에 가서 이제 오는데 장독 대문이 쑥 열렸는데 그 거지가 이제, 이제 거지가 되었잖우. 서울로 가서 다 팔아먹고 시골로 내려오는 길인데 거지가 내려오다가 장독 대문이 펄럭하는데 이렇게 보니 얼굴이 대개 이쁜 게 색시가 꽃 같은 색시가 탕으니 기가 막힌 거야.

“저 놈의 색시를 좀 봐야겠다.”

가마 뒤를 살살 따라서는 가는 거야. 이 거지가. 거지가 다 되어 가지고. 어디 가나 보니 큰 부잣집으로 쑥 들어가더라. 그 옆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더라. 육 판서 딸의 몸종이래. 그게 이름이 향순이래. 향순이는 오막살이 그 집에서 사는데,

“오막살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거지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잘 데가 마땅치 않은데.”

하거든.

“행랑 간에 문 지킴이나 하고 가겠으니 하루 재워주소.”

“우리 딸 하나 있는데 하룻밤 쉬어가요.”

들어가서 밥을 주더래. 팔세를 안하고. 자는데, 그 향순이가 왔더래.

“누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룻밤 잔다 그래서 재워 보낼란다.”

“잘 하셨소.”

그러더래.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랬대.

“저 집의 아가씨가 참 이쁜데 하룻밤 볼 수 없을까요?”

향순이가,

“볼 수는 있지만 어디 들어가기가 쉽겠소?”

그러니 저 엄마가,

“너 뒤를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더래. 그 향순이 엄마가.

치마를 입고 들어가니까 그 집에 이만한 화초밭이 화단이 있대. 부잣집이. 치마를 이렇게 하고선 문을 찌끄덩 하고 들어가서 뒤쫓아 화단으로 쑥 들어갔어.

밤새 앓았다 보니까 한 열 두시 되니까 담 너머로 중이 들어오더래. 중 하나가 이렇게 담 넘는 소리가 나서 뭐가 그러냐 하고 들여다 보니 도타리 중이더래.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더래.

“야, 저 놈이 무슨 수가 있구나.”

문턱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유 내일 모레 내 결혼식인데 뭐 하러 왔소?”

“나와 살아야지 왜 결혼식을 하냐?”

고 그러더래.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

“신랑이 몇 살이냐?”

고 묻더래. 아홉 살이라고 대답 하더래.

“고까짓 거 한 칼에 찔러 죽일 수가 있다.”

고 그러더래. 그 놈의 중이.

“남의 아들을, 흥 대감의 아들이라는데 죽이면 안 되는데.”

생각을 먹고 화초밭에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 중하고 잤는지 어쩐는지 새벽이 되나까는,

“빨랑 벽장으로 올라가라. 날이 밝았다.”

고 하더라. 밤새도록 얘기하더니. 벽장에 감춰 놓더라. 화초밭에 있다가 몸중을 따라 얼른 나왔다. 그 집에 가서 칼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계속 칼만 갈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집에서. 종일 거지가 칼을 갈고 앉았다가 그 이튿날 아주 뭐 신랑 집에서 가마 뭐 말 무등해서 한 스무 명이 잔치를 차려서 먹고 그러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서는 술을 주는 대로 막 받아먹고는 자빠져 있으니까 색시 집에서는 신랑 집에서 온 줄 알고 신랑 집 패는 색시 집 근방에서 거지가 온 거라고 쫓지 않고 그냥 두더라. 모르는 척 자러 가고. 열두 시쯤 되니까 다들 자러 가고.

옛날에는 장가를 가면 색시 집에서 자고 갔어. 하룻밤 자고 가는데. 밤에 밤쯤 되니까 거지가 보니까 벽장문이 다닥다닥 하더니 내려오더라. 중이.

“아휴 살이니 조그맣구나.”

칼을 들고서 이렇게 하고 섰는데,

“요걸 단칼에 찌를까, 두 번에 찌를까.”

그러더라. 그 놈의 중이,

“아유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 그 놈의 색시가. 그러는 걸 문을 제끼고 들어가서는 중을 콧 찧렀대. 그리고서는 그 놈의 여자도 콧 찧르고. 애를 아휴 살 먹은 애를 잡아 끌고서는 대문밖에 나와서 뒤집어 엮고는 서울로 올려 뛰었다. 흥 대감 집을 찾아가니까 흰하게 날이 벌써 밝아지더라.

“엄마, 엄마.”

하고 불렀대. 아휴 살 먹은 애가,

“아니, 장가간 놈의 애가 새벽에 와서 저렇게 엄마를 찾아?”

깜짝 놀라 나와 문을 열고,

“네가 웬일이냐?”

저 어머니 아버지 뭐 다 모여서, 모여서 장가간 게 밤중에 어떻게 밤새도록 왔을 거 아니냐고.

“너 어떻게 왔니?”

“거지가 엮어다 놓았다.”

들어가서 법석난리가 났는데 아침이 되니까 가마채 메고 갔던 사람들, 말 무등, 뭐 다 오더라는 거야. 아주 죽을상을 차리고 왔더라. 어쩐 일이냐고.

“뭔지, 뭔지 도련님이 간 곳이 없어지고, 색시하고 중이 죽어 자빠졌대고 신랑이 어디 갔는지 찾다, 찾다 그냥 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은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네?”

“살아 돌아오셨으면 우리 아뉡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 날서부터 거지를 불러다가 거지 잔치를 하는 거야. 흥 대감 집에서. 그걸 찾아서 은혜를 갚을라고. 맨날 하루 열씩 스물씩 불러서 거지 잔치를 하는데 시골에 가니까 집이 다 떨어져가고 지 엄마 아버지가 호호백 발이 되어서 앓았더라.

“이 자식이 그래 시골 논밭 다 팔아먹고 거지꼴로 왔으니 어찌란 말이냐?” 하고 지 엄마가 막 울더라.

“그래도 산 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왔으니 살게 되겠쵸.”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고 있는데 거지 잔치를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 거기도 뭐냐 며칠씩 일주일치 하는데,

“너 거지보다 난 게 뭐 있니. 너도 가봐라. 너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다. 가봐라.”

맨 막판에 내려갔대요. 서울을.

“나는 지나간 얘기고 뭐 옛날 얘기고 보고 들은 대로 얘기 해준 것만 들을 뿐이라고, 별것도 아니라.”

고. 잘 차려주고는 보고들은 얘기만 하라고 그러더라요.

“지나가다가 본 얘기 좀 한마디 하렵니까?”

“아이고, 하시오.”

그러더라.

“저는 시골에서 아주 두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사촌 형이 불러서 논 밭 다 팔고 이제 거지로다가 되어 가지고 시골로 부모님을 찾아 내려가는 도중에 그렇게 가마패가 가는데 아주 아가씨가 참기가 막히게 이쁜 게 지나가서 그 가마 뒤를 따라서 가다보니까 참 이 상스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옆집의 몸종한테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화초밭에 가서 며칠 잤다. 그러다 보니 그 아가씨 방으로 종이 담을 넘어 다니더라. 유심히 지켜보느라고 보다가 결혼식 날 들어보니 종이 도타리 종이라서 들어가서 없애고서 아들이 하도 불쌍해서 불잡아다가 집을 찾아 바깥에 놓고 간 죄 밖에 없습니다.”

흥대감 마누라하고 대감하고 끌어안고 우리 아들 살려줬다고 통곡을 하고 울고. 당신은 우리 큰 아들 하라고. 재산을 받을 뚝 잘라 주고 부자로 잘 살

더래. 그렇게. 그것 뿐이요. 이제

### 7) 현대판 열녀

장가를 들고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외국을 갔어. 삼 년이 소식이 없고 난리가 났어. 칠 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십 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혼자 늙을 수 없으니 그래서 시집에서도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 색시 마누라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자꾸 가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신랑을 얻어 가긴 갔는데 가던 날부터 가서 누운 거야. 아프다고 누워서는 정신없이 누워서는 날마다 미음만 쑤어다가 대령을 하고 그것만 이제 한 모금씩 먹는 거야. 얻어간 신랑이 그 여자한테 접근도 못해.

이 세월 저 세월 다 놓치다 어느덧 삼 년이 되었어. 그제서는 그 집에서 시집 온 지 삼 년이나 되었는데도 신랑 색시 서로 상대도 못하고. 이제 곳을 하는 거야. 저녁에 대접이를 한대. 이 집에는 신랑 집에는 일본에서 죽었다고 외국에서 죽었다고 전보가 와 가지고. 지청을 왔어. 그 집에서는 얻어간 신랑 집에서는 그 날 저녁에 대접이를 하고. 죽은 신랑이 와서 실려서 앓는다는 거야.

내 얘기를 들어봐요. 썬 게 아니라. 그 집에는 상을 내는데. 한 밤중 되니까 내일 아침 나갈 거 아냐. 삼 년을 상을 받아다. 밤 중 되는데 새벽에 외국에 갔다가 왔어. 이 산랑짜리가 살아서 돈을 벌어서 한 짐 지고서는 와서 이 지청을 보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거기서 울고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깐 이제 혼백을 들여다 보니까 지 이름이더라. 혼백에. 혼백을 내치면서.

“살아서 돈 벌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내 이름을 써놓고 제사 지내냐?”

“어이구,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냐?”

울고 법석을 했는데 지 방을 가보니까 처도 없거든. 부엌에 가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봤겠지.

“우리 처는 어디 갔습니까?”

“야, 네가 하도 안 와서 시집가라 그랬더니 가던 날부터 병이 들어 앓아 누웠는데 오늘 저녁에 대접이 해서 니가 가서 실려서 앓는다고 그러더라.”

“네? 그래요?”

하고서는 그 집으로 달려가서,

“야, 아무개 들어간다.”

뛰어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다 도망가고 그러니 아랫목에서 앉던 여자는 저 신랑이 와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들러들고서,

“어디 갔다 이제 왔소. 나는 내일 모레는 죽을려고 그랬소.”

데리고 가서는 잘 살더라고요. 맨날 신랑하고 쪽지고 보따리 해 가지고는 이따만씩 일년에 한 두 번씩 오르내려. 시내로. 두 내외가 그렇게 잘 살더라고.

#### 8) 개가 키운 전처 소생

그 전에 옛날에 선비가 하나 살았는데 이 선비가 아기를, 그 선비도 첩이 하나 있었다요. 첩이 하나 있었는데 큰마누라가 못 낳아서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도 못 낳더라. 첩이 하나야. 어디를 가는데, 과거급제를 보러 가는데 인제 큰 마누라가 애기를 가졌어. 첩더러 아기를 낳거든 아기를 낳거든 같이 잘 키우고 있으라고. 떠났는데, 큰마누라가 몸이 불어서 아기를 낳았어. 이 놈의 첩이 큰마누라 애를 낳을 때를 기다리다가 난 거를 갖다가 거적데기에 다 말아서 바윗골 속에 갖다 버렸어. 큰 마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일어나 보니 애가 없어.

‘이 놈의 애를 어쨌나.’

하고선,

‘저 작은 여편네 조화인가 부다.’

하고선 살고 있는데, 애가 난 지 일주일 되었는데 겨울이래. 개가 하루는 나가서 안 오더라. 멍멍이가 나가더니 안 와. 애는 낳긴 낳았는데 애도 없어지고 주인네 개도 없어지고. 일어나 보니 낳긴 낳았는데 애도 없지. 멍멍이 소리도 안 나지.

한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아니 일주일 본 게 아니야. 개가 한 석 달인가 있었어. 남편이 왔어. 떨어져 가지고. 남편이 왔는데 이 놈의 애가 없어.

“배가 부른 걸 내가 보고 갔는데 어떻게 없소?”

“애를 낳긴 낳았는데 애가 없소.”

영감이 온지 일주일 되었는데 아침에 세수를 하러 나왔는데 개가 킁킁 들어왔다 나왔다 하더라.

“좋은 일이나 있나?”

나갔다 들어갔다 해. 나갈 때 쫓아가니 한없이 가더라. 이 개가. 썩 넘어가니까 바위가 이만한게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더라. 개 있는 데를 이렇게 가니까 거적데기를 제 품에 품고서 제 적을 빨리고 있더라. 애가 이쁜 게 허여멀건 한 게 아주 참 이쁘더라. 맨날 가서 품고 젖을 빨렸더라. 그 애를 찾아다가 가르치고 가르쳐서 잘 살더라고요.

#### 9) 돈 욕심에 친정어머니 죽인 딸

친정어머니가 미군부대 다니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서는 아홉 살 먹은 아들하고 살았어. 딸은 시집보냈고. 6·25 나고선 한참 소문이 났었어. 딸은 시집을 보내고 아들은 하나 데리고 살고 영감은 죽고 그러는데, 미군부대 다니면서 무슨 장사라는 건 다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딸이 돈을 꾸 달래더라. 얼마를 꾸 달래서 얼마를 꾸줬대.

어느 하루 저녁에는 바깥에 와서 문을 열라 그러더라. 안으로 문을 걸고 문턱에 낫을 놓고 그렇게 잤대. 장모가. 애를 하나 데리고 무서워서 애 키워서 해서 즐라고 돈을 모았는데. 하루 저녁에는 누가 문구멍을 따더라. 어떤 놈이. 무서울 거 아냐.

“어떤 놈인지 빨리 손 빼라.”

고 그러면서 문고리 잡고 있는 거를 낫으로 손목을 찍었다. 새벽녘에 딸이 왔더라. 바깥에.

“엄마 자우?”

그러더라. 그 때 전화가 있었나 뭐 있었나. 난리 나고선.

“그래 잔다. 니가 새벽에 웬일이냐?”

“엄마 우리 그이가 아파서 드러누웠는데, 엄마가 닭이나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해 줘.”

그러더라. 닭을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서는 내려갔어. 내려가니깐 솔에다 물을 솔솔 끓이고 앉았더라. 아홉 살 먹은 아들한테는,

“내가 누나 닭 잡아 주고 올라올게. 있다가 내려와라.”

하고선 저 엄마가 갔대. 그런데 딸년이 대가리에다 물을 끼얹은 거야. 그래서 저 어미가 죽었어. 죽어서 자빠지니까 화장실에다 재, 재 속에다 저 어미를 파묻었는데 그 애가, 아홉 살 먹은 게 내려와 가지고선,

“엄마, 엄마.”

부르니까는,

“엄마 어디 갔다 온대. 와서 얼른 밥 먹고 학교가.”

들어가 밥을 먹고서 화장실을 간 거야. 저 엄마가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잘 입었대요. 그 전에 그걸 잘 입었어. 화장실을 가보니까 웃고름이 조금 보이더라. 그게 뭔가 하고 쓱 잡아당기니까 무섭더라. 더 당기니까 저 엄마 웃이랑 나오잖아. 저 엄마 얼굴이 나오잖아. 그래서 냅다 시내로 갔대. 시내로 가서,

“우리 엄마 누나네 잣간에 죽어 자빠졌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고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대. 가서 파보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니깐,

“저 엄마가 돈을 안 쥐 가지고 돈 욕심에 그랬다.”

하더라. 다 나막신을 신겨 가지고. 그 딸년이 지지배를 낳았대요. 지지배를 업고 춘천시내로 해서 가평 시내로 해서 데리고 갔대. 나는 못 봤는데 서울로 어느 사람이 끌고 가더라.

“이 년아, 개 짖는 소리 못해?”

그러면,

“어흥흥흥!”

애가 우니까 또 이렇게 돌려 가지고 젓을 먹이더라. 그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 10) 나무꾼 흥내 내다 망신당한 이웃 사람

옛날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대. 갔는데 개금이 하나가 데구르르 굴러 오더라요. 그걸 하나 주워서,

“아이쿠, 내 동생 주고,”

또 하나 데구르르 굴러 내려와서,

“아이쿠, 이걸 우리 아버지 드리고.”

또 하나 데구르르 굴러 내려와서,

“아이쿠 이걸 우리어머니 드리고, 내 동생 주고, 그 다음에 나 먹고.”

그러더라. 그러고서는 개금을 가지고 오다가 날이 저물었대.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짊어지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바위 밑에 이려고 앉았으니 도깨비들이 셋이서 스물스물 가더니,

“어디서 인내가 나지 않냐?”

“뭘 내가 나냐?”

그러고서는 가더라. 가는 걸 가만가만 쫓아가니까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는,

“열러라 쿵!”  
 이러니까 덜커덕 열리더래. 도깨비들이 한 짐씩 들고 들어가더니 또 길에  
 다 놓고,  
 “달혀라 쿵!”  
 그리고 나오더니 가더래. 그 놈의 도깨비들이 가서,  
 “열러라 쿵!”  
 하니까 정말 열리더래.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게 없더래. 골고루 다 있  
 더래. 그래서 좋은 거로 한 짐 집어서 지고서는,  
 “달혀라 쑹!”  
 하니까 또 달히더래.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 가지고서는 지 엄마 지 아버지  
 지 동생 먹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잘  
 먹고 와보니 아주 그렇거든.  
 “어유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먹니? 맛있는 걸 먹니?”  
 “도깨비 집에 가서 훔쳐왔다.”  
 그러니까,  
 “나도 뭐 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뭐 훔칠 수 있을까?”  
 “훔칠 수 있어. 엄청나게 많다야. 가서 나무를 한 짐 해 가지고서 도깨비  
 들이 하는 소리나 해봐라.”  
 그 사람도 여지없이 나무를 한 짐 해 지고 앉았으니 개금 알이 테구르르  
 굴러 내려 오더래. 또 하나.  
 “아이쿠, 요거 내 먹고.”  
 지 어머니 지 아버지 내 팽개친다. 집어놓고서는 오다가 거기 앉았으니까  
 는 도깨비들이 오더니만은,  
 “인내 난다. 인내 나.”  
 이러더래.  
 “뭘 인내가 나니?”  
 또 들어가 놓고선,  
 “열러라 쿵!”  
 들어가더래. 개금 하나 딱 깨무니까,  
 “아이쿠, 천둥소리가 아니냐?”  
 또 하나 탁 깨무니까,

“아이고 어떤 놈이 방귀 끼는 거 아니냐?”

또 하나 딱 깨무니,

“아이고, 이거 어제 왔던 그 놈이 아니냐? 우리 거 흠쳐간 놈 아니냐?”

“이 놈을 잡아서 늘씬하게 패줘야지.”

도깨비들이 그러더라. 그러는 소리를 듣고선 나무 뒤에 요렇게 숨어 앉아 있으니까 나오더니,

“달혀라 쿵!”

하고 가더라. 그래서 자기도,

“열려라 쿵!”

하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많더라. 나무를 집어 내버리고서는. 한 짐 짊어지고 나오다가 도깨비한테 걸렸다잖아. 걸려 가지고서는,

“어제 다 흠쳐간 이 놈이 또 짊어지고 나왔다.”

고 늘씬하게 패주고. 남자들이 있어도 괜찮은가? 그 사람 나무꾼의 자지를 길게 만들었다. 집으로 갔대. 집으로 가 가지고서는 들어가서도 굴뚝 뒤에 가서 자지를 쑥 내밀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밥하러 나와서 지게작대기로 탁 치면 뒤에서 ‘아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뭘 어디 가서 먹어도 ‘요거 내 먹고’ 그러는 게 아니래. 부모부터 먹어야지. 그래서 죄를 받아.

#### 11) 곳감 무서워하는 호랑이

할아버지가 방아를 찧으러 갔는데 손주를 데리고 있는데 아기가 막 우니까,  
“대추 즐겨 우지 마라. 밤 즐겨 울지 마라.”

별소리를 다해도 이 놈의 애가 안 그치고 우는 거야.

“아가, 아가, 우지 마라. 꼬꼬닭아 우지 마라. 니가 울면 날이 샌다.”

달래다, 달래다 못해서 자장자장 자장가도 부르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사과 즐겨 우지 마라, 배 즐겨 우지 마라.”

별소리를 다해도 울더니,

“아가, 아가 곳감 즐겨.”

하니깐 애가 푹 그치더라. 바깥에 호랑이가 와 앉았다가,

“아유,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나보다.”

하고 냅다 갔대잖아. 와서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방아 찧어다가 호랑이는 쫓고서. 영감하고 손주하고 쫓고서. 며느라가 잘 살더라요.

호랑이 왔다 뭐 왔다 온다고 해도 울 던 애가 곳감 즐겨 우지 마라 하니깐 푹 그치니까는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구나 하고 냅다 도망 갔대잖아

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잘 내려왔대요. 집이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깐. 우리 왕고모 할머니도 물레질하다가 문에다가 흠을 확 뺨어서는 접시쪽에다가 화롯불을 담아서 문을 열고 확 뿌리니까 도망가더라. 살에 붙으면 털이 타니까.

## 1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할머니가 팔죽을 하고 이고서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딸네 집에 가는데 고개를 중턱쯤 넘으니까 호랑이가 나와 앉았대잖아요.

“점잖은 짐승이 왜 한복판에 나와 앉았느냐?”

하니까는,

“팔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더라. 그래서 팔죽을 한 그릇 떠서 이렇게 주니까는 또 저만치 가서,

“너 또 왜 앉았니?”

“팔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한 그릇 퍼주고. 그리고 나니 고개를 다 내려가 보니 팔죽을 다 퍼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딸네 집을 들어가니까 사위하고 딸은 엄마가 팔을 쭈어 온다니까는 마중하러 고개 넘어가다가 그것들한테 다 잡아먹혔대. 그래서 손주들만 남매들이 앉았더라잖아.

“왜 너 둘만 앉았니?”

“할머니 팔죽 쭈어 온대서 마중 갔는데 못 봤어?”

“호랑이만 앉았더라.”

그러니까,

“아유, 할머니 얼른 빨리 들어와 문 걸어. 호랑이가 들어와서 우리도 잡아먹을라고 그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앉았으니까,

“팔죽 할멈, 팔죽 할멈, 빨리 나와 안 잡아먹을게.”

그러더라.

“잡아먹을려고 그러지? 내가 내 팔죽 다 뺏어 먹고.”

“안 잡아먹을게. 팔죽 할멈. 나와 봐.”

할멈이 나가니까 애들이 뒤쫓아 나와서 아주 큰 느티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대. 남매는. 호랑이는 그 할멈을 잡아먹고서는 느티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내려와라. 안 잡아먹을게.”

그리고 쳐다보고 호롱이가 앉아있으니깐,

“느들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니까,

“동아줄을 타고 올라왔지. 썩은 동아줄.”

동아줄을 타고 반을 올라갔는데 이 애들이. 아니야,. 반을 안 올라갔어.

호랑이가 오르는 거야.

“하느님, 우리를 살릴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일려거든 썩은 동아 줄을 내려주세요.”

애들 둘이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렸어. 산 동아줄을. 그걸 타고 반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와 앉았는거야. 올라가 서는 줄을 이렇게 끌어올렸어. 애들이. 여자는,

“나는 무서우니까 해가 될게. 오빠는 달이 되어.”

해와 달이 남매라잖아. 호랑이는 또,

“나를 죽으려면 산 동아줄을 내리고 죽일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리라.”

고 빌고 한 반을 올라가는데 줄이 끊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졌대. 수수깥에 그 빨건 게 수수 대궁에 붉은 게 호랑이 피래.

### 13) 바람난 어머니 지혜롭게 혼낸 아들

앞집에는 영감 마누라 살고 뒷집에는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그런데요. 앞집에는 애도 하나 있대. 요 놈의 애가 지 엄마를 보니까 뒷집에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라. 요 놈의 애가 나이도 많지 않은 게, 일곱 살 먹은 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는 밥을 해도 은근히 갖다가 퍼주고 그래서 요 놈의 애가,

“버릇을 고쳐 놔야지. 우리 아버지 등골만 빼먹는다.”

하고서는 뒷집에 가 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밥을 갈러 가세요?”

“나 아무데로 가. 왜 그러니?”

“글세 말이에요.”

집으로 가서,

“엄마, 저 뒷집의 아저씨가 아무데로 밥을 갈러 간다는데 떡을 좀 해요. 갖다드릴게.”

그러니까는 좋아서 찰떡을 하더라. 떡을 싸서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쪽에 하나 집어 놓아두고 저쪽에 하나 집어 놓아두고. 아저씨 갖다준다던 떡을 다 집어 던져 놓고는 올라가 가지고서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니?”

“우리 엄마를 넘보고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도끼 가지고 찍어 죽인됐어요.”  
그리고서는 뛰어내렸왔어.

“아버지, 아버지, 뒷집 아저씨가 도끼를 메고 올라가서 연장 망가졌다고  
연장 좀 고치라는데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도끼를 메고 올라가는 거야. 그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아저씨 때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내려와 가지고는 저 아버지  
더러 도끼 메고 와서 연장 고치라고. 그래 매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는 안 그럴게. 도끼 메고 오지 마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산을 올라 뛰는 거야. 뒷집 박씨네 영감이. 영문도 몰라.  
저 아버지는.

“나 안 그럴 게.”

하면서 고개를 훌쩍 넘어갔어. 그 영감은 뛰어내려오다가,

“너 아버지는 뭘 그리 줍니?”

“내려 오다보니 떡이 떨어져 있으니 주으면서 내려왔어.”

“저 아버지가 엄마 뒷집 아저씨 좋아한다고 오늘 들을 집어다가 해골을 깬대.”

저 엄마는 막 내려 뛰는 거야. 막 내려 뛰니까는,

“너 엄마는 왜 뛰니?”

“집에 불이 났대요.”

그 마누라가,

“아유, 나 한 번 밖에 안 잤어.”

버릇을 고쳐서 잘 살더라. 그 놈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넘어 탄 데로 가고.  
애가 버릇을 고쳐서 살더라.

#### 14) 지혜로운 어린 신랑

여자는 열 여덟 살이고 남자는 아홉 살이래. 옛날에는 그렇게 장가를 보  
냈어. 아들이 하나면 자손을 빨리 이을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장가를 들어  
봤는데 그 엄마가 어디 마을 갔다오니까는 저 아들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  
앉았더라. 그래서,

“너 왜 그 꼭대기에 앉았니?”

하니까는,

“엄마,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그러더라. 저 색시가 이제 말을 익히니까는. 저 색시가 지붕꼭대기에 올라

앉혀 놔대. 애들 안아서. 열 여덟 살이니까. 아홉 살이면 조그맣잖아. 지붕꼭대기에 막 올라앉았는데 엄마가 보면서,

“너 왜 거기 올라 앉아 있니?”

하니까,

“엄마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호박 따려고 올라 앉았니? 작은 거를 따 가지고 내려와라.”

작은 호박을 따 가지고 저 엄마를 주면서,

“호박 받으시오.”

하고 내려왔지. 이제. 이 마누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맛 좀 보일려고 지붕위에 올려놓았는데 지 엄마가 오는데 꼭대기 올라앉았으니 시어머니한테 야단맞을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큰 호박을 딸까요? 작은 호박을 딸까요?”

하니까 겁이 났는데 그러는 걸 보고서는 지 엄마가 내려놓아 주었는데 아우 조그만 해도 엄청나거든. 그 색시가 그 날 저녁부터 아주 잘 신랑을 위하고 데리고 잘 살았어요. 그 신랑을 보고서는 그 아들을 보고서는 누가 와서,

“아주 조그만 꼬마신랑이 있네 이 집은.”

그랬대. 그러니까는,

“여보 할머니, 그 말씀 마소. 제비가 적어도 강남을 가요. 여보 할머니, 그 말씀 마소. 참새가 작어도 알만 까요.”

그리고 노래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색시가 신랑을 우애하고 잘 살더라고요.

#### 15) 효자 도운 호랑이

아버지가 아주 겨울철인데 그 12월 달쯤 됐는데, 몸에 병이 들어 가지고 늘 딸기를 즐겼단 말이야. 평소에 나무딸기를. 그래 그 딸기를 아버지가 원한단 말이야. 겨울에 어디 가서 딸기를 딸 데가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하도 효심이 지극해 놓으니까는 그래 이제 산에 딸기를 딸려고 딸기밭을 찾아서 올라가니, 앞도 떨어져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 거기 호랑이가 나와 가지고 그래 이제 있으니,

“니가 왜 날 잡아먹으려고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에 아버님 그 딸기를 구할려고 나왔는데, 왜서 왔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서는 자꾸 타라고 그러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 그 사람이 타니까는, 그래 뭐 어디로 가느니도 모르게 멀리 갔어. 그게 저물었는데 캄캄한 밤이 됐는데 불이 빨간 게 보여서 그래

그 집안을 찾아 들어가니까 그 집 제사라. 제사인데 그래 거기서 이제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딸기를 말이지 내놓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 그 가니까는 아주 반가워하면서,

“여기는 좀처럼 사람이 잘 안오는데,”

사실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러시냐. 그 전에는 딸기를 한 말 이상, 두 말 이상 이렇게 나뒀는데, 그 날은 자기도 어른도 딸기를 그렇게 즐겨서 제사를 올릴려고 두 말 뭐 심지어 이래 많이 따서 놔뒀는데, 다 썩어버려서 겨우 한 접시 밖에 없어서 겨우 그거를 제사를 올렸는데, 금년에는 웬일인지 말이지 딸기가 하나도 안 썩었다.”

이거야. 그래서 딸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참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신 거는 우연이 아니고 말이지, 결국은 그 효심 때문에 딸기도 안 썩었다.”

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 집에서 아주 흔쾌히 모시면서 딸기를 주고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음복도 하고.

## 2. 포토 갤러리

### 1) 길

#### (1) 옥천길



옥천길 기점(옥천길 35)



옥천길 중간1(옥천길 49-1)



옥천길 중간2(옥천길 58)



옥천길, 옥천길40번길  
교차지점 기점(옥천길 62)



옥천길, 봉의산길22번길  
교차지점 기점(옥천길 65)



옥천길 종점(옥천길 70)

(2) 옥천길40번길



옥천길40번길 기점1(옥천길40번길 1)



옥천길40번길 기점2(옥천길40번길 5)



옥천길40번길, 향교뒷길 교차지점  
(옥천길40번길 19)



옥천길40번길 중간1  
(옥천길40번길 19)



옥천길40번길 골목2(옥천길40번길 25-6)



옥천길40번길, 옥천길 교차지점(옥천길 60-3)



옥천길40번길 중간2(옥천길40번길 30)



옥천길40번길 종점(옥천길40번길 39)

(3) 봉의산길14번길



봉의산길14번길 기점(옥천길 51)



봉의산길14번길 중간-1(봉의산길14번길 11)

(4) 옥천길54번길



옥천길54번길, 향교옆길13번길 기점  
(옥천길54번길 26)



옥천길54번길 중간1  
(옥천길54번길 22)



옥천길54번길, 옥천길40번길 교차지점  
(옥천길40번길 19)



옥천길54번길 종점(옥천길54번길 3)

(5) 향교옆길13번길



향교옆길13번길 기점(옥천길54번길 23)



향교옆길13번길 중간1(향교옆길13번길 24)



향교옆길13번길 중간2(공영주차장 앞)



향교옆길13번길 중간3(공영주차장 앞)



향교옆길13번길 중간4(향교옆길13번길 14)



향교옆길13번길 중간5(향교옆길13번길 10)



향교옆길13번길 중간6  
(향교옆길13번길 10)



향교옆길13번길, 향교옆길 교차지점  
(향교옆길 15)

(6) 향교뒷길



향교뒷길, 향교옆길 교차지점  
(향교뒷길 2)



향교뒷길 중간1  
(향교뒷길 4)



향교뒷길 골목길 기점(향교뒷길 6)



향교뒷길 골목길 중간1(향교뒷길 6-3)



향교뒷길 골목길 중간2(향교뒷길 7)



향교뒷길 골목길 중간3(향교뒷길 6-12)



향교뒷길 중간2(향교뒷길 11)



향교뒷길 종점(향교뒷길 18)

(7) 향교옆길



향교옆길 기점1(향교옆길 45-1)



향교옆길 중간1(향교옆길 22)



향교옆길, 향교옆길13번길 교차지점  
(향교옆길 22)



향교옆길 기점2  
(삭주로 35)



향교옆길 중간2(향교옆길 8)



향교옆길 기점3(삭주로 25)

(8) 향교옆길15번길



향교옆길15번길  
(향교옆길15번길 7)



향교옆길15번길, 향교뒷길 교차지점  
(향교옆길15번길 12)

(9) 향교옆길21번길



향교옆길21번길, 향교옆길 교차지점  
(향교옆길 21)



향교옆길21번길 중간1  
(향교옆길 19)



향교옆길21번길 중간2(향교옆길21번길 5)



향교옆길21번길 종점(향교옆길21번길 11)

(10) 삭주로



삭주로 기점(향교옆길 45-1)



삭주로 중간1(삭주로 21)



삭주로 중간2(삭주로 3)



삭주로 종점(삭주로 3)

(11) 서부대성로



서부대성로 기점(서부대성로 84-1)



서부대성로 종점(서부대성로 64)

(12) 서부대성로63번길



서부대성로63번길(서부대성로 65)



서부대성로63번길(서부대성로63번길 6)

(13) 봉의산길



봉의산길, 봉의산길22번길 교차지점  
(봉의산길22번길 2)



봉의산길  
(봉의산길 26)



봉의산길 교차지점(봉의산길 30)



봉의산길 종점(봉의산길 37)

(14) 봉의산길22번길



봉의산길22번길 기점(봉의산길22번길 25)



봉의산길22번길 중간1(봉의산길22번길 24-1)



봉의산길22번길 중간2  
(옥천길40번길 39)



봉의산길22번길, 옥천길40번길 교차지점  
(봉의산길22번길 22)



봉의산길22번길 중간3(봉의산길22번길 16)



봉의산길22번길 중간4(봉의산길22번길 8)



봉의산길22번길 중간5(봉의산길22번길 3)



봉의산길22번길 종점(봉의산길22번길 3)

2) 인물

(1) 강육재(전 춘천화교소학교 교장)



(2) 김기태(춘천중앙교회 원로장로, 전 교육공무원)



(3) 이무상(시인)



(4) 이외수(소설가)



(5) 안용선(한국화가)



(6) 유계순 님



(7) 박영숙 님



(8) 나경덕 님



(9) 현혜숙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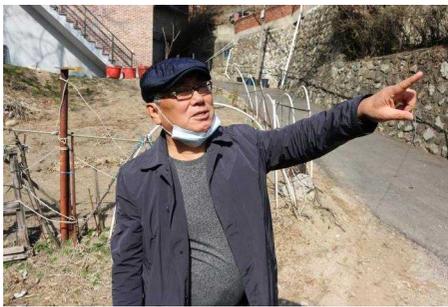
(10) 박병선 님



(11) 홍동표 님



(12) 권영돈 님



### 3) 문화재 및 건축물

#### (1) 위봉문



#### (2) 조양루



(3) 향교





(6) 춘천예술마당(춘천미술관)



(7) 봄내극장(아폴로 건물)



(8) 강원도교육연구원



(9) 춘천화교소학교



(10) 일제강점기 건축물



(11) 경관우수건축물



(12) 병역명문가의 집



(13) 국가유공자의 집



4) 자연 및 생활문화

(1) 자연



춘천여자고등학교 목백합



춘천미술관 위성류



향교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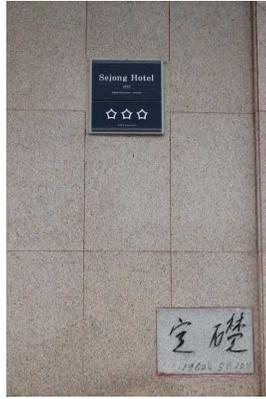


강원도교육청 은행나무



춘천여자고등학교 목백합

(2) 춘천세종호텔(구 춘천신사)



(3) 우물



옥천길 56



옥천길 56



옥천길 57



옥천길40번길 5



옥천길40번길 5



봉의산길 30



옥천길 65

(4) 시백 안중중 작품소장고



(5) 생활문화



구 가로화실(서부대성로 69 2층)



한어울(구 옥천목욕탕)



옥천길 상가(몽레브)



옥천길 상가(은소반)



옥천길 빌라(참아이빌)



옥천길 원룸(빈엘빌)



옥천길54길, 형교옆길13번길 입구 상가



옥천길54번길



옥천길54번길 상가(금은동사무소)



향교옆길13번길



향교옆길13번길 상가



향교옆길13번길 무속인의 집





향교옆길13번길 책방(서툰책방)



향교옆길13번길 상가(다미)



향교옆길13번길, 향교뒷길 사이 주차장



향교옆길13번길 무속인의 집



향교옆길13번길 무속인의 집



향교뒷길 이외수 소설가의 살던 곳



등보빌라



옥천길40번길 상가



옥천길40번길



옥천길 원룸(벤엘빌)



봉의산길22번길 빌라(영아이비스텔)



중국문화카페 다이빈



서부대성로 상가(파도Hits)



서부대성로 상가 2



삭주로 상가(향교옆길 입구)



삭주로 새마을금고





석주로, 향교옆길 입구 상가(미니스톱)



향교옆길 무속인의 집



교동빌라



송죽원룸



향교옆길21번길 스낵



향교옆길21번길 화재로 전소된 주택



향교옆길15번길



향교옆길15번길 원룸(소망원룸)



향교옆길15번길 원룸(사이버원룸)



- 지면관계로 추가 자료는 디지털기억장치에 저장